

**The Great Controversy Between Christ and His angels,
And Satan and his angels - by Ellen G. White (1858 Edition)**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의 큰 싸움

엘렌 G. 화이트 저

1858 년

베들크릭 미시간에서 제임스 화이트 펴냄

엘렌 고울드 화잇 (1827-1915)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 엘렌은 그의 나이 17세가 될 때까지 감리교도였다. 그는 1843년에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신다는 것을 믿고 전파한다는 이유로 출교를 당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세상에 전해야 할 계시와 기별을 주셨는데 이는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을 전파하기를 거절한 후의 일이었다. 그녀는 많은 견책과 권고의 기사와 책들을 썼다. 그녀가 건강 기별에 관한 빛을 받은 후, 건강 기별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자가 되어 에덴동산의 처음 음식과 비슷한 음식으로 돌이킬 것과 해로운 음식을 삼가고 모든 일에 절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화잇 부인은 그 자신을 선지자라고 말한 적이 결코 없다. 다른 사람이 그녀를 선지자라고 부르는 일에 대해 문제를 삼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이 그녀의 신분에 대해 물었을 때는 “기별자”라고 대답하였다. 이런 점에서 그녀가 시작한 건강 개혁 사업과 죄로부터 회개하려고 하는 기별의 전파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운동을 지지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미래 사건을 말하는 선지자들 이상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가 저술한 책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정로의 계단”이라는 책을 비롯해서 여러 권의 책들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의 대 투쟁”이라고 하는 이 책을 가장 중요한 책으로 여겼다.

서 언

“율법과 증거에게라.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하면 이는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이사야 8:20(NKJV)

21세기 초반에 접어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인터넷에 예언자들이 저들의 의견을 서로 주고받는 웹 사이트 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말하는 어떤 것들은 이상하기만 합니다. 저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들이 말하는 것을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비교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후에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책들이 된 말씀)하시고 저들로 기록하게 하셨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해 상반되는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세에 이러한 문제가 큰 시험거리로 대두될 것을 미리 아시고 이 점에 대해 예수님께서 직접 예언하셨습니다.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마 24:11) 추가적으로 강조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예언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요일 4;1)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엘렌 화이트도 이 점에 대해 예외는 아닙니다. 이 책에 있는 말씀을 거룩한 성경과 대조해서 시험에 통과하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자비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20세기 마지막 몇 해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반기를 들었다는 점에 대해 지금 으로서는 거의 믿기가 힘듭니다. 저들의 이러한 주장을 내세우기위해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말씀은 “이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 함이니 누구든지 이것들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또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계22:18-19 NKJV))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요한이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는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령께서 무엇 때문에 영을 시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요한의 시대 이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필요할 경우에 새로운 진리를 주시고,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마음속에

있는 진리로 하여금 그것이 진실 된지 확인하도록 하시며, 기쁨으로 수락하여 따르도록 하십시오. 물론 사단 역시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용납하십시오. 그에게 그런 일을 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데, 고린도 전서 12장에 있는 질문이 많은 경우에 목과됩니다.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선지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이적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다 치유의 은사를 받았느냐?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느냐? 그리고 난 후 “더욱 뛰어난 일”에 대해 언급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은사들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동일한 책 14장에서 그는 더 나아가서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 은사를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고전14:1-NKJV)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열망하고 방언들로 말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전 14:39-NKJV)고 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살전 5:19-2 NKJV)

“대 투쟁”에 관한 게시는 엘렌 화이트 여사가 1858년 봄, 미국 오하이오주 로벳쓰 그로브(Lovett's Grove, Ohio)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을 때 주어졌습니다. 그녀가 게시 가운데 본 대부분의 것들은 11년 전에 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때에 사단이 강한 방해를 하려고 했음에도 그 게시를 기록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 특별히 30장의 내용이 1847년에 “적은 무리(Little Flock)”라는 팜플렛으로, 그리고 1851년에 “그리스도인의 경험과 견해(Christian Experience and View)”라고 하는 팜플렛으로, 1854년에는 증보판(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연약했으나 경건한 여인의 펜을 통해서 기록되었으며, 1858년에 그 첫 번째 책이 발행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성경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단은 왜곡된 번역판으로 세상에 홍수를 이루고자 했는데, 그는 또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 가장 소중한 이 책 또한 파괴하고 왜곡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호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전쟁과 범죄와 불결한 성생활, 그리고 심지어 종교적인 신조에 이르기까지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하고 의아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는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큰 싸움에 대해 이해할 때 그 해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모든 것을 시험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최상의 선물이 그대들 위에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책의 내용을 원하신다면 <http://www.earlysda.com>에서 무료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나 건의 사항이 있으면 다니엘 윈터스(Daniel Winters, earlysda@hotmail.com)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저자에 대한 설명, 이 책에 대한 서언, 단어 설명과 매 장 끝에 기록된 참고 성경절들은 엘렌 화이트가 기록한 원본에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단어 설명

Word (단어)	Meaning (의미)	First Appearance(처음 명시된 곳)
Jesus Christ	One of the 3 beings who are God. He made everything in the world and universe. He was born as a human around 2,000 years ago, was killed when he was 33 years old, was resurrected, and is now working in heaven for our salvation. He will come back to this earth soon, and will be given rulership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forever and ever.	Title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삼위 일체 가운데 한 분. 이 세상과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 약 2,000년 전에 인성을 쓰시고 인간으로 탄생하셨고, 그의 나이 33세 되셨을 때 죽임을 당하셨다가 부활하셨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 그분은 이 세상에 속히 오실 것이며, 그분에게 영원을 두고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을 다스릴 통치권이 주어질 것이다.	
Satan	The Devil. He is the father of all evil. He was created as the most beautiful, perfect being ever created, but he decided to rebel. He has ownership of this world now, but will eventually be destroyed by God.	Title
사단:	악마. 그는 모든 악의 아버지이다. 그는 창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러나 반역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지금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에 가서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파멸될 것이다.	
Lord	Jesus Christ, God the Father.	Chapter 1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제1장
I saw, I was shown	When the author - Ellen White - saw this vision, an angel was by her telling her and showing her things. She wrote down what she actually saw with her own eyes.	Chapter 1
내가 보니, 보여 주셨다:	저자 엘렌 화잇이 이 계시를 보았으며, 한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고, 보여주었다.	제1장

그녀는 그녀의 눈으로 본 것들을 적었다.

God	The Father, Son (Jesus Christ), and the Holy Spirit. All 3 are God.	Chapter 1
하나님:	아버지, 아들(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 모두가 하나님이시다.	제1장
The Son of God	Jesus Christ.	Chapter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제1장
God's word	1. What God says. 2. The Bible.	Chapter (2), 4 Chapter 18
하나님의 말씀:	1.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2. 성경	제2장 제18장
Redeem, Ransom	Humans originally belonged to God, but because our ancestors sinned, we all belong to Satan now. To make us his again, Jesus came to this earth as a man, died, was resurrected, went to heaven, and will come back.	Chapter 3 제3장
구속, 속량:	인류는 원래 하나님께 속했음. 그러나 우리의 조상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 모두는 지금 사단에게 속해 있음. 우리를 다시 그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 하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다.	
The angel	The angel that was actually sent to be with Ellen White when she saw this vision.	Chapter 3
천사:	엘렌 화잇이 계시를 볼 때 엘렌 화잇과 함께 있도록 천사가 보내짐.	제3장
Advent	Jesus officially coming to this earth. The first time was around 2,000 years ago, and the second time will be soon (^-^).	Chapter 4

재림:	예수께서 공식적으로 이 땅에 오심. 초림의 때는 약 2,000년 전의 일이었고, 재림은 곧 이루어질 것임.	제4장
The Lamb of God	Jesus Christ.	Chapter 4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제4장
John the Baptist	A prophet, the cousin of Jesus. He called for repentance and baptism.	Chapter 4
침례 요한: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 예수님과 사촌 간임. 그는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했음.	제4장
Baptism	Dipping the entire body underneath the surface of the water.	Chapter 4
침례:	몸 전체를 물 아래 잠기는 예식.	제4장
Elijah	A prophet who was taken to heaven without dying.	Chapter 4
엘리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	제4장
Sacrifice	An animal offering given to God. Jesus Christ - himself.	Chapter 5
희생:	하나님께 드려진 동물제사.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킴.	제5장
His nation, God's people	1. In ancient times, the people of Israel and Judah. 2. Presently, all those who believe in Jesus and do his will.	Chapter 5 Chapter 17
그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1. 고대의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 2. 현대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제5장 제17장
God's book	1. The 'Book of Life' in heaven. The names of all those who will live forever are written there. 2. The Bible.	Chapter 6
하나님의 책:	1. 하늘에 있는 생명책.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	제6장

2. 성경책

Michael 미가엘:	The head of all the angels in heaven.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의 천사장	Chapter 6 제6장
Rue 루:	A tree that grows in the Middle East. The leaves are used for medicine. 루타(ruta)라고도 하는 운향과의 식물로 중동 지방에서 자라남. 잎이 약물 효과가 있어 약초로 사용됨.	Chapter 7 제7장
Brother, Sister 형제자매:	All those who believe in Jesus and do his will.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들.	Chapter 7 제7장
Hosanna 호산나:	Praise God! 하나님을 찬양하라.	Chapter 9 제9장
Sabbath 안식일:	Day of rest that begins at sundown Friday and ends sundown Saturday. See Genesis 2:2-3. 쉬는 날로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창2:2-3참고)	Chapter 10 제10장
Message 기별:	Words that come from God. Also the movement to spread those words.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일어난 운동.	Chapter 10 제10장
Ascension 승천:	Rise to heaven. Does NOT mean death. 하늘로 올라감. 죽음을 의미하지 않음.	Chapter 11 제11장
Apostle 사도:	People who spread the gospel full-time etc. as a profession. Especially refers to Jesus' disciples, and Paul. 직업적으로 모든 시간을 바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을 지칭함.	Chapter 12 제12장

The Son of Man	Jesus Christ.	Chapter 13
사람의 아들(인자):	예수 그리스도	제13장
Gentiles	Those other than the Jews.	Chapter 14
이방인들: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	제14장
Paul	Before his conversion, he was known as 'Saul'. See Acts 13:9.	Chapter 15
바울:	회심의 경험을 하기 전에 사울로 알려진 사람. (행13:9 참고)	제15장
1843, 1844	Jesus' second advent and the end of the world was believed to come to an end this year. In fact, the time prophecy of Daniel 8:14 DID end this year.	Chapter 23
1843, 1844: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이 이 때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 해. 사실 다니엘 8장 14절의 예언은 이 때에 실제로 끝났음.	제23장
Shepherd	1. Leaders in the churches. Pastors and Priests. 2. Jesus Christ.	Chapter 23
목자:	1.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 목사와 제사장들. 2. 예수 그리스도	제23장
Saints	All those who really love God from the heart and follow what he says to do.	Chapter 24
성도들: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는 자들.	제24장
Sanctuary	The name of the place in heaven where Jesus is working for our salvation now. It has a court, Holy Place (first apt.), and Most Holy Place (second apt.). The one Moses made was modelled after the one in heaven. It is also called 'Tabernacle' and 'Temple'.	Chapter 25
성소: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늘에서 일하시는 장소의 이름.	제25장

성소 뜰, 성소(첫 번째 칸), 지성소(두 번째 칸).
 모세가 하늘에 있는 모형을 따라 만들었음.
 장막 또는 성전이라고 불리었음.

Atone	Jesus performs this work of making humans right with God thru the merits of his own blood.	Chapter 25
속죄:	예수께서 그분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바르게 하심.	제25장
Zion	1. One name for the city now in heaven. 2. The name of the group of people who follow God.	Chapter 26
시온:	1. 하늘에 있는 도성의 이름 2.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의 이름	제26장
New Jerusalem	The name of the city now in heaven, home to God and the angels. This city will come down to this earth and be here forever.	Chapter 27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는 도성의 이름. 하나님과 천사들의 집 이 도성이 이 땅으로 내려와 영원히 있을 것임	제27장
Cherub	High ranking order of angels.	Chapter 27
스랍: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직위의 천사	제27장
Mediation	Jesus stands between guilty sinners and an Almighty God the Father. Jesus performs this work for our salvation as a 'go-between'.	Chapter 27
중보:	예수께서 죄를 범한 죄인들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서서 탄원하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사역을 하고 계심.	제27장
Beast	Name for a large group of people who are against God. See Revelation 13.	Chapter 28
짐승:	하나님을 대항하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을 칭하는 말.	제28장

Jehovah 여호와:	One name of God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또 다른 이름	Chapter 28 제28장
Canaan 가나안:	Name of the land that was promised to the Israelites. Represents heaven. See Genesis 12:5.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의 이름. 하늘을 대표함. 창세기 12:5 참고	Chapter 28 제28장
Day of Pentecost 오순절:	One of the festivals God gave Israel. See Leviticus 23:15-16 & Acts chapter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 가운데 하나. 레위기 23:15-16, 사도행전 2장 참고	Chapter 29 제29장
Adventist 재림신도:	Name of those people who believe that Jesus is coming to earth again. Also, that group's name.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을 칭하는 말. 또한 그 부류를 칭하는 말.	Chapter 29 제29장
Laodicea 라오디시아:	The final church in the list of seven in Revelation chapters 2 & 3. This group thinks they are rich and in need of nothing spiritually, but are in fact poor and miserable. 요한 계시록 2장 3장에 언급된 마지막 교회의 이름.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나, 실상은 가난하고 처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자들.	Chapter 32 제32장
The Latter Rain 늦은 비:	The Holy Spirit's pouring out in abundance to prepare people for Jesus just before he comes back to earth. See Joel 2:23 & Acts 3:19.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기 전에 백성들에게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부여주는 성령. 요엘 2:23, 사도행전 3:19 참고	Chapter 32 제32장

Jubilee	The year of freedom. Every 50 years Israel returned everything back to its original owner. No agriculture was performed this year either. See Leviticus 25:10.	Chapter 37
희년:	자유의 해. 매 50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모든 것이 원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해. 이 해 동안 농사하는 일이 중단됨. 레위기 25:10 참고	제37장

제1장

사단의 타락

주께서 나에게 사단이 한 때는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존경 받는 천사였음을 보여주셨다. 그의 용모는 다른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온화하고 행복해 보였다. 그의 이마는 높고 넓었으며, 탁월한 지혜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의 모습은 완벽했다. 그는 고상하고, 위엄이 있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드님에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질투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그와 상의하기를 바랐다. 그는 시기, 질투,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있기를 바랐고, 가장 높은 존경을 받고자 원하였다. 이 때에 이르기까지 온 하늘에는 질서가 있었고, 하나님의 정부에 일치하며, 완전한 복종이 있었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에 반역하는 것은 가장 큰 죄였다. 온 하늘이 소요를 일으키는 것 같았다. 천사들은 저들을 명령하는 천사와 함께 무리를 지어 정렬되었다. 모든 천사들이 흥분되었다. 사단이 하나님의 정부를 반대하는 의사를 교묘하게 암시하였고, 그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야망을 품었으며,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다. 어떤 천사들은 사단의 반역에 동정심을 나타냈고, 다른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권위를 주신 하나님의 영예와 지혜를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그리고 천사들 사이에 싸움이 있었다. 사단과 그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정부를 개혁하려고 추구하였으며, 예수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에게 것처럼 다함이 없는 능력과 명령권을 준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반역하였고, 저들은 저들의 입장을 결정하도록 아버지 앞에 소환되었다. 그리고 사단이 추방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으며, 천사들, 즉 사단의 반역에 동조했던 천사들 역시 그와 함께 추방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었다. 그리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천사들이 전쟁에 가담되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기기를 원했다. 또한 그에게 복종하는 자들을 이기고자 하였다. 그러나 선하고 진실된 천사들이 승리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늘에서 추방당하였다.

사단이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추방당한 뒤, 하늘에서 그가 가졌던 모든 순수함과 영광을 영원히 잃어버렸음을 깨달았다. 그 때 회개하고 하늘에 그의 자리를 복원하기를 원했다. 그는 그에게 적절한 자리를 얻고자 원하였으며, 그에게 임명되는 어떤 자리든 차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하늘이 위협에 처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를 다시 받아들일 것 같으면 모든 하늘이 손상을 입었을 것이었다. 이는 죄가 그에게서 시작되었고, 반역의 씨앗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그의 반역에 동조하는 무리들을 얻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이 회개하였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탄원하였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다. 저들의 죄, 저들의 분노, 저들의 미움과 질투는 너무 컸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었다. 마지막 형벌을 받을 때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야만 한다.

사단이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은 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악의와 증오심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는 그의 천사들과 의논하였고, 여전히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다.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정원에서 살게 되었을 때 사단은 저들을 멸하기 위해 계획들을 세웠다. 그는 그의 악한 천사들과 회의를 했다.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한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저들에게서 행복을 빼앗을 수 없었다. 저들이 먼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의 은혜를 상실하지 않는 한 사단이 그의 권세를 저들에게 행사할 수 없었다. 저들은 어떤 계획을 세워 저들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이끌므로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쾌히 여기게 하여, 사단과 그의 천사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도록 하여야만 했다. 사단이 다른 모습으로 가장하고, 인간의 복지를 위한 것임을 드러내기로 했다. 그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에 대해 의심하도록 하는 암시를 제공해야 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실까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다음에 저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켜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따져보도록 하고자 했는데 이는 사단 자신이 이 점에 대해 죄를 지었으며, 사단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접근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 꼬치꼬치 따져보도록 하고자 하였다.

(사14:12-20, 겔28:1-19, 계12:7-9 참고)

제2장

인류의 타락

나는 거룩한 천사들이 자주 동산을 방문하여 아담과 하와에게 저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하고, 또한 사단의 반역과 그의 타락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은 사단에 대해 경고를 했고, 저들이 일할 때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를 했는데, 이는 저들이 타락한 원수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지시들을 엄밀히 따를 것을 명했는데 이는 완전한 순종 안에서만 저들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저들이 순종만 할 것 같으면 이 타락한 원수가 저들에게 어떤 권세도 행할 수 없을 것이었다.

사단은 하와로 하여금 불순종하도록 이끄는 일을 시작하였다. 그녀는 첫째로 그녀의 남편을 떠나 배회하는데 잘못을 했고, 그 다음으로 금지된 나무 옆에서 서성거리는 잘못을 했고, 다음으로 유혹자의 음성을 듣는 데 잘못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먹는 날에는 네가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을 의심하는 잘못을 범했다. 그녀는 아마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는 행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감히 불순종을 감행하였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서 먹었다. 그것은 눈에 즐거워보였고, 맛이 좋았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정말로 좋은 것을 금하신 사실에 대해 시샘하였다. 그녀는 그의 남편에게 그 과일을 주므로 남편을 유혹하였다. 그녀는 아담에게 뱀이 한 모든 말을 했고, 그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 대해 놀랐다고 말했다.

나는 아담의 안색이 슬픈 기색을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는 두려워 깜짝 놀라는 것 같았다. 그의 마음에 투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는 분명히 저들에게 주의하라고 경고를 했던 그 원수라는 것을 그는 확실히 느꼈고, 그의 아내는 죽어야만 되었다. 저들은 이별해야만 되었다. 하와에 대한 그의 사랑은 강력한 것이었다. 그리고 완전한 절망가운데서 그녀와 운명을 함께 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과일을 빼앗듯이 움켜잡고 급히 먹었다. 그때 사단은 기뻐 날뛰었다. 그는 하늘에서 반역을 했고, 그를 사랑하는 자들의 동정을 샀고, (그들은) 그의 반역에 동참하게 되었다. 그는 타락했고, 다른 사람들로 그와 함께 타락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분의 지혜에 대해 따져 묻고, 그분의 모든 현명한 계획이 어떤 것인지 파헤쳐보고자 하도록 했다. 사단은 여자 혼자 타락하지 않을 것을 알았다.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녀와 함께 타락하였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소식은 하늘에 퍼졌다. 모든 거문고는 잠잠해졌다. 천사들은 슬픔 가운데 저들의 머리에 있는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온 하늘이 소요하였다. 범죄한 부부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회의가 소집되었다. 천사들은 저들이 손을 내밀어 생명과일을 먹어 불멸하는 죄인이 될까봐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범죄자들을

동산에서 내어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즉시 지키도록 천사들에게 명령이 내려졌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게 하고, 생명나무로 이끌고 가서 생명과를 먹고 영원토록 죄 가운데서 불순종하게 하여 죄가 영원히 불멸하도록 하고자 한 것은 사단이 깊이 있게 생각해 낸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룩한 천사들이 저들을 동산에서 내어쫓도록 보냄을 받았고, 반면에 또 다른 천사의 무리들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목을 지키도록 명령을 받았다. 이 강력한 천사들의 오른 손에는 무엇인가 들고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번쩍거리는 검처럼 보였다.

그때 사단은 승리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타락으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고, 저들은 낙원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창세기 3장 참고)

제3장

구속의 계획

인간이 잃어버린바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하늘은 슬픔으로 채워졌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비애와 질병과 사망으로 운명지어진 인간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범죄자가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는 없었다. 아담의 모든 가족은 죽어야만 했다. 나는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 동정과 슬픔이 함께 나타나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즉시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휘황찬란한 빛에 가까이 가시는 그분을 보았다. 나와 동행하는 천사가 그분은 아버지와 긴밀한 대화를 하고 계신다고 했다. 예수께서 그분의 아버지와 대화하고 계신 동안 천사들은 더욱 근심하는 것 같았다. 그분은 아버지를 두른 영광스러운 빛으로 인해 세 번 감춰졌었고, 세 번째 아버지로부터 나오셨는데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의 표정은 모든 당혹케 하는 것과 난문제로부터 자유롭게 되신 듯 평온하셨으며, 사랑스러움이 나타났는데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는 없었다. 그분은 천사의 무리들에게 잃어버린바 된 인간에게 피할 길이 마련되었다고 알려주셨다. 그분은 저들에게 그분의 아버지에게 간원을 드렸고, 속전으로 자기 생명을 바치기로 했으며, 사망의 선고를 그 자신이 받음으로 그분을 통해서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의 보혈 공로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신 공덕으로 저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아름다운 동산에 들어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 천사들은 기뻐할 수 없었는데 이는 그들의 사령관께서 아무것도 감추지 않으시고 구속의 계획을 저들 앞에서 공개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저들에게 그분께서 그의 아버지의 진노와 범죄한 인간 사이에 서서서 죄악과 멸시를 몸소 받으시겠으나,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분을 미워하고 거절할 것이었다. 그분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분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실 것이요, 인간이 당해야 할 여러 가지 유혹들을 친히 그분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친숙하게 되심으로 유혹받는 자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아시고자 하실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교사로서의 그분의 사명을 마치신 후, 사람의 손에 넘겨질 것이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악한 사람들을 동원하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안해 낼 수 있는 극도의 잔인하고 고통을 견딜 것이요, 가장 잔인한 죽음을 당하시고, 범죄한 죄인으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 달릴 것이요, 두려운 고뇌의 시간을 보내셔야 할 것인바, 천사들 까지도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그 광경을 보지 않기 위해 저들의 얼굴을 돌릴 것이다. 육체적인 고통만 견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도 견뎌야 했는데, 육체적인 고난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이다. 온 세상의 모든 죄악의 짐이 그분 위에 있을 것이었다. 그분은 저들에게 죽겠지만 삼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제멋대로 살며 범죄한 죄인들을 중보하기 위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것이라고 저들에게 말씀하셨다.

천사들은 그분 앞에 엎드렸다. 저들은 저들의 생명을 바치겠다고 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천사의 생명으로는 죄 값을 치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인간을 위한 속전으로 그분의 생명만을 아버지께서 받으실 것이었다.

예수께서 또한 저들도 그분과 함께 한 부분을 담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때때로 그분에게 힘을 줄 것을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취하심으로 그분이 가지게 될 힘이란 저들이 가진 힘과도 같지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저들은 그분의 겸손과 커다란 고통에 대해 증인들이 되어야 했다. 그리고 저들이 그분의 고통을 목격하고, 그분을 향한 인간의 증오를 보면서 저들의 마음에 깊은 동요를 일으킬 것이요, 그분을 향한 저들의 사랑으로 그분을 구원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살인자의 손에서 구출하고자 할 것이나, 저들이 바라보는 광경을 일어나지 못하도록 방해해서는 안 될 것이었고, 저들은 그분의 부활에 동참해야 했다. 이러한 구속의 계획이 고안되었고, 그의 아버지께서 이 계획을 수락하셨다.

거룩한 슬픔으로 예수께서 천사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으며, 장차 그분이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있을 것이요, 영원히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멸하시겠다고 일러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왕국을 주실 것인데 온 하늘 아래 가장 위대한 왕국이 될 것이요, 그분께서 그 왕국을 영원히 소유하실 것이었다. 사단과 죄인들은 멸망당할 것이요, 다시는 하늘이나 정결케 된 새 땅을 방해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예수께서 하늘의 거민들에게 그분의 아버지께서 수락하신 계획을 만족히 여기라고 명령하셨고, 타락한 인간이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높임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에서 함께 즐겁게 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뻐하라고 명하셨다.

그러자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하늘에 가득 찼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거민들이 찬양과 애모(愛慕)의 노래를 불렀다. 저들이 저들의 거문고를 켜며 저들이 전에 불렀던 것보다 더 높은 음조로 노래를 불렀는데, 이는 반역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도록 허락하신 아버지의 큰 자비와 겸손(공홀)하심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자기 부정과 희생에 대한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졌는데 이는 아버지의 품속을 떠나 고통과 고뇌의 삶을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었다.

천사가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고투(투쟁)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셨다고 생각하느냐?” 고 말했다. 아니다, 아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도 “범죄한 인간을 멸망하도록 버려둘 것이냐, 저들을 위해 그분의 아들로 죽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줄 것이냐?” 에 대해 고민하셨다. 천사들도 인간의 구원에 대해 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영광을 포기하고 저들의 생명을 멸망하는 인간을 위해 바치고자 하는 자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나와 동행하는 천사가 “그것은 쓸모없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범죄가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

에 천사의 생명으로 값을 치를 수 없었다. 그분의 아들의 죽음과 중보 외에는 빛을 값을 수 없고, 소망 없는 슬픔과 비애로부터 잃어버린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길이 없었다.

그러나 천사들이 해야 할 일이 정해졌는데, 영광의 보좌를 오르내리면서 강하게 해주는 유향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고통을 당하실 때 고통을 덜어주도록 하고, 그분을 섬기는 일이었다. 또한 저들이 해야 할 일은 은혜의 백성들을 악한 천사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일이고, 사단이 끊임없이 늘어뜨리는 어둠을 몰아내는 일이었다. 나는 하나님이 멸망해가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그분의 율법을 고치거나 바꾸는 일은 불가능한 일임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이 인간의 범죄를 위해 죽도록 하는 고통을 당하셨다.

사단은 다시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가 인간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높은 직임에서 끌어내릴 수 있음에 대해 기뻐하였다.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취하게 된다면 그를 이길 수 있고, 구속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는 사단이 한때 행복하고 높임을 받는 천사였음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그를 보게 되었다. 그는 아직도 왕과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자태는 아직도 고상하였는데 이는 그가 타락한 천사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 불행, 사악함, 증오, 해악, 기만, 그리고 모든 악의 모양이 가득하였다. 한 때 고상하였던 이마를 특별히 주시하여 보았다. 그의 이마는 눈이 있는 부분으로부터 뒤로 뺏어져 있었다. 나는 그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을 했기 때문에 모든 좋은 자질들이 저속하게 되어, 모든 악의 모습이 계발된 것을 보았다. 그의 눈은 교활하고, 음흉하고,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간파하는 것 같았다. 그의 체구는 컸으나 그의 손과 얼굴에 있는 살덩어리는 쭈글쭈글하게 보였다. 내가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그의 턱을 왼손으로 바치고 있었다. 그는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보였는데 그 미소는 나로 떨게 만들었다. 그의 미소 속에 악이 가득하였고, 악마와 같은 교활함이 엿보였다. 이러한 미소는 그의 희생물을 사로잡을 때 보이는 것으로, 희생물을 그의 손아귀에 넣으면서 그의 미소는 더욱 두려운 것으로 변한다.

(이사야 53장 참고)

제4장

그리스도의 초림

그 때 나는 예수께서 인간의 본성을 쓰시고, 자신을 인간으로 낮추시고, 사단의 유혹을 견디시는 때로 인도되었다.

그분의 출생은 세상적으로 주목을 받는 위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말구유에 누우셨지만, 그분의 출생은 그 어떤 인간의 아들들의 출생보다 아주 탁월한 높임을 받았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초림을 알려주었고, 이러한 말을 하는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과 영광이 저들의 증언과 함께 했다. 하늘의 거민들은 저들의 거문고를 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들은 구속사업을 마치기 위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의 죽음이 인간에게 평안과 행복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당당하게 전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초림을 치하하셨다.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분의 침례식에 나타났으며, 성령은 비둘기 모양으로 그에게 임했고, 그분 위에 빛을 비추었고, 사람들이 그 광경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고, 저들의 눈은 그분에게 고정되었고, 하늘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마 3:17 NKJV)고 하셨다.

요한은 요단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그분이 구세주라는 사실에 확신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양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증거로서 하늘에서 온 비둘기가 예수님 위에 머무르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주위에 빛나는 것이었다. 요한은 그의 손을 들어 예수님을 가르키며 큰 소리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지고 가는)하나님의 어린양이라”(요1:29 NKJV)고 외쳤다.

요한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요, 세상의 구주시라고 일러주었다. 그의 사업이 마쳐짐에 따라, 그는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를 찾아 위대하신 선생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라고 가르쳤다. 요한의 생애는 즐거움(쾌락)이 없는 생애였다. 그것은 슬픔의 생애요, 자기 부정의 생애였다. 그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전파했으나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보고 기뻐하도록 용납되지 않았다. 그는 예수님이 선생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는 죽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광야가 아니고서는 그리 자주 들려지지 않았다. 그의 삶은 고독한 삶이었다. 그는 그 아버지의 가족들과 함께 지역 사회에 살면서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그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 저들을 떠났다. 수많은 군중들이 분주한 도시와 촌락을 떠나 놀랍고 독특한 선지자의 말을 듣기 위해 광야로 몰려들었다. 요한은 도끼를 나무의 뿌리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준비하였다.

헤롯은 요한의 능력 있고 예리한 증언을 듣고 감명을 받았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다. 요한은 그가 그의 동생이 살아있는데 동생의 부인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점에 대해 알고 있었다. 그는 솔직하게 그것이 합법적이지 아니라고 말했다. 헤롯은 그 어떤 희생을 치르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동생의 아내와 결혼했고, 그녀의 영향으로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 그러나 헤롯은 그를 다시 놓아주려고 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에 대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다. 그는 그분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고, 저들이 들은 말로 그를 위로했다. 얼마 후에 헤롯의 아내의 영향으로 요한은 목 베임을 당했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위로의 말을 들은 가장 작은 제자들이라 해도 침례 요한보다 위대함을 보았다. 그것은 저들의 삶 속에서 더욱 더 높임을 받았고, 존경을 받았고, 더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요한은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하기 위해 왔다. 나는 마지막 때를 보게 되었는데, 요한은 진노의 날과 예수님의 재림을 선포하기 위해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나가게 될 사람을 대표함을 보았다.

예수께서 요단에서 침례를 받으신 후, 성령에 의해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 광야로 인도되었다. 성령께서 극렬한 유혹의 특별한 장면들을 위해 준비시키셨다. 그분은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며,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으셨다. 예수님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은 유쾌한 것이 아니요, 인간의 본성을 위축되게 하는 것들이었다. 그는 황량하고 외로운 곳에서 야생 동물들과 마귀와 함께 있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금식과 고통으로 인해 창백하고 쇠약해진 것을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이 정해져 있고, 그분이 이루려고 오신 그 일을 성취하셔야만 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이용해서 그를 괴롭히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준비했으며, 그분이 인간처럼 되셨기 때문에 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는 이러한 시험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마4:3 NKJV)”고 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그분의 신적 능력을 행사하므로 증명해 보이라고 유혹했다. 예수께서 온유하게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셨다.

사단은 예수님과 함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에 대해 논쟁을 하고자 했다. 그는 그분의 연약한 점,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형편, 그 자신이 예수님보다 강하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확인하였다. 그러나 하늘에서 발해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라고 하신 음성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기에 충분한 말씀이 되었다. 나는 그분께서 해야 할 사명 가운데 사단에게 그의 능력을 확신시키는 일이나, 그가

세상의 구주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보았고, 사단에게 그분의 탁월한 신분과 권위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복종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사단은 그의 힘을 나타내보이기 위해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다시 시험하기를, 만약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자신이 데려다 놓은 현기증 나는 첩탐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증명해 보라고 유혹했다. 사단은 영감의 말을 가지고 나타났다. “기록되었으되, 그분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어느 때라도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마 4:6 NKJV) 고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으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마 4:7 NKJV) 고 하셨다. 사단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아버지의 자비를 추정하도록 하고, 그의 사명이 마쳐지기 전에 그의 목숨을 버리는 위기에 처하도록 하고자 했다. 그는 구속의 계획이 실패하기를 바랐으나, 구속의 계획은 너무 깊게 계획된 것이어서 사단에 의해 전복당하거나 손상을 입을 수 없음을 나는 보았다.

나는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또는 저들의 권리가 논박당할 때 예수님께서 모본이 되심을 보았다. 그들은 그것을 인내하며 참아야만 한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영예를 받고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들의 원수를 이기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길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다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만약 예수께서 첩탐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다면 그분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될 수 없었을 것임을 보았는데, 이는 사단과 하나님의 천사들 외에 아무도 그것을 목격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악한 원수 앞에서 그분의 능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시험이 될 것이었다. 그것은 정복하기 위해 온 그 자에게 양보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마귀가 그분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 주었다. 그리고 마귀가 그분에게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내가 주겠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마 4:9 NKJV)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기를 “사탄아,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마 4:10 NKJV)고 하셨다.

여기에서 사단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왕국들을 보여주었다. 세상의 왕국들은 가장 매력적인 빛으로 제시되었다. 거기서 예수님이 그에게 경배만 하면 그것을 주겠노라고 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세상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겠노라고 말했다. 사단은 구속의 계획이 이행된다면 그의 능력이 제한을 받고 결국 빼앗기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는 예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죽으신다면 그의 능력이 일정한 기간 후에 끝날 것과 멸망당하게 될 것을 알았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시작한 위대한 계획의 성취를 막아보려고 면

밀하게 연구한 계획이었다.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계획이 실패된다면, 그 당시 그의 것이라고 주장하던 왕국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성공했다라면, 하늘의 하나님과 상반되는 통치를 하고 있음에 대해 우쭐해 했을 것이다.

사단이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고, 그분의 능력과 영광을 떠났을 때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수중에 들어온 것이라고 생각했다. 에덴에 있던 거룩한 부부에게 있어서 유혹이 아주 쉽게 잘 진행되었기 때문에 그의 사단적인 간계함과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이요, 그로 인해 그 자신의 목숨과 왕국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그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떠나도록 유혹하는데 성공했다라면 그의 목적을 이루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그의 뒤로 물러서라고 하셨다. 그분은 오직 그분의 아버지만 경배해야 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을 바침으로 사단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구원해내야 할 때가 와야만 되었으며,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모든 하늘과 땅이 그분에게 복종해야만 했다. 사단은 이 세상 왕국은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수님께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고 속삭였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국을 얻기 위해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 경배했다라면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모든 통치의 영광을 그의 것으로 소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확고하셨다. 그는 고통의 삶, 두려운 죽음, 그의 아버지가 정해 놓은 길을 가기로 선택하시고, 이 땅의 왕국을 계승할 법적 상속권자가 되심으로, 영구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하셨다. 사단 또한 그분의 손에 맡겨져 죽음으로 멀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예수님이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일을 결코 할 수 없을 것이었다.

(신명기 6:16, 8:3, 왕하 17:35-36, 시 91:11-12, 눅 2:-4: 참고)

제5장

그리스도의 봉사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일을 마치고, 한동안 예수님을 떠나갔고, 천사들이 광야에서 그분에게 음식을 마련해 드렸고, 그분에게 힘을 더해주었고, 그분의 아버지의 축복이 그분에게 임했다. 사단은 그의 가장 맹렬한 시험에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봉사 기간, 다른 시간에 그의 간교를 통해 그분을 반격할 것을 고대했다. 그는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분을 미워하고 그분을 죽이도록 하려고 했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과 함께 특별한 회의를 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해 실망하고 분노했다. 그들은 더욱 더 교활해야 된다고 결정했고, 저들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 그 나라 백성들의 마음에 불신을 불어넣음으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분의 사명을 이행하는데 좌절케 하기로 결정했다. 유대인들이 저들이 행하는 제사제도나 희생제사가 아무리 정확하다 해도, 저들의 눈을 예언에 대해 소경이 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예언은 힘 있는 세상적인 왕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게 한다면, 저들의 마음에 그러한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다리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 때 나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리스도께서 봉사하시는 동안 사람들에게 불신과 증오와 멸시하는 마음을 심어주고자 매우 분주하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때때로 예수께서 예리한 진리로 저들의 죄악을 견책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저들은 더욱 분노하였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저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제거하도록 계속해서 강권하였다. 한 때는 예수님께 돌을 던지려고 했으나, 천사들이 그분을 지키셨고, 성난 군중 가운데서 안전한 곳으로 피하도록 하였다. 다시 그분의 거룩한 입술에서 명백(평범)한 진리의 말씀이 발해졌을 때 우리가 그분을 붙잡아 언덕 가파른 곳으로 끌고 가 그분을 밀어 떨어뜨리려고 했다. 천사가 다시 그분을 저들의 눈에서 숨기시고 저들 사이를 통과해서 그분이 가셔야 할 길로 가도록 하였을 때, 저들 사이에 이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툼이 일어났다.

사단은 아직도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 실패될 것으로 바라고 있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사람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악한 감정이 일어나도록 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는 자의 수가 아주 적게 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렇게 적은 수를 위해 고통을 당하고 희생하는 일이 너무나 큰 것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고자 바랬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실 것을 믿는 사람이 두 사람만 있어도, 그분께서 그 계획을 이행하실 것을 보았다.

예수님은 고통당하는 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그분은 그의 악한 세력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셨다. 그분은 병든 자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저는 자를 고쳐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셨다. 그분은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여러 해 동안 사단의 잔인한 세력 아래 불구되고 포로 된 자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다. 약하고, 떠는 자, 좌절에 빠진 자들을 은혜로운 말씀으로 위로하셨다.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저들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남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분은 그분을 믿는 자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리고 사단이 승리의 전리품으로 움켜잡고 있는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건져내시기 위해 그분의 능력으로 사단의 손을 벌려 빼내시고, 몸을 건강하게 하시고, 커다란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자비와 동정과 사랑이 충만한 생애였다. 그분은 언제나 세심하게 들어주시고, 그분에게 오는 자들에게서 고뇌를 덜어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마음속에 그분의 거룩한 능력의 증거들을 안고 있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이루어진 후 얼마 가지 않아 놀라운 힘이 있는 선생이긴 하지만 그분의 보잘 것 없음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통치자들이 그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고통당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요, 불행에 익숙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분의 온전한 자기 부정의 생애가 저들의 생애를 주관하도록 하는 사람은 그 수가 아주 적었다. 저들은 세상이 주는 영예를 즐기기를 원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따랐고, 그분의 가르치심을 들었고, 그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은혜로운 말씀으로 배불림을 받았다. 그분의 말씀은 가장 비천한 자라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평범했으나 깊은 의미로 가득 차 있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분주했다. 저들은 유대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저들의 이해력을 어둡게 하였다. 사단은 그분의 목숨을 취하기 위해 백성들과 통치자들의 우두머리를 동요시켰다. 저들은 군인들을 보내어 예수를 저들에게 잡아오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저들이 그분이 계신 곳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저들은 크게 놀래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비애를 보시면서 동정과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연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사랑과 부드러움으로 격려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또한 권세 있는 음성으로 사단의 세력을 꾸짖고, 그의 세력 아래 있는 노예들을 풀어 자유롭게 가라고 명하는 것을 들었다. 저들은 그분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지혜의 말씀을 들었고, 저들은 넋을 잃고 말았다. 저들은 저들의 손을 그분을 붙잡기 위해 그분에게 댈 수가 없었다. 저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을 붙잡지 못한 채 돌아갔다. 저들은 군인들에게 왜 예수님을 잡아오지 못했는가 하고 물었다. 저들은 저들이 목격한 기적, 저들이 들은 지혜와 사랑과 지식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나이다” 라는 말로 저들의 보고를 마쳤다. 대제사장들은 저들 역시 기만(속임)을 당하였다고 저들을 비난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잡아 오지 않은 것에 대해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제사장의 수뇌들은 통치자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분을 믿는 사람이 있느냐고 비웃는 말투로 물었다. 나는 많은 지도자들과 장로들이 그분을 믿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사단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질책을 더욱 두려워했다.

아직까지 사단의 교활함과 증오는 구속의 계획을 깨뜨리지 못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했던 목적이 성취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며, 그리스도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분의 피를 간절히 요구하도록 부추기도록 하고, 잔인함과 멸시를 그분에게 돌리도록 하기로 했다. 그는 예수께서 그분 자신의 겸손과 온유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와 같은 대우에 대해 분개하기를 바랐다.

사단이 그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동안, 예수께서 그분이 제자들에게 그분이 당해야만 할 고통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씀하고 계셨다.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하고, 삼일 째 되는 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들의 이해력은 우둔한 것처럼 보였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눅 4:29, 요 7:45-48, 8:59 참고)

제6장

변화 산에서

나는 변화 산에서 제자들의 믿음이 크게 강화된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를 주시고자 하셨으며, 그로 인해 쓰러진 슬픔과 실망의 시간에 저들의 확신을 모두 버리지 않도록 하시려고 하셨다. 변화 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예수님께 보내셔서 그분의 고통과 죽음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천사를 택하는 대신에 이 땅에서 시련의 경험을 가진 자들을 택하셨다. 그분을 따르는 추종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분과 함께 있도록 허락하시고, 거룩한 영광으로 빛나는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희고 빛나는 옷을 보고, 두려운 위엄 속에서 말하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5 NKJV)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셨다.

엘리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의 사업은 유쾌한 일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죄를 질책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녔다. 마치 야생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찾는 것 같이 그를 찾아 죽이려고 했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승천시키셨다. 천사들이 그를 영광과 승리의 함성으로 하늘로 데려갔다.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영예를 받은 사람이었다. 그는 그가 살던 이전 시대에 살던 어떤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듯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특권을 누렸다. 그는 아버지를 두르고 있는 밝고 탁월한 영광의 빛을 보도록 허락받은 사람이었다. 모세를 통해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의 속박에서 구원해 내셨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보자였다. 그는 자주 저들과 하나님의 진노 사이에 섰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과 불평과 통탄할만한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진노가 타올랐을 때, 저들을 향한 모세의 사랑이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만약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원하는 대로 가기를 허락한다면 저들을 다 멸하고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다. 모세는 간절한 탄원의 기도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냈다.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맹렬한 화를 돌리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탄원하면서 그렇지 않으시려면 그의 이름을 그분의 책에서 지워달라고 기도했다.

이스라엘이 물을 구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 불평했을 때, 저들은 저들과 저들의 자녀들을 죽이기 위해 끌고 왔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불평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셨다. 모세는 성내면서 반석을 쳐서 그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렸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고함과 불평은 그의 슬픔을 가장 예민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잠시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해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에 대해 망각하였고, 또한 저들의 불평은 모세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 그는 그 자신만을 생각하였고, 그가 얼마나 깊은 오해를 받고 있으며, 저들을 향한 그의 사랑에 대해 저들이 저들의 감사를 얼마나 적게 표현하고 있는가에 대해 생각하였다.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이스라엘 앞에 자신을 높이므로, 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일에서 실패하고 말았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 대해 불쾌하게 여기셨고, 말씀하시기를 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다.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좁은 길로 인도하셔서 저들을 시험하시고, 저들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 저들의 기억 속에 그분이 살아 있게 하고, 그로 인해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셨다.

모세가 산에서 두 돌비를 들고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된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그로 인해 화가 치밀어 올라 돌비를 집어 던져 그것들을 깨어버렸다. 나는 이 때 모세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을 보았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 격노했으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의 본성적인 감정에 굴복했을 때, 하나님께 드렸어야 할 영광을 그 자신이 취했으며, 그로 인해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단은 천사들 앞에서 모세를 비난할 어떤 것을 찾고자 했다. 사단은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 점에 대해 비난하면서 승리한 듯 기뻐했고, 천사들에게 세상을 위한 구세주가 인류를 구하기 위해 오면 그가 그분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세가 이 범죄를 인해 모세는 사단의 권세 곧,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다. 그가 확고하게 서 있었더라면,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었다면, 주께서 그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였을 것이요, 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여 하늘에 갔었을 것이다. 나는 모세가 죽음을 통과하는 것을 보았으나, 미가엘이 내려와 그가 부패되기 전에 생명을 주는 것을 보았다. 마귀는 그(모세)의 몸이 그의 것인 양 주장하였으나 미가엘이 모세를 부활시켜 하늘로 데려갔다. 마귀는 끝까지 그의 몸을 가두어 놓으려고 하나님께 독설을 퍼부으면서 그의 먹이를 빼앗아가는 것은 불공평한 처사라고 했다. 그러나 미가엘은 하나님의 종이 마귀의 유혹과 권세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으나, 마귀를 책망하지 않았다. 그리스도는 그를 온유하게 대하면서 그의 아버지를 소개하면서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고 했다.

예수께서 그분과 함께 서 있는 제자들 중에 더러는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왕국을 보기 전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다. 변화 산에서 이 약속이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용모는 변화되었고, 태양처럼 빛났다. 그의 옷은 희고 빛이 났다. 모세가 나타났는데, 그는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실 때 죽음 가운데서 부활할 자들을 대표한다.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엘리야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불멸의 몸을 입고 승천하게 될 사람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어 하늘로 올라 갈 사람들을 대표한다. 제자들은 두려움과

놀라움으로 예수님의 탁월한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구름이 저들 위에 덮이더니 극도로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 말을 들을지어다”고 했다.

(출 32: , 민20:7-12, 신 34:5, 막 9:, 유9 참고)

제7장

그리스도의 배반당하심

그 때 나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그 당시로 가게 되었다. 사단이 유다를 속여 그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늘 욕신적이었다.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었고, 그분의 봉사 기간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들로 인해 압도되기도 했었으나, 그는 인색하였고 탐욕적이었다. 그는 돈을 사랑하였다. 그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화를 내며 불평을 했다. 마리아는 그의 주님을 사랑하였다. 그분은 그녀의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으며, 그녀의 사랑하는 오빠를 죽음 가운데서 일으켰으므로 그녀는 예수님께 바치기에 너무 귀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꼈다. 향유가 비싸면 비쌀수록, 귀하면 귀할수록 마리아는 그녀의 구세주에게 그것을 드림으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를 더욱 잘 표현하는 것이 될 것이었다. 유다는 그의 탐심을 변명이라도 하듯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가 아니었는데 이는 그가 이기적이어서 때때로 가난한 자에게 주도록 그에게 맡겨진 돈의 일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였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예수님의 편이나 필요를 생각하지 않았고, 그 자신의 탐심을 변명하기 위해 자주 가난한 자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러한 너그러운 행동은 그의 탐심에 대한 가장 예리한 견책이 되었다.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일만한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했으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자 모여 들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제사장들의 수뇌들과 장로들의 주목의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며, 동요되고 있고, 예수를 갈망하며 따르고 있고, 이 놀라운 선생의 말을 경청하기 때문이었다. 많은 제사장의 수뇌들도 예수님을 믿었으나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워서 그러한 사실을 공언하지 못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님께에서 돌리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까봐 두려워했다. 저들 자신들의 안전을 예측할 수 없었다. 저들의 직분을 잃든지 아니면 예수를 죽이든지 해야 했다. 그리고 그분을 죽음에 처한다 해도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 있는 증인이 있을 것이었다.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리고 저들이 만약 예수를 죽인다면 나사로가 그분의 힘 있는 능력을 증거 할 것에 대해 두려워했다.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일어난 나사로를 보기 위해 몰려 올 것이었으므로, 지도자들은 나사로 역시 죽이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흥분을 잠잠케 할 것이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로 저들의 전통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되돌아가도록 할 수 있을 것이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대한 심일조에 관심을 쓰게 할 것이요, 저들 위에 다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저들은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붙잡기로 동의했는데 이는 만약 저들이 군중 가운데 그분을 잡으려 할

것 같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분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돌을 던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저들이 예수님을 붙잡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므로 은 몇 닢을 받고 예수님을 제사장의 수뇌들과 장로들에게 넘겨주기로 제안을 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의 주님을 가장 사악한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므로 배반하기로 했다. 사단은 유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했다. 그리고 의미심장한 마지막 만찬에서 그는 예수님을 배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슬픔 가운데 그의 제자들에게 저들 모두가 그날 밤에 예수님 때문에 모두 실족(배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실족할지라도 그 자신만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을 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으니,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셨다.

그 때 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그분은 저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다. 예수님은 저들의 믿음이 시험을 당해야 할 것과 저들의 희망이 절망으로 변할 것을 아셨고, 저들이 깨어서 기도하므로 저들의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아셨다. 큰 울부짖음으로 울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마 26:39 NKJV)라고 기도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다. 커다란 땀방울이 마치 피처럼 그의 얼굴에 흘러 내렸고, 땅에도 떨어졌다. 천사들은 그 광경을 배회하며 지켜보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천사만 고뇌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저들의 면류관과 저들의 손에 있는 거문고를 집어 던지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용히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에는 기쁨이 없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감싸고자 원했으나 지휘하는 천사가 그렇게 하도록 용납하지 않았다. 저들이 그분을 배반하는 것을 보고 그분을 구원하기 위해 달려 갈까봐 제지하였는데 이는 (구속의) 계획이 세워졌고, 그 계획은 성취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 제자들을 보기 위해 오셨다. 저들은 자고 있었다. 두려운 시간에 심지어 그분의 제자들에서마저도 위로나 기도도 받지 못했다. 바로 조금 전에 그토록 열성적이었던 베드로마저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예수님은 그의 적극적인 단언을 상기시키면서 그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마 26:40 NKJV)고 하셨다. 유다가 그의 사람들과 함께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은 세 번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다. 그는 예수님을 보통 때 인사하는 것처럼 인사하고 만났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를 감쌌다. 그러나 그분께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셨다. “내가 그니라.” 저들은 땅에 엎드렸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심으로 그분의 능력을 증거 해 보이려고 하셨고, 그분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저들의 손에서 자신을 구출해 낼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신 것이다.

제자들은 그토록 신속하게 군중들의 막대기와 검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무엇인가 바라기 시작했다. 저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감쌌다. 베드로는 검을 꺼내어 귀 한쪽을 쳐 내렸다. 예수님께서서 검을 다시 꽂으라 하시고, "너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청하여 나에게 열 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즉시 보내 달라고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마 26:53 NKJV)고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자 천사들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보았다. 그 때 저들은 저들의 사령관을 감싸고 성난 폭도들을 쫓아버리고 싶었다. 예수께서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같이 되리라고 한 성경을 어떻게 이를 수 있겠느냐?"(마 25:54 NKJV)라는 말씀을 하시자 슬픔이 저들 위에 다시 임하였다. 제자들의 마음은 예수께서 저들로 그분을 끌고 가도록 용납하시는 것을 보면서 다시 절망과 무서운 실망에 빠지게 되었다.

제자들은 저들 자신의 목숨이 두려워 한 사람은 이 길로, 또 다른 사람은 저 길로 도망갔고, 예수님만 홀로 남으셨다. 아- 사단이 어떠한 승리를 얻었던가!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에게 얼마나 큰 슬픔과 근심이 있었겠는가! 거룩한 천사의 무리들이 저들을 지휘하는 키가 큰 천사와 함께 이 광경을 보도록 보냄을 받았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는 모든 행동, 모든 모욕적인 말, 잔인한 행동들을 기록해야 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 견뎌야 하는 모든 고뇌와 아픔을 기록해야 했다. 이는 바로 그 사람들이 살아서 그것을 다시 봐야만 하기 때문이었다.

(마 26:1-56, 막 14:1-52, 눅 22:1-46, 요 11: , 12:1-12, 18:1-12 참고)

제8장

그리스도께서 심문 당하심

천사들은 하늘을 떠나면서 슬피하며 저들의 빛나는 면류관을 벗었다. 저들의 사령관이 고통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할 관국에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 없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심판정에서 인간성과 동정심을 없애버리기 위해 분주했다. 저들의 이러한 영향으로 심판정의 분위기는 음산했고 오염되어 있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수녀들은 이러한 영향을 받아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으로 가장 견디기 힘든 방법으로 예수님을 학대하고 모욕하도록 부추겼다. 사단은 이러한 모욕과 고통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평하고 수군거리도록 하거나, 또는 그분의 거룩한 신성의 능력을 활용하게 하여 군중들의 손아귀에서 그 자신을 구원해 내도록 하여 결국 구속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하고자 소망하였다.

베드로는 그분을 배반한 후에 그의 주님을 따라갔다. 그는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보고자 갈망했다. 그리고 그가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을 때 그는 그 사실을 부인했다. 그는 그 자신의 목숨을 염려했고, 그 가운데 하나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제자들은 저들의 말이 순수했기 때문에 이내 알아 볼 수 있었다. 베드로는 속이고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 세 번째에는 저주하며 악담을 하면서 부인했다. 예수님은 베드로부터 좀 떨어져 있었는데 슬픈 견책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셨다. 그 때 그는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과, 그가 열의를 다해 단언했던 말을 기억하게 되었다.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마 26: 35 NKJV). 그는 그의 주님을 저주와 맹세를 하면서 부인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한번의 눈길은 그의 마음을 녹였고, 그를 구원하였다. 그는 통렬히 울며 그의 커다란 죄를 회개하고 뉘우쳤으며, 그 때 그의 형제들을 굳게 할 준비를 갖추게 되었다.

무리들은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는데 강경하였다. 저들은 잔인하게 그분을 때렸고, 낡은 자숫빛으로 된 왕의 옷을 그분에게 입히고, 그분의 거룩한 이마에 가시로 만든 면류관으로 동였다. 그분의 손에 갈대를 쥐어 주고, 조롱하는 태도로 그 앞에 엎드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하면서 인사하였다. 그리고 난 후 그분의 손에서 갈대를 빼앗아 그것으로 머리를 치므로 가시 면류관이 그분의 관자놀이를 찢러 떨어지는 피 방울이 그분의 얼굴과 턱수염으로 흘러내리도록 하였다.

천사들이 그 광경을 보며 견디기가 힘들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저들의 손에서 구출하고자 바랬으나, 지휘하는 천사가 금하면서, 그것은 사람을 위해 그분께서 치러야 할 큰 속전이지만 곧 완성될 것이요, 사망의 권세를 멸하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했다. 예수님은 천사들이 그분께서 굴욕 받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나는 가장 연약한 천사라

도 무리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구원할 수도 있음을 보았다. 그분은 만약 그가 아버지께 구하기만 하면 천사들이 즉시 와서 그분을 구할 수 있음을 아셨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구속의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악한 사람들이 주는 많은 고통을 견뎌내야 함을 아셨다.

예수님은 가장 심술궂은 학대를 하는 성난 무리들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서 계셨다. 언젠가 그분의 얼굴에서 피하여 숨고자할 얼굴, 하나님의 도성을 빛으로 환하게 비추일 그 얼굴,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날 그분의 얼굴에 저들은 침을 뱉었다. 그러나 저들을 성난 눈빛으로 보지 않으셨다. 그분은 온유하게 그분의 손을 들어 침을 닦아냈다. 저들은 낡은 형겔으로 그분의 머리를 가리고, 눈을 가린 후, 그분의 얼굴을 치며 소리 지르기를 누가 당신을 때렸는지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하였다. 천사들 사이에 소요가 일고 있었다. 즉시 그분을 구출해 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휘하는 천사가 그 일을 금했다.

제자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 그분의 심문 과정을 지켜보고자 했다. 저들은 그분께서 그분의 거룩한 능력을 발휘하여 그분의 원수들의 손에서 그분 자신을 구하고, 그분에게 잔인하게 대하는 자들을 형벌하시기를 기대했다. 각기 다른 광경들이 지나치면서 저들의 바람은 오르락내리락 했다. 어떤 때는 의심을 했고, 저들이 속은 것 아닌가 하여 두려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변화 산에서 저들이 들은 음성, 저들이 목격한 영광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을 굳게 해주었다. 저들은 저들이 목격했던 광경들을 회상하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병자를 치료하시면서 베푸는 기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일,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신 일, 마귀를 꾸짖어 내쫓으신 일,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심지어 바람을 꾸짖어 잠잠케 하셨던 일들을 회상했다. 저들은 그런 분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은 믿을 수 없었다. 저들은 아직도 그분께서 능력으로 일어서실 것이라고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드는 사람들을 명하여 몰아내셨던 것처럼 피에 굶주린 무리들을 흠어버리시기를 바랐다. 저들이 그분 앞에서 도망칠 때 마치 무장한 군인들이 저들을 몰아내는 것과도 같았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을 확신시키기를 원했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반한 위험스러운 행동에 대한 후회와 수치로 가득 찼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학대를 견디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압도당하고 말았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었으나 돈을 더 사랑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가 인도한 폭도들에 의해 그토록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저들에게서 그분 자신을 구출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가 심판 정에서 성난 무리들이 그분의 피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깊은 죄책감을 느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있을 때, 유다는 무리들 사이를 헤집고 나가면서, 무죄한 피를 팔면서 죄를 범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놓아 줄 것을 간청하며, 그는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였다. 괴로움과 혼란은 잠시 제사장들을 잠잠하게 했다. 저

들은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공언하던 제자를 고용해서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다. 저들이 예수를 붙잡은 것은 마치 도적을 잡는 것같이 은밀하게 붙잡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감춰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유다의 고백과 그의 초췌하고 죄책감에 쌓인 모습은 제사장들이 예수를 잡은 것은 증오심이었다는 것을 무리들 앞에 공개하는 것이 되었다. 유다가 큰 소리로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선언하자, 제사장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담당하라”고 대답했다. 저들은 예수님을 저들의 권세 아래 두고 있었고, 저들은 그분에 대해 확실히 할(죽일) 것을 결심했다. 유다는 고뇌로 압도되었고, 이제 그를 고용했던 자들의 발 앞에서 멸시를 받는 가운데 그 돈을 내던졌다. 그리고 그가 범한 죄에 대한 고뇌와 두려움으로 스스로 그의 목을 달고 말았다.

그곳에 있던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동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질문에 대해 아무런 대답을 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 이상히 여겼다. 그 모든 멸시와 조롱에도 눈살을 찌푸리거나 근심하는 표정을 하지 않으셨다. 그는 위엄이 있으셨고 침착하셨다. 그는 완전하셨고 고상하셨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 의아해하고 있었다. 저들은 그분의 완전한 모습과 확고부동한 자세와 위엄 있는 자태와 그분을 대항하기 위해 심판대에 앉아 있는 자들과 비교하면서, 서로서로 이야기하기를 그 어떤 통치자보다도 왕국을 물려받을 왕처럼 보인다고 수군거렸다. 범죄자라는 흔적이 보이지 않았다. 그분의 눈은 온유하고 분명하고 겁에 질려 있지 않았고, 그분의 이마는 넓고 높았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태는 자비와 고상한 원칙을 강력하게 나타내었다. 그분의 인내하심과 오래 참으심은 그 어떤 사람과도 같지 않았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떨게 하였다. 헤롯과 빌라도까지도 그분의 고상하심, 하나님과 같은 모습에 대해 크게 떨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그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그분이야말로 전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천사들은 빌라도가 가진 확신을 목격하였으며, 예수님에 대한 동정과 연민을 표시하면서 예수님을 두려운 십자가에 다는 것으로부터 구출하려고 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천사를 빌라도의 아내에게 보내어 꿈을 통해서 빌라도가 심문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고통을 받아야 할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즉시 빌라도에게 기별을 보내어 예수님으로 인해 꿈속에서 많은 고통을 당했노라고 하면서, 거룩한 분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기별을 전하는 자는 군중을 뚫고 급하게 나아가 빌라도의 손에 그것을 전달했다. 그가 그 기별을 읽으면서 떨었고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되었다. 즉시로 그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만약 저들이 예수님의 피를 요구할 경우 그런 일을 하도록 하지 않을 것이며, 그분을 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빌라도가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기뻐하였으며, 내키지 않는 이번 사건에서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서 해방되기를 바랐다. 그는 그분을 고소하는 자들과 함께 그에게 보냈다. 헤롯은 강박한 사람이었다. 요한은 살해한 사건이 그의 양심을 괴롭

했는데 그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었다.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죽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는 양심의 가책 때문에 두려워했고 떨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헤롯의 손으로 넘겨졌다. 헤롯은 이러한 행동은 빌라도가 자신의 권세와 위엄과 심판권에 대해 인정하는 것이라고 여겼다. 전에는 저들이 원수지간이었으나 이번 계기를 통해서 친구가 되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기뻐했는데, 이는 그를 만족시켜줄만한 어떤 기적을 베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일은 그의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일이 아니었다. 그분의 거룩하고 기적적인 능력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행사될 것이지 자신을 구출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었다.

예수님은 헤롯이 물어오는 많은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또한 그의 원수들이 맹렬하게 하는 비난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헤롯은 예수님이 그 자신의 권세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분노하여 군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을 조소하고 조롱하며 학대했다. 헤롯은 그토록 수치스럽게 학대를 했으나 고상하고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놀라서 그분을 정죄한다는 것에 대해 두려워한 나머지 다시 빌라도에게 그분을 보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빌라도를 유혹하여,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자 하였다. 저들은 만약 빌라도가 예수를 정죄하는 일에 어떤 부분을 가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할 것이요, 무리들이 그분의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만약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지 않으면 그의 권세와 세상적 명예를 잃을 것이요, 또한 저들이 주장하는 사기꾼을 믿는 자라고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빌라도는 그의 권세와 권위를 잃을까봐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의했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피를 그를 고소하는 자들에게 돌리기는 하였으나, 또한 무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라고 했으나, 빌라도가 무죄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죄가 있었다. 이는 그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무죄한 사람을 죽도록 넘겨주었다. 만약 빌라도가 그 마음의 확신을 따랐더라면, 예수를 정죄하는 일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심문과 정죄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했고, 그분의 부활 후에 나타나게 될 인상들이 새겨졌으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담되게 될 것이었는데, 저들의 체험과 확신은 예수님이 심문 당하시는 날 가진 것이 될 것이었다.

사단이 제사장의 수뇌들을 통해서 예수님께 잔인하게 대하도록 하였으나 작은 불평도 끄집어 내지 못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극도로 화를 내었다. 나는 예수님께서서 인간의 본성을 취하셨으나, 하나님과 같은 능력과 불굴의 정신이 그를 건디게 했으며, 조금도 아버지의 뜻을 떠나지 않았음을 보았다.

(마 26:57-75, 27:1-31, 막 14:53-72, 15:1-20, 눅 22:47-71, 23:1-25, 요 18:, 19:1-16 참고)

제9장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

하나님의 아들은 못 박히도록 사람들에게 넘겨졌다. 저들은 사랑하는 구주를 끌고 갔다. 그분은 채찍에 맞고 주먹으로 얻어맞은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약해지셨으나 곧 못 박히게 될 무거운 십자가를 그분 위에 올려놓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짐에 눌러 실신하셨다. 저들이 세 번이나 무거운 십자가를 그분 위에 올려놓았고, 세 번 실신하셨다. 그러자 저들은 그분의 추종자 가운데 한 사람을 붙잡았는데, 그는 아직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다고 공언한 사람은 아니었다. 저들은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고, 그는 치명적인 장소까지 메고 갔다. 천사의 무리들은 그 장소의 공중에 집합되어 있었다. 상당수의 그분의 제자들이 슬피하면서 비통의 눈물을 흘리며 갈바리까지 그분을 따라갔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던 관경,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호산나라고 하며, 저들의 옷을 벗어 길에 깔고, 아름다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광경을 생각했다. 저들은 그 때 그분께서 왕국을 물려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실 것으로 생각했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다르게 바뀌었는가! 저들의 장래가 얼마나 어두웠던가!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긴 가되, 기쁨도 아니요, 희망으로 가슴이 뛰는 그런 기분도 아니요, 두려움과 실망으로 좌절된 찢어진 슬픈 마음으로 천천히, 수치를 당하시고 비천하게 되셔서 곧 죽으셔야 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그녀의 마음은 고뇌로 인해 찢어진 마음, 다정한 어머니가 아니고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다. 그녀의 상한 마음은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그녀의 아들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분을 죽이려는 자들의 손에서 구출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녀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당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도무지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준비는 마치어졌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눕혔다. 망치와 못을 가져왔다. 제자들의 마음은 그것을 보는 순간 숨이 멈출 것 같았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벌려놓고 나무에 잔인한 못으로 손을 고정하려고 할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신음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그 광경에서 멀리 옮기셨는데 이는 저들이 그분의 부드러운 손과 발의 근육과 뼈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내려치는 망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으나 고뇌 가운데 신음하셨다. 그의 얼굴을 창백해졌고, 커다란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 맺혀 있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는 고통을 인해 기뻐하였지만, 그의 왕국이 잃어버린바 되었고, 그가 죽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 두려워했다.

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십자가를 들어 세워 큰 힘을 가해 파놓은 구덩이에 내려쳤다. 그로 인해 그의 육체는 찢어졌고 가장 심한 고통을 느끼셨다. 저들은 그분의 죽음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수치스럽게 하였다. 그분과 함께 두 강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 좌우에 못 박았다. 강도들을 강제로 붙잡았는데, 저들이 상당한 반항을 했기 때문에

저들의 손을 뒤틀어 저들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용하게 복종하셨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아무도 강제할 필요가 없었다. 강도들이 저들을 죽이는 자들을 저주하는 동안 예수님은 고통 가운데 그분의 원수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주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하셨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뇌는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죄가 그분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어떤 사람들이 그 밑을 지나면서 욕하며, 저들의 머리를 흔들고, 왕에게 인사하듯 절하며, 그분에게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 한 자여, 당신 자신을 구원하라고 말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다. 마귀가 광야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동일한 말을 예수님께 했었다. 제사장의 수뇌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조롱하며 “그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하지 못한다”고 했다. “그가 만약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도록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고 했다. 그리스도가 못 박히는 광경을 지켜보던 천사들은 통치자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 자신을 구하도록 하라”는 말로 그분을 조롱하는 소리에 분노하였다. 저들은 즉시 예수님을 구출하여 모시고 가고자 했으나, 그렇게 하도록 용납되지 않았다. 그분이 이루셔야 할 사명이 거의 이루어질 순간이었다. 예수께서 그 두려운 고뇌의 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에도 그분은 그분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다. 그녀는 고통 받는 광경에서 멀리 떠나 있을 수 없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가르침은 동정과 자애(慈愛)이었다. 슬픔으로 찢겨져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고 다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 보았다. 그분은 그분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라고 했고, 그 후 요한에게 “네 어머니를 보라!”고 하셨다. 그 시간 이후 요한이 그녀를 그의 집에 모셨다.

예수님은 고뇌 가운데 목이 마르셨다. 그러나 저들은 식초와 쓸개즙을 주어 마시게 하므로 더욱 모욕하였다. 천사들은 저들의 사랑하시던 사령관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두려운 광경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때까지 지켜보다가 그 광경을 보지 않기 위해 저들의 머리를 돌렸다. 태양도 그 두려운 광경을 지켜보기를 거절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는데, 그분을 죽인 살인자들의 마음을 공포로 가득 차게 하였다. 그러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들이 깨어졌다. 커다란 암흑이 땅위를 덮었다. 예수께서 운명하시자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다. 그분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고뇌와 죽으시는 광경을 지켜보았고, 저들의 슬픔의 잔은 가득 차고 말았다.

사단은 전처럼 기뻐하지 않았다. 그는 그분께서 구속의 계획을 깨뜨리기를 바랐었다. 그러나 그 계획은 너무나 깊이 놓여진 것이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그 자신이 결국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의 왕국은 예수님께 넘어갈 것을 알았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불러 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항해서 이긴 것이라고 아무것도 없었다. 이제 저들은 저들의 노력을 증가시켜 저들의 간계와 능력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뒤엎어야 할 것이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수단을 다 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값을 치러 놓은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다. 그렇게 하므로 사단은 아직도 하나님의 정부를 반역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이었다. 또한 그렇게 하므로 예수님께서 취하실 수 있는 모든 것 가운데 자기가 챙길 수 있는 몫을 챙기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되고 이긴 모든 죄들은 결국 죄의 창시자 마귀가 저들의 죄를 책임지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죄에 대해서는 저들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생애는 세상적으로 내 보일 수 있는 장엄하거나 사치스러운 생애는 아니었다. 그분의 겸손하고 자기 부정의 생애는 안락과 세상적 영예를 사랑하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생애와는 크게 대조되는 생애였고, 예수님의 엄격하고 거룩한 생애는 끊임없이 저들의 죄를 질책하는 것이었다. 저들은 그분의 겸손과 순결하심을 경멸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그분을 경멸한 사람들이 언젠가 하늘의 위엄과 다함이 없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심판정에서 그분의 피를 요구하기에 갈급해하는 무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라고 외치던 마음이 강박한 무리들이 존귀한 왕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한 때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장엄하고 당당하게 호위하실 것이다. 가련하고,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 폭도들이 그분을 굴욕적인 말로 모욕을 하며 잔인한 승리를 외치면서, 영광의 왕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온 하늘을 찬사로 가득하게 했던 그분의 얼굴을 치고 잔인하게 학대하여 상처를 입혔었다. 저들은 정오의 태양처럼 밝은 그분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이요, 그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자 할 것이다. 짐승과 같은 잔인한 승리의 함성을 울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두려워서 신음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처를 보여주시실 것이다. 잔인한 이 상처는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이다. 모든 못 자국은 인간을 위한 놀라운 구속과 그것을 이루기 위해 치룬 엄청난 값을 말해 줄 것이다.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바로 그 사람이 창 자국을 볼 것이요, 그분의 몸에 생긴 상처를 보고 저들이 그러한 상처를 낸 것에 대해 깊은 고뇌 가운데 심히 통곡하며 슬퍼할 것이다. 그분을 죽인 살인자들은 그분의 머리 위,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새겨 놓은 것에 대해 매우 싫어했었다. 그러나 저들은 모든 영광과 왕의 권세로 임하는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저들은 그분의 옷자락과 넓적다리에 살아있는 글씨로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새겨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리하면 보고 믿겠노라”고 조롱하며 소리 질렀었다. 이제 저들은 왕의 권세와 권위로 임하는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저들은 그분이 왕이라는 증거를 보이라고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위엄과 탁월한 영광으로 인해 압도되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을지어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깨어지며, 어둠이 지상에 덮이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큰 소리를 외치신 후 예수님께서 운명하시자 원수들과 그분을 죽인 살인자들은 두려워하고 떨었다. 제자들은 이러한 이상한 사건을 의아해 하였다. 그러나 저들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나있었다. 저희들은 유대인들이 저들 역시 잡아 죽일까봐 저들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아들을 그토록 증오한 증오가 거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제자들은 저들이 당한 실망에 대해 외로운 시간을 보내며 슬퍼하며 울고 있었다. 그분께서 왕으로 치리하리라는 기대는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함께 사라져버렸다. 저들의 슬픔과 실망 속에서 예수님이 저들을 속인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그분의 어머니도 겸허하게 되어 그분이 메시아였음에 대한 그녀의 믿음이 흔들렸다.

예수님에 대한 희망이 실망으로 끝나버렸지만 제자들은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의 몸을 높이 평가하고 영예롭게 생각했으나 시신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몰랐다. 공회 의원이요 고상한 신망을 받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그가 은밀하게 하지만 용기 있게 빌라도에게 가서 그분의 시신을 달라고 간청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증오심이 커서 제자들이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존경 받는 장소, 설만한 장소에 모시는 것까지 방해할까봐 그렇게 했다. 그러나 빌라도가 그의 간청을 허락해 주어 저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리면서 저들의 슬픔은 다시 재현되었고, 꺼져버린 저들의 희망 때문에 깊은 고뇌 속에서 슬퍼하였다. 저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요셉이 그가 새로 파놓은 무덤에 장사하였다.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겸손하게 그분을 가깝게 따르고 그분이 죽은 후에도 그분 곁을 지키고 있던 여인들이 그분의 거룩한 시신이 무덤에 안치될 때까지, 그분의 원수들이 그분의 시신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큰 무게가 나가는 돌로 무덤 문을 막을 때까지, 그분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저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이는 내가 보니 천사들이 말할 수 없는 깊은 관심으로 예수님이 쉬고 계신 곳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들은 무덤을 지키며, 사령관께서 감옥에 계신 영광의 왕을 해방시키는 일에 있어서 저들이 해야 할 부분을 감당하기 위해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스도를 죽인 살인자들은 살아서 도망가지나 않을까 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저들은 빌라도에게 군사를 보내어 삼일 동안 무덤을 지켜줄 것을 간청했다. 빌라도는 저들의 간청을 들어주고, 무장한 군인들로 무덤을 지키도록 했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의 시신을 훔쳐가고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하지 못하도록 인을 쳐서 돌문을 봉하였다.

(마 21:1-11, 27:32-66, 막 15:21-47, 눅 23:26-56, 요 19:17-42, 계 19:11-16 참고)

제10장

그리스도의 부활

영광의 왕이신 예수께서 무덤 속에서 쉬고 계신 동안 제자들은 저들의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슬퍼하면서 안식일을 보냈다. 그 날 밤은 서서히 지나갔고, 아직 어두운 시간에 무덤 위에 정렬하고 있는 천사들은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저들의 사랑하는 사령관이 해방될 시간이 거의 가까이 이른 줄을 알았다. 저들이 그분이 승리하는 시간을 마음 조이며 기다리는 동안 하늘에서 힘센 천사가 신속히 날라 왔다. 그의 얼굴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하얀 눈과 같았다. 그의 빛은 그가 오는 길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의기양양하게 저희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던 악한 천사들은 그 천사의 밝은 빛과 영광을 인해 두려워 도망쳤다. 예수님이 굴욕을 당하시던 광경을 지켜보며 예수님이 쉬고 계시던 무덤을 지키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함께 무덤으로 내려왔다. 저들이 무덤에 가까이 이르자 땅이 흔들리고 떨어졌고, 커다란 지진이 있었다. 강하고 힘센 천사가 돌을 신속하게 굴러 무덤 문에서 치우고, 그 돌 위에 앉았다.

두려운 공포가 지키는 파수병을 감쌌다. 예수의 몸을 지키던 저들의 권세가 이제 어디 있느냐? 저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 갈까봐 지켜야 하는 저들의 의무를 생각하지 않았다. 저들은 태양보다도 더 밝은 천사들의 빛 때문에 의아해 하고 놀라고 있었다. 로마 병사들은 천사를 보고 죽은 사람처럼 땅에 엎드렸다. 한 천사가 승리한 듯 무덤에서 돌을 굴러내고 분명하고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시나이다! 나오소서!” 라고 외쳤다.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었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를 거두고 일어나시자, 다른 천사가 무덤 속으로 들어가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을 풀러드렸고, 예수님은 승리의 정복자로 걸어 나오셨다. 두려운 엄숙함 속에서 천사의 무리들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무덤 속에서 위엄을 가지고 걸어 나오실 때 빛나는 천사들은 땅에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하였고, 바로 그때 “사망이 거룩한 포로를 더 이상 가두지 못하네” 라고 하는 승리와 개선의 함성을 울리며 그분께 찬양을 돌렸다. 이제 사단이 승리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천사들은 하늘의 천사들이 비치는 꿩눈의 것과 같은 빛 앞에서 도망쳤다. 저들은 저들의 왕에게 심한 불평을 털어놓으며, 저들의 전리품을 강압에 의해 빼앗아갔다고 하며, 저들이 그토록 미워했던 그가 죽음에서 부활했다고 말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잠시 타락한 인류가 저들의 주님을 죽음에 처하게 하고 무덤 속에 가둘 수 있는 저들의 세력에 대해 승리의 함성을 울리며 즐거워했었다. 그러나 소름끼치는 승리는 잠깐 뿐이었다. 예수께서 그분을 가두었던 감옥에서 위엄 있게 정복자로 걸어 나오자, 사단은 잠시잠깐 후에 그가 죽어야 하며, 그의 왕국이 원래 주인이신 그분에게 전가될 것을 알았다. 그는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모든 힘을 다해 싸워봤으나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고, 인류를 위한 구속의 길을 열어 놓았고, 누구든지 그분 안에서 걸으면 구원을 받을 있는 길을 마련하게 한 것에 대해 분노하고 화를 냈다.

잠시 사단은 슬퍼하는 듯 보였고, 실망감을 보였다. 그는 그의 천사들과 함께 다음으로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고 의논했다. 사단이 “너희는 속히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수녀들을 재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저들을 속이고 저들의 눈을 멀게 하여 예수님에 대한 저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다. 우리는 그를 사기꾼으로 믿게 하였다.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고 하는 듣기 싫은 소식을 전할 것이다. 우리는 제사장들과 장로들로 예수를 증오하게 하고 그를 죽이게 했다. 이제 분명한 빛에 의해 살펴 볼 때, 저들이 그를 죽인 살인자들이요, 만약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죄한 자를 죽였다고 해서 돌로 저들을 쳐 죽일 것이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다.

나는 천사의 무리들이 하늘로 돌아가고 빛과 영광이 사라지자 로마 군인들이 저들이 안전한가 하고 돌아보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커다란 돌이 무덤에서 굴러졌고, 예수께서 살아나신 것에 대해 놀랐다. 저들은 급히 제사장과 장로들이 수녀들에게 가서 저들이 목격한 신비한 일에 대해 보고했다. 살인자들인 저들이 놀라운 보고를 듣자 저들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다. 저들이 한 일에 대해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리고 만약 그 보고가 사실이라면, 저들은 잃어버린 자들(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잠시 저들은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서로 쳐다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며 무슨 말을 할지를 몰라 침묵만 지켰다. 저들은 스스로가 저들 자신을 정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도무지 믿기지 않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저들은 사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하기 위해 한쪽으로 모였다. 저들은 만약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놀라운 영광의 빛에 관한 소식과, 그 빛 때문에 병사들이 죽은 사람들처럼 되었다는 소식을 전과되어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저들이 분노하여 분명 저희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였다. 저들은 병사들에게 돈을 주어 그 사실을 비밀로 하도록 하기로 결정했다. 저들은 많은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저들이 자는 동안 돌을 굴리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 갔다고 말하라고 했다. 병사들이 저들이 초소에서 잠을 잤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관계자들을 설득하여 구출해 주겠다고 말했다. 돈 때문에 로마 병사들은 저들의 명예를 팔았고,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권고를 따르기로 동의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치셨을 때 바위가 깨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무덤 문이 흔들려 열렸다. 예수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시고, 사망과 무덤을 정복하셨고, 승리한 정복자로서 그분을 가두었던 감옥 문에서 걸어 나오실 때, 땅이 흔들거리며 진동하였고, 하늘의 탁월한 영광의 빛이 거룩한 곳을 비추었으며,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 많은 의로운 사람들이 그분께서 살아나신 것을 목격하기 위해 부활하였다. 은총을 입고 부활한 성도들은 영화롭게 되어 나왔다. 저들은 택함을 받은 소수의 거룩한 무리들로, 창세 이래 그리스도 당시까지 매 시대마다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수녀

들과 바리세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을 선택해 불러 내사 예수님의 부활과 그분의 영광을 선포하도록 하셨다.

부활한 사람들은 키와 모습이 다 달랐다. 나는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퇴보되어 저들의 힘과 모습(미모)이 변했다는 말을 들었다. 사단이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매 시대마다 그러한 저주가 더욱 현저하였으며 사단의 권세가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 부활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 용모에 비해 더욱 고상해 보였다. 노아와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모습과 미모와 힘에 있어서 천사와 같았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매 시대마다 점점 쇠약해져 질병에 더욱 잘 걸리게 되었고, 저들의 수명 역시 점점 짧아졌다. 사단은 어떻게 하면 인류를 귀찮게 하고 인류를 연약하게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예수님 부활 후에 일어난 거룩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인류를 위한 희생이 마쳐졌으며, 유대인들이 못 박은 예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 말하였고, 추가해서 우리들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노라고 말했다. 저들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에 의해 무덤에서 나오라는 명령을 받았노라고 증언했다. 거짓 보고가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나 그의 천사들 또는 제사장의 수뇌들에 의해 은폐하려 했던 사건이 은폐될 수 없었는데 이는 무덤에서 나온 이 거룩한 무리들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예수님 자신이 슬퍼서 마음이 상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나타나 저들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 주셨다.

이러한 소식이 도시에서 도시로, 촌락에서 촌락으로 퍼지자 유대인들은 저들의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고, 제자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증오심을 감추었다. 저들이 바랐던 유일한 소망은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이 사실이기를 바랐던 사람들은 그대로 믿었다. 빌라도는 떨고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분과 함께 부활했다는 강력한 증거를 믿었고, 그의 마음속에서 평안이 영원히 사라졌다. 그는 세상적인 명예와 그의 자리를 잃을까봐, 그리고 그의 목숨을 잃을까봐 예수님을 죽도록 넘겨주었다. 그는 이제 그분의 피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분은 단지 보통 사람, 그저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였다는 것을 참으로 확신했다. 빌라도의 삶은 처절한 것이었고, 처절한 삶이 빌라도의 끝이 되었다. 절망과 피로움이 모든 희망과 즐거운 느낌을 깨뜨려버렸다. 그는 위로 받기를 거절하고 가장 비참하게 죽었다.

헤롯의 마음은 지금도 강박하여졌고,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 당황하지 않았다. 그는 야고보의 생명을 취했고, 그 일로 유대인들을 기쁘게 했다는 것을 알았으며, 베드로 역시 죽이려고 붙잡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그를 구출해 내셨다. 헤롯은 그의 받을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높이고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심으로 두려운 죽음을 당했다.

이른 아침, 아직 날이 밝기 전에 거룩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유를 가지고 무덤에 왔다. 그런데 보라. 무거운 돌이 무덤 문에서 굴러졌고, 예수님의 몸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저들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고, 저들의 원수가 시신을 어디로 가져가지나 않았을까 하고 두려워했다. 그런데 보라,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저들 곁에서 있었다. 저들의 얼굴은 밝고 환하게 빛을 내었다. 저들은 거룩한 여인들이 온 목적을 이해하고, 즉시 저들에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고 말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이 누웠던 곳을 볼 수 있었다. 저들은 여인들에게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저들 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말을 하라고 명했다. 그러나 여인들은 두려웠고 놀랐다. 저들은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 저들의 주님께서 못 박히셨기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급히 달려가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는 없었으나, 그러한 보고를 가져온 여인들의 말을 믿고 급하게 무덤으로 달려가 봤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다. 그곳에 세마포 옷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복된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다. 저들은 저들이 본 것과 여인들이 전한 소식에 대해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주위에 남아 있기로 마음먹고, 그가 본 것을 생각하면서 혹 그가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고심하고 있었다. 그녀는 새로운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 그녀의 슬픔은 다시 반복되었고,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무덤을 다시 한 번 보기 위해 구부리고 보고 있었는데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되었다. 저들의 용모는 밝고 빛났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머리 부분에 다른 하나는 발 부분에 앉아 있었다. 저들은 부드러운 음성으로 왜 우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나의 주님을 저들이 가져갔고, 나는 저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그녀가 무덤으로부터 돌아서자 예수님이 그녀 곁에서 계신 것을 보았는데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슬퍼하며,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셨다. 그녀는 그 사람이 동산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고 그녀의 주님을 그 사람이 어디로 옮겼으면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달라고 간청을 하며 그가 그분의 시신을 가져가겠노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말하던 하늘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그녀는 익숙하게 듣던 사랑스러운 음성을 이내 알아차리고 신속하게 “주시여!”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기쁨에 벅차 그분을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뒤로 물러서시면서 만지지 못하도록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내 아버지께 가지 못했노라. 그러나 가서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고 말하라고 하셨다. 그녀는 기뻐하면서 급히 제자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러 갔다. 예수님은 신속하게 그분의 아버지께 올라가 그분의 입으로부터 그분의 희생이 받으신바 되었다는 말, 모든 일을 잘 했다는 말을 직접 듣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고자 하셨다.

구름과 같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둘러싸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니 영원한 문들을 열라고 명하였다. 나는 예수께서 밝게 빛나는 하늘의 천군들과 함께 그분의 아버지 면전에서 계시는 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분 주위를 둘러쌌으며, 이 땅에 있는 가련한 그분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또한 그분의 제자들에게 돌아와 저들에게 나누어줄 권세를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같은 날 그분은 돌아오셨으며,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 자신을 보이셨다. 그분의 아버지에게 올라갔었고,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로 그분을 만져보도록 용납하셨다.

그러나 이 때 도마는 그곳에 없었다. 그는 제자들이 하는 말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가 그의 손가락으로 그분의 못 자국 속에 넣어보고, 그의 손으로 잔인한 창으로 상하신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완고하고 자신 있게 확인하였다. 이렇게 하므로 그는 그의 형제들에 대해 믿음이 없음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만약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동일한 증거들을 요구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었다. 그러나 제자들이 전하는 소식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전파되고, 보고 들은 사람들의 입으로 전하는 말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신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다시 함께 하셨을 때, 도마가 그들과 함께 있었다. 그 순간 그분을 보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보는 것에 추가해서 느낄 수 있는 증거가 없이 만족할 수 없다고 단언하였었고,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는 증거를 주셨다. 도마가 소리치기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시여!”라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의 불신을 책망하셨다. 그분은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요20:29 NKJV)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①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하고 그 기별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 받아야 할 것을 보았다. 나는 예수께서 못 박히셨던 것처럼 이 기별들이 못 박혀버린 것을 보았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구원을 줄 수 있는 다른 이름이 천하에는 없다고 선포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은 신실하게 그리고 두려움 없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②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기별로 기꺼이 수용하든지 아니면 이 문제에 개의치 말아야 할 것이라고 전파해야 한다.

나는 거룩한 여인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파하고 있는 동안 로마 병사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수녀들이 저들에게 제자들이 밤에 와서 저들이 자는 동안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말해 준 거짓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사단이 이러한 거짓말을 제사장들의 수녀의 마음과 입에 주었는데, 사람들은 저들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이 달려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의심할 여지없

이 분명히 하시므로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 은폐할 수 없도록 하셨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 하기 위해 증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났다.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과 40일 동안 계시면서 저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을 주었고, 하나님의 왕국의 실존(실존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더욱 충분히 공개하셨다. 그분은 제자들을 저들이 보고 들은 것, 그분의 고통과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과, 죄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그분께 나오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증거 하라고 임명하셨다. 신실하시며 부드러운 분께서 저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나 저들의 경험을 회상하고, 저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하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저들에게 그분께서 마귀를 정복했노라고 말씀하시면서, 심문을 받으시고 고통을 당하실 때에도 그 승리를 유지할 수 있었고, 사단이 그분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권세를 더 이상 소유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저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게 될 모든 자들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그의 유혹과 힘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분께서 이기신 것처럼 저들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여하셨고, 악한 사람들이 저들을 해하려 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런 때에 그분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요, 저들이 해야 할 사명을 이루기까지 저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저들의 증거를 마치면 저들의 목숨으로 그 증거를 인 척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다. 걱정하고 있는 그분의 추종자들은 기꺼이 그분의 가르침을 경청하였다. 저들은 그분의 거룩한 입술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 먹었다. 그 때 저들은 그분이 세상의 구세주 되심을 확실히 알았다. 모든 말씀들은 저들의 마음속에 무게 있게 파고들었고, 저들의 복스러운 하늘의 선생께서 곧 떠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그분의 입술로부터 위로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 슬퍼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가서 저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저들을 영접하여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자 저들의 마음은 다시 사랑과 차고 넘치는 기쁨으로 따뜻해 졌다. 그분은 저들에게 위로하시는 분, 성령을 보내셔서 인도하고 복주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분의 손을 들고 저들을 축복하셨다.

①. 계 14:6-8, 본서 23장, 24장에서 설명함

②. 계 14:9-12. 본서 28장에서 설명함

(마 27:52-53, 28: , 막 16:1-18, 눅 24:1-50, 요 20: , 행 12: . 참고)

제11장

그리스도의 승천

모든 하늘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할 승리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천사들은 영광의 왕을 영접하여 의기양양하게 하늘로 호위하기 위해 왔다. 예수께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축복하신 후 저들을 떠나 하늘로 올림을 받았다. 그리고 그분께서 위를 향해 올라가시면서 인도하시자 그분의 부활 때 일어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 올라갔다.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이 동행했고, 하늘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저들이 거룩한 성을 향해 올라가는 동안, 예수님을 호위하는 천사들이 외치기를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문들아! 들어 올리라! 너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고 했다. 성을 둘러싸며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던 천사들이 화답하며 외치기를 “영광의 왕이 뉘시뇨?”라고 했다. 호위하는 천사들이 승리의 함성으로 “강하고 능하신 주시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로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라!”고 했다. 다시 하늘의 천군들은 “영광의 왕이 뉘시뇨?”라고 했고, 호위하는 천사들은 음악과 같은 소리로 “만군의 주시오, 영광의 왕이시라!”고 했다. 하늘로 향하는 행렬은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모든 하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 저들의 당당하신 사령관을 둘러 모였고, 최고의 경의와 함께 엎드려 경배하고, 저들의 빛나는 면류관을 그분의 발 앞에 던졌다. 그리고서 저들은 금 거문고를 켜며 죽임을 당하셨으나 위엄과 영광 가운데 다시 사시는 어린양을 위한 노래, 감미롭고 아름다운 노래로의 선율로 온 하늘을 가득 채웠다.

다음으로 나는 슬퍼하면서 저들의 주님께서 올라가는 마지막 광경을 지켜보기 위해 하늘을 응시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저들 곁에 서서 저들에게 말하기를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 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행 1:11 NKJV)고 하였다.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목격하였고, 그날 밤 저들은 그분의 놀라운 행적들,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났던 신비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과 모여서 회의를 했고,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심한 증오심을 가지고 저들에게 말하기를 이 땅에서 그의 권세와 능력이 존재하는 한 예수를 따르는 추종자들을 대항하기 위해 저들의 노력을 열 배나 더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저들은 예수를 대항해서 이긴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할 수만 있으면 그분의 추종자들을 뒤집어엎고, 모든 세대를 거쳐 예수를 믿고, 그의 부활과 승천을 믿고자 하는 자들을 타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예수님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내고 저들을 꾸짖고, 그(사단)가 고통을 가해야 할 자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주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사단의

천사들이 마치 우는 사자처럼 예수의 추종자들을 멸하기 위해 찾아 나갔다.

(시 24:7-10, 행 1:1-11 참고)

제12장

그리스도의 제자들

제자들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신 구주에 대해 전파했다. 저들은 병자들을 고쳤고,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던 사람까지 온전하게 회복되어 저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 앞에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였다. 이러한 소문이 퍼지게 되고 사람들이 제자들 주위에 몰려들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뛰어와서 치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크게 놀라며 바라보았다.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 제사장들의 수뇌들은 저들 가운데서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요, 흥분은 사라지고, 사람들이 사람들의 관습대로 따라 살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보라! 저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은 놀라서 저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 이상히 여기며 주시하고 있었다. 예수님은 못 박히셨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능력을 받았는지 의아해 하였다. 예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실 수 있었으나, 예수는 죽었을 때 그러한 기적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베드로는 저들이 처해 있는 곤혹스러움을 이해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히 여기느냐? 마치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주시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하였는데 너희가 빌라도의 면전에서 그를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이여 의로우신 이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주기를 구하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들이라”(행 1:12-15 NKJV)고 했다. 베드로는 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전에 절름발이었던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수뇌들은 이 말을 참을 수가 없었다. 저들은 제자들을 붙잡아 가두었다. 그러나 수천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서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믿었다.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수뇌들은 고민에 빠졌다. 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들에게로 향하게 하기 위해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갔다. 저들은 제자들에 의해 공개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는 비난을 받았으며,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사람들이 저들을 어떻게 여길지에 대해 예측할 수가 없었다. 저들은 제자들을 기꺼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저들에게 돌을 던질까봐 감히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저들은 의회에 끌려온 제자들을 불렀다. 열의를 다해 의로우신 분의 피를 요청했던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그곳에 있었다. 저들은 베드로가 그분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겁이 나서 저주하며 맹세했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저들은 베드로를 협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이제 베드로는 회개한 사람이었다. 여기

베드로에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왔다. 한 때 그는 그분을 부인했었으나 이제 성급하게 겁을 먹고 부인했던 그의 오점을 벗어나 버릴 수 있게 되었고, 그가 부인했던 그 이름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그때 베드로의 마음은 겁 많고 두려움이 지배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담대함과 성령의 능력이 지배하고 있었기에 두려움 없이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하였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하여져서 너희 앞에 서게 되었느니라. 이 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쓸 데 없다고 제쳐 놓은 돌이었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행 4:10-12 NKJV) 선언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에 놀랐다. 저들은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저들의 고상함과 두려움 없는 행동이 마치 예수님께서 그분을 죽이는 자들이 꺾박할 때 보이셨던 것과 같았기 때문이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 단 한 번 동정과 슬픔의 눈으로 그를 질책하셨다. 이제 그는 용기 있게 그의 주님을 알렸고 그로 인해 베드로는 인정을 받고 복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다는 표로 그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제사장들의 수뇌들은 저들이 제자들에게 품고 있는 증오심을 감히 나타낼 수 없었다. 저들은 그들에게 의회에서 나가 있으라고 명하고 저희들끼리 모여 “이 사람을 어떻게 할꼬?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적들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고 했다. 저들은 이처럼 선한 일이 전파되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 저들의 세력을 잃을 것이요, 저들을 살인자로 볼 것이었다. 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저들을 위협하여 죽지 않으려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하게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들은 계속해서 저들에게 데려 온 고통당하는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리고 특별히 저들과 연관이 있는 자들은 불안해하며 떨었다. 매일 수백 명씩 못 박히셨다가 살아나시고 하늘로 승천한 구주의 깃발 아래 몰려들었다. 저들은 사도들을 감옥 가두고, 흥분이 사라지기를 기대했다. 사단이 승리했고, 악한 천사들은 기뻐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냄을 받고 옥문을 열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명령과는 반대로 성전에 들어가 이 생명의 말씀을 모두 말하라고 명했다. 회의가 소집되고 죄수를 불러 오라고 했다. 간수가 감옥 문을 열었으나 저들이 찾는 죄수는 그곳에 없었다. 저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와서 말하기를 감옥문은 안전하게 닫혀 있었고, 지키는 자는 문 밖에 서 있었으나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노라고 했다. 그 때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넣은 사람들이 성전에서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행 5:25 NKJV)라고 했다. 그 때 장교와 군인들이 가서 폭력을 쓰지 않고 저들을 데려 왔는데 이는 사람들이 저들에게 돌을 던질까 봐 두려워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저들을 데려 온 후, 의회에 세우고, 대제사장이 저들에게 묻기를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워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려 하는도다”(행 5:28 NKJV)라고 했다.

저들은 위선자들이라, 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더 사랑하였다. 저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되었고, 사도들이 이론 가장 놀라운 이적들은 저들을 분노케만 하였다. 저들은 만약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분의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전파한다면 저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저들을 그분의 살인자들과라고 선포할 것임을 알았다. 저들은 “그분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라고 목 놓아 외쳤을 때처럼 예수의 피를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다.

사도들은 담대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행 5:29 NKJV)고 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이 분을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황태자와 구주가 되게 하셨으니, 이는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들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 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 하니라(행 5: 30-32 NKJV)고 하였다. 그때 살인자들이 화를 냈다. 저들은 사도들을 죽임으로 다시 한번 저들의 손을 피로 물들게 하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가말리엘에게 보내어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수뇌들에게 가서 상의 하도록 그의 마음에 감명을 주고 있는 동안 저들은 이들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계획하고 있었다. 가말리엘이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만일 이 이론이나 행동이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곧 무너져 버릴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리지 못 할 것이니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알려지지 않도록 하라”(행 5:38, 39 NKJV)고 했다. 악한 천사들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여 사도들을 죽이도록 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어 제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 좋게 말하도록 하므로 그 일을 막으셨다.

사도들의 일이 마쳐지지 않았다. 저들은 왕들 앞에 불려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 해야 했고,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 해야 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수뇌들이 저들을 보내기 전에 때리며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사도들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성전에서나 초대받은 각 가정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행 5:41-42 NKJV-참고) 하나님의 말씀은 널리 전파되었고 증가되었다. 사단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수뇌들을 부추겨 로마 병사들을 고용해서 저들이 자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흠쳐 갔다고 하는 거짓을 말하도록 했다. 저들은 이러한 거짓말로 그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나, 보라 저들 주위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힘 있는 증거들이 속출하였다. 제자들이 용감하게 그 사실을 선언했고,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 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들이 놀

라운 이적들을 행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졌을 때, 예수
의 피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던 자들에게 담대히 예수님의 피를 돌렸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세대에 닦으로 사용될 신성하고 중요한 진리
를 특별히 돌보고 지키도록 하나님의 천사들이 임명되는 것을 보았다.

이스라엘의 희망이 될 중요한 진리, 예수님의 못 박힘과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
도들 위에 성령이 특별히 임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구주를 저들의 유일한 소망으로 바
라보아야 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분의 희생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시고 사신 생애를 통해
서 열어 놓은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나는 유대인들로 그분을 미워하고 죽이도록 했던 동일
한 사업을 제자들에게 이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예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보았다. 그
들은 사단의 일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았다. 저들은 멸시받고 악한 자의 손에 죽임을 당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사를 이루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때에 빛과 영
광의 빛이 비추어 그분이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룩한 사건을 불후의 영원한 사건으로 만
들었다.

(행 3장-5장 참고)

제13장

스데반의 죽음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많은 제사장들이 그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다. 믿음이 충만한 스테반이 백성들 사이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였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저들의 전통과 희생 제도와 헌물 제도를 떠나 예수님을 커다란 희생 제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다. 스테반은 위에서 내린 능력으로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질책하고 저들 앞에 예수님을 높였다. 저들은 그가 말하는 지혜와 권세에 대해 저항할 수 없었고, 그를 대적할 것을 찾을 수 없자 사람들을 사서 그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도록 했다. 저들은 백성을 동요시키고, 스테반을 붙잡아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그가 성전과 율법을 대적하는 말을 했다고 고소하였다. 저들은 그가 이 나사렛 예수가 모세가 저들에게 준 관습들을 멸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스데반을 대항하는 심판석에 앉아 있는 모든 자들이 스테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났다. 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고, 선지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초림, 그분의 못 박히심, 그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 전파했고, 주께서 사람이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저들은 성전을 경배했다. 저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말보다 성전에 대해 대항하는 어떤 말을 하면 저들은 더욱 크게 분노하였다. 스테반의 영이 저들의 악함과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함에 대해 견책할 때 그 마음이 하늘의 분노로 동요되었었다.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 도다”라고 했다. 저들은 외적 의식들은 지키면서 저들의 마음은 부패되었고, 사악한 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테반은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이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행 7:52 NKJV)라고 했다.

제사장들의 수뇌들과 치리자들은 분명하고 예리한 진리가 발해지자 매우 화가 나서 스테반에게 달려들었다. 그가 하늘을 똑바로 쳐다보자 하늘의 빛이 그에게 비쳤고,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그에게 주어졌으며 천사들이 그 주위를 감쌌다. 그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행 7:56 NKJV)고 소리쳤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저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저들의 귀를 막고 하나같이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그를 내던졌고, 돌로 쳤다. 그리고 스테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행 7:60 NKJV)라고 하였다.

나는 스테반이 하나님의 강한 사람이요, 특별히 교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보았다. 사단은 그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인해 매우 기뻐했는데, 이는 제자들이 그의 부재를 크게 느낄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사단의 승리는 잠

시 잠깐이었는데, 그 무리 가운데 스테반이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자신을 보여주실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스테반에게 돌을 던지지는 않았으나 그를 죽이는 일에 동의했다. 사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열성이 있었고, 저들을 찾아내어 저들의 집에서 붙잡아다가 저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에게 끌어다 주었다. 사단은 사울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을 깨뜨릴 수 있고, 그에 의해 포로가 된 자들을 해방시키실 수 있으시다. 사울은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었는데,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대항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을 대항하는데 있어서 그의 이러한 재능을 성공적으로 활용했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울을 그의 이름을 전파하고, 제자들이 하는 일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스테반이 하던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택한 그릇으로 선택하셨다. 사울은 유대인들로부터 크게 높임을 받았다. 그의 열성과 학문은 저들을 기쁘게 했고,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다.

(사도 행전 6장 7장 참고)

제14장

사울의 회심

사울이 예수를 전파하는 남녀들을 붙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악한 천사들은 그 주위에서 매우 기뻐하였다. 그러나 그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줄기 빛이 그 주위를 비추었는데 그로 인해 악한 천사들이 도망을 갔고, 사울은 땅에 급히 엎드렸다. 그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행 9:4 NKJV) 하였다. 사울이 묻기를 “주여, 당신은 누구시나이까?(행 9:5 NKJV) 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가시채(막대기)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라”(행 9:5 NKJV)고 하시었다. 그리고 사울은 떨려 놀라서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자 주께서 “일어나서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행할 일을 말해 줄 자가 있을 것이라”(행 9:6 NKJV)고 하셨다.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말도 못하고 서 있었고, 한 음성은 들었는데 사람은 보지 못했다. 빛이 사라지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그의 눈을 떴으나 사람은 보지 못했다. 하늘의 빛이 발한 영광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저들이 손으로 그를 붙잡고 인도하여 다메섹으로 갔고, 그가 그곳에 삼일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거나 마시지도 못했다. 그 때 주께서 사울이 포로로 잡으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에게 천사를 보내어 계시를 주어 일어나 곧은 길(직가)이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타소 사람인 사울을 찾으라. 보라, 그가 기도하고 있느니라. 그가 환상 속에서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행 9:11-12 NKJV)고 하시니라.

아나니아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하고 두려워했다. 그래서 주님께 그가 사울에 대해 들은 것에 말씀을 드렸다. 그러나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선택한 그릇이라.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로 고통을 받을 것인가를 내가 그에게 보여 주겠노라”(행 9:15-16 NKJV)고 하셨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지시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가 그의 손을 그 위에 얹고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던 길에서 네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너로 보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행 9:17 NKJV)고 하였다.

즉시로 사울이 시력을 회복했고, 일어나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가 곧바로 회당에서 그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더라. 그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는 자들을 죽이던 자가 아니냐, 또 여기에 온 것도 사람들을 잡아 대제사장에게로 데려가려는 것이 아니냐?’고 하더라. 그러나 사울은 더욱 힘을 얻어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함으로써 다마스쿠스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황케 하니라.”(행 9:20-22 NKJV) 저들이 곤경에 빠졌다. 사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의

경험을 이야기했다.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예수를 대적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을 붙잡아 죽이도록 하는데 열성을 보였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의 기적적인 회심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확신을 주었다. 사울은 그가 남녀를 막론하고 사람들을 죽도록 핍박하고,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 중에, 다메섹으로 가게 되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내려온 큰 빛이 그 주위를 비추었고,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는 경험을 말했다. 사울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파하자, 그가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 되었다. 그는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었고, 회심의 경험을 한 후에, 거룩한 빛이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환하게 비추었는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분명하고 담대하게 그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했고, 성경의 왜곡된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게 하였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심으로 그는 그의 청중들에게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 관한 예언까지 분명하고 설득력 있게 가르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성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도행전 9장 참고)

제15장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정함

제사장들의 수뇌들과 통치자들은 저들이 바울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목격하면서 바울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저들은 그가 담대하게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고, 저들의 전통에서 떠나 저들(제사장들과 장로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로 여기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사실이 저들에게 분노를 치밀게 했으며, 이러한 흥분을 가라안칠 수 있는 최상의 길이 무엇인지 의논하기 위해 모였다. 저들은 저들 자신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안전의 길은 바울을 죽이는 일이라는 점에 동의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이러한 의도를 아셨고, 그가 이루어야 할 일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까지 살아있도록 그를 지켜 보호하도록 천사가 임명되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사단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시켜 다메섹의 성문을 통해 바울이 나갈 것이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성문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는 저들이 즉시로 죽이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밤중에 제자들이 광주리를 이용해서 그를 성 밖으로 내려 보냈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은 저들의 실패에 대해 수치스럽게 여겼고, 사단의 목적은 패배로 끝났다. 그런 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과 합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갔는데 모든 제자들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그가 제자가 된 것에 대해 믿을 수가 없었다. 그의 목숨이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에 의해 추격을 받았는데 이제 그의 형제들이 그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바나바가 그를 영접하여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주님을 보았으며,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한 일에 대해 말했다.

그러나 사단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 유대인들을 선동했고, 예수님은 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 다른 도시들로 들어가서 기적을 행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고,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되었던 사람이 온전하게 되자,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희생제물을 드리려고까지 했다. 바울은 슬퍼하며, 저들에게 저들 역시 사람에 불과하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울은 저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였으나, 사람들의 행동을 만류하기가 힘들었다. 참된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에게 드려야 할 예배와 영광에 대한 첫 번째 지식이 저들의 마음속에 형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저들이 바울의 말을 경청하자 사단은 다른 도시들에 있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강권하여 그가 이루어 놓은 선한 일들을 멸하기 위해 그 뒤를 따라 가도록 하였다. 유대인들은 동요되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에 대한 거짓 증거를 속삭이므로 불을 붙였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경이와 찬사는 증오로 바뀌었고,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제자들을 경배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

졌고, 그가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서서 그에 대해 슬퍼하고 있는 동안 그가 일어나 저들에게 기쁨을 주었고, 저들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갔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전파하자 점을 치는 영을 소유한 한 여인이 저들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치기를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노라”고 했다. 그렇게 하며 여러 날 동안 제자들을 따라다녔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진리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때문에 몹시 슬퍼했다. 이 여인으로 이런 일을 하도록 한 사단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혐오감을 주어 제자들이 미치는 영향력을 없애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자극되어 돌아서서 그 여인과 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고 했다. 그러자 악령은 책망을 받고 그녀를 떠났다.

그녀의 주인들은 그녀가 제자들을 따라다니며 소리지르는 것을 기뻐했는데, 악령이 그 여자를 떠나가 그녀도 유순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을 보며 화를 냈다. 저들은 그녀가 점을 쳐주므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제 저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소망이 사라져버렸다. 사단의 목적을 패배를 했으나, 그의 종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끌고 와서 장로들과 통치자(법관)들 앞에 세우고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를 대적하였고, 법관들이 저들의 옷을 찢고 그를 때로 치라고 명했다. 그리고 저들을 많이 때린 후에 저들을 감옥에 가두면서, 감옥을 지키는 자에게 이러한 죄를 범한 자들을 잘 지키라고 명했고, 저들을 깊은 감옥에 밀어 넣고 저들의 발을 차꼬에 채웠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저들과 함께 있었다. 저들의 감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해주었고,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는 일과 선택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의 벽들이 흔들리고, 그분에 의해 강한 철 빗장이 쉽게 열릴 수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미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커다란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즉시 모든 사람의 사슬을 풀러주는 것을 보았다. 감옥을 지키는 자가 깨어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다. 그는 죄수들이 도망쳤고, 그는 죽음으로 형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가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큰 소리를 지르며,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간수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셨다. 그가 불을 켜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 말하기를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리까?”하고 말했다. 그러자 저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대답했다. 그 때 간수는 그의 집 모든 식구들을 불러 모았고, 바울은 저들에게 예수에 대해 전파했다. 간수의 마음은 형제들의 마음과 연합되었고, 저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그와 그의 모든 식구들이 그 밤에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차려 주었고,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이하하여 기뻐하였다.

감옥 문을 여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 간수와 그의 가족들을 회개케 하고 침례를 받도록 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관한 놀라운 소식이 도처에 퍼지게 되었다. 통치자들(법관들)이 이러한 사실을 듣고 두려워서 간수에게 사람을 보내어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라고 했다. 그러나 바울은 은밀하게 감옥을 나가고자 하지 않았다. 그가 저들에게 말하기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고 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일이 감추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군사들이 이 말을 저들의 법관들에게 전했다. 그리고 저들이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 그리고 저들이 와서 저들을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그 도시를 떠나기를 간청하였다.

(사도행전 14장 16장 참고)

제16장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함

바울이 회심의 경험을 한 후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예수님과 그분의 은혜의 놀라움에 대해 전파했다. 그는 그의 기적적인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로 인해 제사장들과 법관들이 분노하여 그의 생명을 노리고 있다는 말을 했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있을 때, 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네가 내게 대하여 증거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바울이 진지하게 주님께 간청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을 저희도 아나이다”고 말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의 증거를 거절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안에 이러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리리라”고 하셨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떠나 있는 동안 여러 지역에 그의 경험과 힘 있는 증거들을 써서 편지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편지의 영향력을 떨하려고 노력했다. 저들은 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나, 그의 몸이 연약하고, 그의 말주변이 별게 아니라고 공표했다.

나는 바울이 아는 것이 많고 그의 지혜와 태도로 그의 청중들을 매혹시키는 것을 보았다. 학자들은 그의 지식을 인해서 기뻐했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왕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는 그의 이러한 능변으로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시키고자 열변을 토로했다. 이러한 일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을 더욱 분노하게 하였다. 바울은 깊은 깨달음으로서 저들을 끌어 올려 그의 사상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저들의 사상을 가장 높게 고양시켜 하나님의 은혜의 깊고 풍성함을 보게 하고, 저들 앞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었다. 또한 겸손하게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는 지점까지 자신을 낮추기도 했고, 저들에게 가장 강력한 태도로 그의 경험을 말하므로 저들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불타는 열망을 가지도록 했다.

주께서 다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그분의 이름을 인해 결박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할 것을 보여주셨다. 그가 상당 기간 동안 죄수로 있었으나 주님은 그를 통해서 특별한 일을 추진하고 계셨다. 바울의 속박은 그리스도의 지식을 전파하는 수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될 것이었다. 그가 심문을 당하기 위해 도시에서 도시로 옮겨 다닐 때마다 예수님에 관한 그의 증언과, 흥미 있는 그의 회심의 경험을 왕들과 정치가들에게

이야기하므로 저들도 예수에 관한 증거를 듣지 못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셨다. 수천의 사람들이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 안에서 즐거워했다. 나는 바울이 바다를 여행하므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는데, 바울을 통해서 선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 들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그가 행한 기적을 목격하므로 회개하였다. 왕들과 정치가들이 그의 논리에 매혹 당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열성을 다해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과, 그의 흥미 있는 경험들을 인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확신이 굳어졌다. 저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놀라움으로 경탄하는 중에 어떤 사람은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도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저들이 들은 것들을 생각해 보겠다고 생각했다. 사단은 이러한 지체하는 마음을 이용해서 저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는데도 기회를 소홀히 하도록 하므로 저들의 지체가 영원한 지체가 되도록 하였다. 저들의 마음은 무감각하게 되었다.

나는 사단이 첫째로 유대인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 예수님을 저들의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다음에 그분이 하시는 일을 시기하도록 이끌어 그분의 생명을 없애고자 하도록 이끄는 것을 보았다. 사단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를 배반하여 저들의 손에 팔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저들이 생명과 영광의 주님을 못 박았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신 후에, 유대인들은 부활을 은폐하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을 매수하여 거짓을 증거 하므로 죄에 죄를 더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과 함께 부활한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갑절로 확실히 증거 되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한번은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사단은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을 거절하고, 가장 고귀하신 분을 못 박으므로 저들의 손을 피로 얼룩지게 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을 하도록 하였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을 위한 구주가 되신다는 강력한 증거를 주었지만 저들은 그분을 죽였고, 그분에 대한 어떠한 좋은 증거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저들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는 마치 사단이 그가 타락한 후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에 대항하여 이기고자 하는 것뿐이었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저들을 죽이므로 반역하는 일을 계속하였다. 저들의 귀에 저들이 못 박은 예수의 이름처럼 거슬리는 말이 없었고, 그분에 대한 좋은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듣지 않기로 결심했다. 스테반의 경우와 같이 성령께서 그를 통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강력한 증거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그 말을 믿게 될까 봐 듣지 않기 위해 저들의 귀를 막았다. 그리고 스테반이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있는 동안 저들은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사단은 예수를 죽이는 살인자들을 굳게 붙잡고 있었다. 사악한 일을 하므로 그들은 그의 자원하는 종이 되었고, 저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괴롭히고 귀찮게 하였다. 그는 유대인들을 동요시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방인들을 소모하게 했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을 대적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제자들이 저들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셨으며, 저들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저들의 피로써 저들의 증거를 확고히 인치도록 하셨다.

사단은 유대인들이 그의 울무에 안전하게 걸려 있음에 대해 기뻐하였다. 저들은 지금도 쓸데없는 형식과 희생제도와 의식을 계속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더 이상 만나지 않으며, 더 이상 저들의 희생과 의식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 헐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둘 모두(유대인과 이방인들)를 위해 자신을 바치셨으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둘 모두가 다 죄를 위한 유일한 희생물로, 그리고 세상의 구주로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한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물과 피, 두 줄기가 또렷이 흘러내렸는데 하나는 물이요 하나는 피였다. 피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의 죄를 씻어줄 것이었다. 물은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에게서 얻을 수 생수를 나타낸다.

(마 27:51, 요 19:34, 행 24장,- 26장 참고)

제17장

큰 배도

나는 이방 우상숭배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하고 죽이던 때를 보게 되었다. 피가 급류처럼 흘러내렸다. 고상한 자들, 학자들, 그리고 평민을 무론하고 똑같이 무자비한 죽임을 당했다. 부자들은 저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빈곤하게 되었다.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음에도 그리스도인들은 견뎠으며, 저들의 표준을 낮추고자 하지 않았다. 저들은 저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켰다. 나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인해 기뻐하며 승리의 함성을 지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한 순교자들을 깊이 살펴보셨으며, 그와 같은 두려운 시기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을 위해 고통을 즐겨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커다란 사랑을 받았다. 저들이 받은 모든 고통은 하늘에서 받을 저들의 상급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사단이 성도들이 받는 고통을 인해 기뻐하였으나 그가 아직 만족해 하지는 않았다. 그는 몸을 물론 마음까지 주관하기를 원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저들을 주님께 더욱 가깝게 이끌었고, 서로를 사랑하고, 그분을 거스르는 일하는 것을 더더욱 두려워하도록 했다. 사단은 저들로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고자 했다. 그렇게 하므로 저들의 힘과 용기와 확고함을 잃게 하고자 했다. 수천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으나 저들의 자리를 채우기 위해 또 다른 사람들이 일어났다. 사단은 그의 백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저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도 그분의 왕국 백성이 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붙어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정부를 대항해 싸우고, 그분의 교회를 더욱 성공적으로 넘어뜨리기 위해 그의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이방 우상숭배자들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를 받아들이게 하였다. 저들은 마음의 변화 없이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믿는다고 공언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자들과 연합할 것을 제안하게 하였다. 아- 교회가 직면한 두려운 위험! 그 때는 정신적으로 고통 하는 때였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이 조금 수그러 그리스도교 신앙의 일부를 받아들인 우상숭배자들과 연합한다면 저들의 회심을 돕는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단은 성경의 교리를 더럽히고자 하였다.

결국 나는 수준이 낮아지고 이교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은 했으나 우상숭배자들이었고, 저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다. 저들의 예배에서 우상의 사물만 바꾸어 성도들의 형상, 심지어 그리스도의 형상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형상까지 만들어 경배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점진적으로 저들과 연합하였고 그리스도교가 부패하게 되어 교회의 순결함과 그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과 연합하기를 거절하고 저들의 순수성을 고수하며 하나님만을 섬

졌다. 저들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든 저들을 향해 굽혀 경배하지 않았다.

사단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는 것을 인해 매우 기뻐하였고, 그는 타락한 교회를 부추겨 저들의 신앙을 순수하게 지키려 하는 자들을 강압하여 저들의 의식에 참석하고 저들의 우상에 숭배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박해의 불길은 또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참 교회를 향해 붙여졌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무자비하게 죽임을 당했다.

다음과 같은 모양으로 나에게 보여 졌다. 많은 수의 이방 우상숭배자들의 무리들이 태양과 달과 별들의 모양을 한 검은 깃발 아래 모여들었다. 그 무리들은 매우 사납고 성난 것 같이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무리를 보게 되었는데 저들은 하얀 깃발 아래 모였고, 그곳에 순결,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저들의 얼굴에 하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확고한 결의가 보였다. 이교 우상숭배자들이 저들에게 가까이 접근해, 크게 학살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저들 앞에 눈 녹듯 사라져버렸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저희들끼리 더욱 가깝게 밀착하여 깃발을 더욱 확고히 붙잡았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갔고, 다른 사람들이 깃발 주위로 달려가 저들의 자리를 채웠다.

나는 우상숭배자들이 함께 의논하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그리스도인들로 복종케 하는 일에 실패하고, 다른 계획을 세우기로 하였다. 저들이 깃발을 내리고 확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까이 가서 어떤 제안을 하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저들의 제안이 완전히 거절되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이 저들의 깃발을 내리고, 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저들의 목숨을 구하고, 나중에 힘을 얻은 후에 이방 우상숭배자들 사이에서 저들의 깃발을 다시 올리자고 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계획에 동의하지 않았고, 저들이 깃발을 내리는 것보다 깃발과 함께 죽겠다고 확고히 선택했다. 그런 후 저들이 확고하고 굳건하게 깃발을 붙잡고 높이 세우고 있는 동안,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깃발을 내리고 이교주의자들과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개인들이 순결한 깃발을 잡고 있는 무리들로부터 빠져나와 계속해서 우상숭배자들과 연합하고, 검은 깃발아래 있는 자들과 함께 연합하여 흰 깃발을 세우고 있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 그렇지만 흰 깃발은 높이 세워져 있었고, 개인들이 그 주위에 모여 높이 세웠다.

처음에 예수를 대항하도록 이교주의자들을 격노케 했던 유대인들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심판정에서 성난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를 정죄하는 것을 주저하자,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고 소리쳤었다. 유대 민족들이 저희 머리위에 돌리라고 부르짖은 이러한 두려운 저주의 성취를 경험했다. 이교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이 다같이 저들의 원수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열성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기 때문에 저들에게 고통을 가져오면 울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많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다른 사람들은 여기저기 도망 다니면서 여러 형태로 형벌을 받았다.

저들이 죽인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제자들의 피가 저들에게 임했으며, 두려운 심판이 저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저주가 저들을 뒤따랐고, 이교주의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비난거리가 되었다. 저들은 마치 가인의 낙인이라도 받은 자들처럼 상종도 하지 않고 타락한 무리, 혐오스러운 무리로 여겨졌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사람을 보존하시고, 세계 도처로 흩으신 것을 보았는데,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특별한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려고 함임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나라(민족)로서는 버리셨지만, 저들 가운데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저들에 관한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저들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받아들일 것이요, 저희 민족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을 못 박은 큰 죄를 볼 것이다. 유대인들 가운데 개인들이 회개할 것이지만 민족으로서는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바 되었다.

(더 많은 연구를 위해 백과사전에서 “개혁”과 “이단종교재판소”에 대해 찾아보라.)

제18장

불법의 비밀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에게서 돌려 사람들에게 향하게 하고, 개개인의 책무를 없애 버리고자 하는 것이 사단의 의도였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고자 한 그의 계획이 실패했다. 그가 타락한 인류에게 왔을 때 더욱 성공적이었다. 그리스도교의 교리가 부패되었다. 교황들과 사제들이 높은 지위를 취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 용서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저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쳤다. 저들을 정죄하게 될 진리를 감추기 위해 성경을 저들에게서 멀리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완전히 속았다. 저들은 교황들과 사제들이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라고 가르쳤는데 사실 저들은 사단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고, 저들이 저들을 경배하기 위해 고개를 숙일 때 사실은 사단을 경배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성경을 요구했으나, 사제들은 저들 스스로 성경을 읽으므로 깨우침을 받게 되면, 저들의 죄악상이 나타날까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은 위험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만자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하는 모든 말을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침 받았다. 저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 일은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가 저들이 가지게 된 확신에 따라 살려고 하면 사단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품었던 증오심을 저들에게 나타내었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들의 피를 갈급했다. 나는 사단이 한 때 특별히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이 믿는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처참한 방법으로 살해당하는 것을 보았다.

성경은 증오를 받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말살하려는 노력을 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사형으로서 금해졌으며, 그리고 성경 사본이 발견되는 대로 불살랐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특별히 돌보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성경을 보호하셨다. 시대마다 성경의 존재 자체가 불과 몇 권 되지 않았을 때가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이 완전히 말살되도록 용납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성경이 수도 없이 출판되어 모든 가정의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이 몇 권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성경은 핍박을 받는 예수님의 추종자들에게는 소중한 위로가 되었음을 보았다. 성경을 가장 은밀한 가운데 읽었고, 이러한 귀중한 특권을 가진 자들은 마치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과 독대하여 만나는 것처럼 느꼈다. 그러나 이러한 복스러운 특권을 인해 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들의 목숨을 잃기도 했다. 만약 발각이 되면, 거룩한 말씀을 읽는 곳에서 붙잡혀 칼도마에 올려져 난도질을 당하거나, 화형 주에 매달리거나, 아니면 지하 감옥에 감금되어 굶어죽도록 버려두었다.

사단은 구속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었다. 예수님은 못 박히셨고, 삼일 만에 다시 일어

나섰다. 그(사단)는 그의 천사들에게 못 박히심과 부활까지도 그에게 유리한 것으로 말하곤 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법률과 희생제물과 헌물 제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폐했다고 믿는다면, 조금 더 나아가 그는 그것과 함께 십계명도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사멸되었다고 믿도록 하고자 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의 이러한 고안에 기꺼이 굴복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발아래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 온 하늘이 분개하였다. 예수님과 하늘의 천군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는데, 저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변경하시거나 없이하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다. 절망 가운데 빠진 인류의 상태는 하늘에 커다란 슬픔을 야기 시켰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으로 하여금 저들을 위해 죽도록 하였다. 만약 그분의 율법이 폐지될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도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아버지의 율법을 폐지하지 않았고, 확대하고 높였으며, 그의 거룩한 모든 가르침들에 순종하도록 강요한다. 교회가 순결하고 확고하게 남아 있었다면, 사단이 저들을 속이지 못했을 것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도록 유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담대한 계획을 통해서 사단은 하늘과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정부의 원칙을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다. 그의 반역 때문에 그는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했다. 그가 반역한 후에, 그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바꾸기를 원했으나,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들 앞에서 사단에게 그분의 율법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사단은 그가 만약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한다면 그 또한 죽어야 할 것을 알았는데, 이는 그분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죽어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좀더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전혀 방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올무에 빠져들지 않을 것인데 이는 많은 사람들이 십계명이 아직도 저들을 구속하는 법으로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넷째 계명만 훼손하기 위해 추구해야 했다. 그는 그의 대표자들을 통해서 안식일 계명, 십계명 가운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계명만을 고치도록 하였다. 사단은 그들에게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부활을 제시하면서 저들에게 주일 중 첫째 날에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언급하면서 그가 일곱째 날 안식일을 주일 중 첫째 날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단은 부활을 그의 목적을 위해 사용했다. 그와 그의 천사들은 그리스도의 친구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이러한 오류를 기가 막히게 잘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기뻐했다. 한 사람은 이러한 점을 심한 두려움으로 바라볼 것이요, 다른 한 사람은 잘 받아들일 것이다. 다른 오류들이 받아들여질 것이요, 열성을 다해 방어할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명백하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오류와 전통으로 감추어졌고, 하나님의 계명인 것처럼 가르쳐졌다. 그러나 이러한 용감무쌍한(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되어 고통을 당하겠지만, 이러한 오류와 기만의 시

대에도 하나님이 증인 없이 그냥 남아 계시는 것은 아니다. 암흑시대와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시기에도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신실히 지키던 참된 증인들이 있었다.

나는 천사들이 영광의 왕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면서 경악하며 바라보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생명과 영광의 주시오, 온 하늘을 기쁨과 광채로 가득 채우셨던 분이 사망의 사슬을 깨고 감옥에서 승리의 정복자로 나오는 것을 보는 것은 천사의 무리들에게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님을 보았다. 그리고 만약 굳이 이 두 사건 가운데 하나를 쉬는 날로 기념해야 한다면 그 날은 못 박히신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어떤 사건도 하나님의 율법을 바꾸거나 폐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불변성을 더욱 강력하게 증명하고자 함이었음을 보았다.

이 중요한 두 사건 모두를 기념하는 것이 있다.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므로, 깨어진 떡과 포도나무의 과일을 먹으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기념하므로, 그분의 고통과 사망의 장면들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연상되게 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침례를 통해서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물 무덤에서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으로 기념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영원히 굳게 설 것이요, 새 땅에서도 영원토록 존재할 것임을 보았다. 창조 시 이 땅의 기초가 놓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조주가 이루신 일들을 감탄하며 바라보셨고, 모든 천군들은 기뻐 소리쳤다. 바로 그 때 안식일의 기초가 놓여졌다. 창조 사업의 옛세 동안의 일을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손으로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그 날에 그분께서 하시던 모든 일로부터 쉬셨기 때문이다. 안식일은 에덴에서 타락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아담과 하와와 모든 하늘 천군들이 지켰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시고,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안식일이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요, 구속받은 성도들과 모든 천사들이 영원을 두고 위대하신 창조주를 높이기 위해 지킬 것임을 보았다.

(단 7장, 살후 2장 참고)

제19장

죽음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님

사단은 그의 속임수를 에덴에서 시작했다. 그가 하와에게 “네가 정녕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이것이 영혼의 불멸에 관한 사단의 첫 번째 가르침이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 왔으며, 포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이는 날까지 계속할 것이다. 나는 에덴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었다. 저들이 금단의 열매를 먹었고, 화염검이 생명나무 주위에 있었고, 저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불멸하는 죄인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내어쫓김을 당했다. 생명나무는 불멸하게 하는 것이었다. 나는 천사가 “아담의 가족 중에 누가 화염검을 지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느냐?”고 묻는 것을 들었다. 다른 천사가 “아담의 가족 가운데 아무도 화염검을 지나 생명나무의 과일을 먹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불멸하는 죄인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말을 들었다. 죄를 짓는 영혼은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한다.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이다. 그런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될 것이다.

사단이 하나님께서 “죄 짓는 영혼은 정녕 죽으리라”라고 하신 말씀을 사람들로 하여금 “죄 짓는 영혼이 정녕 죽지 않고 고통 가운데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의미로 믿도록 성공한 것이 나에게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천사가 말하기를 “생명(삶)이란 그 안에 고통이 있든지 아니면 행복이 있는지 생명(삶)이다. 죽음은 고통도 기쁨도 증오도 없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했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에덴에서 그가 처음으로 말한 “네가 정녕 죽지 않으리라”라고 반복했던 속임과 거짓말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하라고 말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면, 저들은 불멸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요, 사단은 죄인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이라고 믿게 할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사단은 그의 대리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데, 사람들 앞에 하나님은 복수심이 강한 전체군주(폭군)라고 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자들은 모조리 지옥 불에 넣어 그분의 진노를 영원히 느끼게 하고, 저들은 그곳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것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서 몸을 비틀며 고통당하는 것을 내려다보시면서 만족해하실 분이라고 할 것이었다. 사단은 만약 이러한 오류가 받아들여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의해 사랑받고 존경받는 대신에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될 것임을 알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경고적인 말이 문자 그대로 성취될 수 없을 것이라고 믿게 될 것인데 이는 그분이 창조한 피조물을 영원한 고통 속에 있도록 하는 것은 그분의 자비와 사랑의 속

성과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사단은 또 다른 극단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경고적인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그분은 온전히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아무도 멸하지 않으시고, 결국에 가서는 성도들과 죄인 모두를 구원하셔서 그분의 왕국에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게 하는 것이었다. 영혼불멸과 영원한 고통에 관한 인기 있는 오류 때문에 사단은 또 다른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경을 영감에 의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고 믿도록 하는 것이다. 저들은 성경이야말로 많은 좋은 것들을 가르치기는 하지만 저들이 성경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사랑할 수 없는데 이는 성경이 영원한 고통을 선언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사단이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저들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께서 인간 가족의 일부는 영원을 두고 두려운 고통을 받게 하실 것이 라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품성에 있어서 일치성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경과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며 죽음이란 영원토록 잠자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단은 두려워하고 겁이 많은 이들에게 죄를 짓도록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을 인도하는데, 저들이 죄를 지은 후에 저들 앞에 죄의 값은 사망이 아니요, 두려운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원을 두고 끝없는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속삭인다. 사단은 그 기회를 이용해서 연약한 저들의 마음에 지옥에서의 끝없는 공포를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과장하여 제시하고,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면서 저들의 판단력(이성)을 잃게 한다. 그런 후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기뻐 날뛰며,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이 연합하여 그리스도교계에 질책을 퍼붓는다. 저들은 인기 있는 이설, 성경과 그의 저자를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악한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늘에 있는 천군들이 사단의 이러한 대담한 일에 대해 분노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하늘의 천사들이 능력이 있고, 명령만 받으면 쉽게 원수의 세력을 깨버릴 수 있을 텐데,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이러한 모든 기만의 영향이 미치도록 해야만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 때 사단이 할 수 있는 모든 술책을 동원해서 사람을 멸하려고 할 것에 알고 계심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도록 하였고, 인류를 위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셨기 때문에 가장 연약한 자라도 실수할 필요가 없게 하셨음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분의 말씀을 인류에게 주신 후, 조심스럽게 그 말씀을 지키셔서, 사단이나 그의 천사 또는 어떤 대리인이나 대표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멸할 수 없도록 하셨다. 다른 책들이 파기되겠지만 이 거룩한 책은 불멸할 것이었다. 그리고 말세에 가까워지면서 사단의 속임수가 더욱 증가될 때에, 이 책이 인쇄되어 원하는 자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책을 가질 수 있게 하였고, 저들이 원하기만 하면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 이적에 대항할 수 있는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경을 지키신 것을 보았다. 하지만 학자들이 성경이 별로 없었을 때, 성경의 어떤 예들을 바꾸면서, 그렇게 하므로 그 말씀의 의미를 더욱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분명한 말씀을 더욱 애매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고, 저들의 견해와 전통에 의해 변경된 것을 의존하도록 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말씀이 전반적으로 완전한 사슬로 이어진 것을 보았고, 한 곳의 성경절이 다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을 보았다. 진실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자들은 실수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고 분명하게 생명으로 이끄는 길을 선포하는 것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생명의 길을 이해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성령도 주어졌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의지를 결코 주관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인류 앞에 생명과 사망을 제시하신다. 인류는 그가 선택한 것을 가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지만 넓은 길을 계속 가고 있는데 이는 저들이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범죄 해서 죽어야 할 인류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을 보았다. 저들을 위해 커다란 값을 치르고 산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이 그분의 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반역하기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끝없는 고난을 견디도록 지옥에 넣어 감금하시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저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수는 없다. 저들을 순결하고 거룩한 무리 속으로 데려온다는 것은 저들을 정말로 불행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늘로 데려가시지 않을 것이요, 그렇다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도록 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그분께서 저들을 완전히 멸하셔서 저들이 없었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리하면 그분의 공의가 충족될 것이다. 그분께서 사람을 흠으로 지으셨는 바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불로 태워 다시 흠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품성에 대해 감탄하고 경배를 돌려야 함을 보았다. 악한 자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멸망당한 후에 모든 하늘에 있는 천군들은 아멘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이 만든 속임수에 그렇게 집착되어 있는 것을 인해 크게 만족하며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도 새로운 속임수를 고안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의 능력이 증가되고 더욱 교활해진다. 그는 그의 대리자들인 교황들과 사제들을 이용해서 저들 자신들을 높이고, 그들을 통해서 소개하는 그 자신이 고안한 속임수에 즐겨 따르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핍박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소요하는 일을 한다. 그(사단)는 그의 대리자들을 동원해서 그리스도를 신실히 따르는 자들을 멸하도록 했다. 아- 귀하신 하나님을 그토록 오래 참도록 만든 고통과 고뇌들! 천사들은 이 모든 사항에 대해 신실하게 기록하였다. 그러나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기뻐했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힘을 더해주고 돕는 천사들에게 저들이 그들을 죽일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 때 하나님의 교회가 순결함을 보았다. 그 때에는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위험도 없었는데, 이는 감히 그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고문대에 있거나 화형주에 달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고안해 사람들의 마음에 집어넣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고 있을 위험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 3장, 전9:5, 12:7, 눅 21:33, 요 3:16, 딤후 3:16, 계 20:14-15, 21:1, 22:12-19 참고)

제20장 개혁

이러한 온갖 형태의 핍박을 가하고 성도들을 죽였지만, 살아있는 증인들이 도처에서 일어났다. 천사들은 저들에게 하라고 위탁된 일을 하고 있었다. 저들은 가장 어두운 곳에서, 암흑을 뚫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을 찾고 있었다. 저들은 오류 가운데 파묻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처럼, 진리를 전하는 그릇들로 택해서 그의 공언하는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는데 저들의 목소리를 높이도록 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말틴 루터와 멜랑톤 그리고 다른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를 갈망하도록 하셨다. 원수가 홍수처럼 몰려왔고, 저들을 대항하기 위해 수준은 높아져야만 했다.

루터가 폭풍을 뚫고 나가 타락한 교회의 분노를 대항하기 위해 맞서고, 저들의 거룩한 직업에 신실한 소수의 무리들을 강권하기 위해 택함을 받았다. 그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 늘 두려워하였다. 그는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보기 위해 노력했으나, 하늘로부터 임한 빛에 의해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길은-역자) 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있으며, 그 자신이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교황들을 통해서 또는 고해 성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올 수 있다는 것을 믿기까지 그의 마음에 만족이 없었다. 아- 이러한 지식이 루터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던가! 그는 이 새롭고 소중한 빛을 그의 어두운 이해력을 깨워주고, 그의 미신적 사교 신앙을 몰아내는 것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값나가는 보화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것이 되었다. 모든 일이 바뀌어졌다. 그가 가지고 있는 책이 그 안에 있는 미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무서워했던 책이 이제 생명, 그에게 생명이 되었다. 그 책은 그에게 기쁨이요, 위로요, 복스러운 교사가 되었다. 그 어떤 것도 그 책을 연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혹할 수 없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으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고, 하나님의 품성을 사모했고, 그분을 사랑하였다. 그는 그 자신을 위해 성경을 연구했다. 그는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보화의 말씀으로 마음껏 먹었다. 그리고 그는 교회를 위해 성경을 연구했다. 그는 구원을 바라며 신뢰했던 자들의 죄악을 인해 혐오감을 느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덮었던 어두움에 싸여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어린양만이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간절히 찾았다.

그는 교황 교회의 오류와 죄악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고, 많은 사람들을 어둠 속

에 가두어 놓고 구원을 위해 행함을 주장하는 암흑의 사슬을 깨고자 간절히 바랐다. 그는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놀라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마음을 열도록 도와줄 수 있기를 간절히 열망했다.

그는 열성을 다해 그 목소리를 높였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범하고 있는 죄악상을 부르짖었다. 그가 사제들로부터 불어오는 반대의 폭풍을 맞으면서 용기를 잃지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의 강한 팔에 의지하였고, 승리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분을 신뢰하였다. 그리고 그가 투쟁의 강도를 점점 더해가자, 그를 대항하는 사제들의 분노의 불길이 붙여지기 시작했다. 저들은 개혁하고자 하지 않았다. 저들은 안일하고 음탕한 쾌락과 악을 행하는데 그냥 머물러 있기를 선택했다. 저들은 교회가 암흑 가운데 남아있기를 바랐다.

나는 루터가 죄를 견책하고 진리를 옹호하는데 있어서 열렬하게 불탔으며 두려워할 줄 모르며 담대한 것을 보았다. 그는 악한 사람들이나 마귀를 개의치 않았다. 그는 저들 모두보다 더 강한 한 분이 그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루터는 불과 같은 열성과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서 때때로 너무나 극단으로 치우치는 성향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멜랑톤이라는 사람을 불러 일으키셨는데 그는 그와는 반대의 성격을 가진 자로서 루터를 도와 개혁 사업을 함께 밀고 나가도록 했다. 멜랑톤은 수줍고 두려워하고 조심성이 있고 매우 오래 참는 성격을 소유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받았다. 그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고, 그의 판단력과 지혜가 탁월했다.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루터와 동일했다.

주께서 이러한 마음들을 함께 섞이도록 하였고,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친구였었다. 루터는 멜랑톤이 두려워하고 머뭇거릴 때 큰 도움이 되었고, 멜랑톤은 루터가 너무 빨리 서둘러 나갈 때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 멜랑톤의 조심성 있는 예지력은 만약 루터 홀로 밀고 나가도록 버려두었다면 문제가 될 뻔한 문제들을 피하는데 기여를 했다. 또한 멜랑톤 혼자 하도록 버려두었다면 일이 진척되는데 실패로 끝나버릴 뻔한 경우도 있었다. 나는 개혁 사업을 이루시기 위해 성격이 다른 두 사람을 택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었다.

그 때 나는 사도들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열렬하고 열성적인 베드로와 부드럽고 참을성 있고 온유한 요한을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 택하신 것을 보았다. 때때로 베드로는 성급했다. 그리고 사랑받던 제자 요한은 베드로가 열렬하고 열성적이어서 너무 성급할 때 그를 저지하곤 했으며, 그렇다고 그가 바뀌어 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의 주님을 부인하고 회개하고 뉘우친 후에는 그의 열성적이고 열렬한 행동에 대해 요한의 부드러운 저지만을 필요로 하는 자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업이 요한에게만 맡겨졌더라면 때때로 그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뻔하였다. 베드로의 열성이 필요 되었었다. 그의 대담함과 박력이 때때로 문제를 해결하고 원수를 잠잠케 하였다. 요한은 (사람들을) 얻는(끄는) 사람이었다. 그는 그의 오래 참는 인내심과 깊은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업으로

끌어들였다.

하나님께서 교황 교회의 죄악을 대항해서 부르짖는 사람들을 일으키셔서 개혁 사업을 밀고 나가도록 하셨다. 사단은 이러한 살아있는 증인들을 떨하고자 찾았으나, 하나님께서 저들 주위를 울타리로 보호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저들의 피로써 저들의 증거 하는 바를 인치도록 용납되었다. 그러나 또 다른 힘 있는 루터와 멜랑톤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들은 교황들과 사제들과 왕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위해 살아서 목소리를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 저들은 루터가 하는 말로 인해 떨었다. 선택된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빛은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이고 빛 안에서 행하였다. 그리고 한 증인이 죽임을 당하면, 둘 또는 그 이상의 증인들이 저들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일어났다.

그러나 사단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저들의 몸만 주관할 수 있었다. 그는 신도들로 하여금 저들의 신앙과 소망을 포기하도록 하지는 못했다. 그리고 저들은 죽어가면서도 의로운 자들이 부활할 때 불멸의 몸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 확실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승리하였다. 저들은 인간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었다. 한 순간도 감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의 병기(전신갑주)로 저들을 무장하여 투쟁할 준비를 갖추고 있었는데, 단지 영적 원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신앙을 포기하던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라”고 끊임 없이 울부짖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난 사단을 대항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소수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강인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절반은 세상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겁을 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안전에 훨씬 소중한 자들이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동안 저들은 연합하였고 사랑하였다. 저들은 하나님 안에서 강하였다. 죄인들은 저들과 함께 연합하도록 용납되지 않았고, 속이는 자들이나 속임을 당한 자들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된 사람들만 그분의 제자들이 될 수 있었다. 저들은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처럼 되기를 바랐다.

(눅 22:61-62, 요 18:10, 행 3장 4장 참고. 더 많은 연구를 위해 백과사전 “개혁”이라는 주제를 연구할 것.)

제21장

교회가 세상과 연합함

그 때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저들이 무엇을 얻었는지에 대해 서로 의논하였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겁쟁이들로 진리를 수락하지 못하도록 해서 몇몇 사람을 얻은 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아주 겁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진리를 받아들였고, 진리를 받아들이자마자 저들에게 있었던 두려움이나 겁내던 것들이 사라졌고, 저들의 형제들이 죽어가면서도 확고하며 오래 참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과 천사들이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들은 담대하게 되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저들의 목숨을 바쳐야 되었을 때, 저들의 신앙을 지키고 오래 참았으며, 저들을 죽이는 살인자들도 떨게 만들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영혼들을 멸하는 더욱 성공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요, 끝 날에 가서 더욱 확실해 질 것이라고 하였다. 저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을 가했으나 저들의 확고부동함과 밝은 소망은 저들을 오히려 더욱 격려했고, 가장 연약한 자들로 더욱 강하게 하고, 화형주의 불꽃도 저들의 기세를 꺾을 수 없음을 보았다. 그들을 죽이는 살인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고상함을 보이자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보여준 정절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임하는 것을 보면서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 사단은 좀 유화한 방법을 동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는 성경의 교리들을 더럽혔고, 수 백 만의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었던 전통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의 증오를 가라앉히고 이 문제에 대해 그토록 강하게 핍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교회로 하여금 저들을 한 때 성도가 되도록 구원해 준 신앙에 대해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전통에 대해 만족하도록 이끌었다. 그가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호의와 영예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 이익이 된다고 가정하도록 하였는바, 교회는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교회가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과 세상의 친구 된 자들을 몰아내는 바른 진리를 전파하기를 중단하자 교회는 점점 그 능력을 상실해 갔다.

교회가 박해의 불꽃이 교회를 향해 붙여졌을 때처럼 구별되었거나 독특하지 않았다. 어찌 금이 그토록 희미하게 되었을까? 어찌 그리 그토록 정교한 금이 변하였을까? 나는 교회가 거룩함과 독특한 성격을 항상 유지했었다더라면 제자들에게 임했던 성령이 저들과 함께 있었을 것임을 보았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마귀가 책망을 받고 내어쫓김을 당했을 것이요, 교회는 교회의 원수들에게 힘 있고 두려운 대상이 되었을 것이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는 많은 무리를 보았는데, 하나님은 저들을 그분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저들을 인해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단은 신앙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고, 사람들이 저들을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는 저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분의 못 박히심과 부활을 믿게 하고자 하였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믿었으나 떨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믿는 믿음이 저들로 선한 일

을 하도록 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러한 사실을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자기 부정을 따르도록 이끌지 않는다면, 심적으로 불안해하지 않았는데 이는 저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만 가지고 있었지 저들의 마음은 아직도 육적이요, 저들이 아무런 공언을 하지 않는 것보다 저들을 그를 섬기는 일에 더욱 잘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저들의 결함들을 감춘다. 저들은 성화되지 않는 특성들과 정복되지 않은 악한 정욕을 지닌 채 살아간다. 이로 인해 불신자들로 저들의 불완전함을 예수님 탓으로 돌리게 하고, 그분을 비난하고, 순결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신앙을 공언하는 자들을 모욕하는 경우들을 제공한다.

목사들은 육적인 공언 자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부드러운 것들을 설교한다. 이것은 바로 사단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것들이다. 저들은 예수님과 성경의 예리한 진리들을 가르치기를 두려워하는데 이는 저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 육에 속한 공언 자들이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교회에 있는 것보다 더 적합하지 않았으나 그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교회에 남아있어야만 했다. 예수님의 종교가 세상 사람들의 눈에 인기가 있는 것 같고 영예를 얻는 것처럼 보여 졌다. 저들이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서 더욱 높임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침을 받았다. 이러한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아주 다른 것이다. 그분의 가르침과 세상의 가르침은 함께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 그분은 따르는 자들은 세상을 버려야만 한다.

이러한 부드러운 가르침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로부터 기인된 것이다. 저들은 계획을 세웠고, 명목상의 공언 자들이 실천해 나갔다. 위선자들과 죄인들이 교회와 연합했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우화적인 것들이 가르쳐졌고, 저들은 기꺼이 받아들였다. 그러나 진리가 진리의 순결한 그대로 전파된다면 위선자들과 죄인들을 몰아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세상과 별 차이가 없다. 나는 교회의 교인들로부터 거짓 가면을 벗길 수만 있다면, 그 안에 있는 불법과 사악함과 부패가 나타날 것이요, 가장 겁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저들의 바른 이름, 저들 아버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인데 이는 저들이 그의 일들을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하늘에 있는 천군들은 역겨운 마음으로 이러한 광경을 지켜보고 있으나, 하나님은 거룩하고 중요했던 교회를 위한 기별을 가지고 계셨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교회 안에 철저한 개혁을 이룰 것이요, 위선자들과 죄인들을 제거해버릴 산 증거가 되살아날 것이요,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받도록 할 것이다.

(사 30:8-21, 약 2:19, 계 3장 참고)

제22장

윌리엄 밀러

나는 성경을 믿지 않는 농부의 마음을 움직여 예언을 연구하도록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분의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반복해서 선택된 그 사람을 찾아가 그의 마음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추어져 있던 예언을 깨닫도록 그의 마음을 열게 하였다. 진리의 사슬의 첫 번째 고리가 그에게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묘한 것으로 보며 찬사를 돌릴 때까지 연결된 다른 고리들을 찾아 연구하도록 하였다. 그는 진리가 연결된 완전한 사슬들을 보았다. 그가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여겼던 말씀이 이제 그의 눈앞에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펼쳐졌다. 그는 성경의 한 부분은 다른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았고, 어떤 한 부분을 이해하지 못했으나 다른 부분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을 설명해 준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기쁨과 깊은 존경과 경외심으로 대했다.

그는 예언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역사의 마지막에 살고 있으나 저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함을 보게 되었다. 그는 교회에 있는 부패상을 보며, 저들의 사랑이 예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게 되었고, 위로부터 오는 영예를 구하는 대신에 세상적인 영예를 추구하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자 하는 대신에 세속적 부를 추구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위선과 어두움과 사망이 도처에 편만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의 영(마음-역자)이 움직였다. 하나님께서 엘리사로 하여금 황소와 그의 농장을 떠나 엘리야를 따르도록 부르셨던 것처럼 그의 농장을 떠나도록 부르셨다. 두려움으로 윌리엄 밀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관한 신비를 펼쳐 보이기 시작했다. 그가 하는 모든 노력에서 힘을 얻었다. 그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예언에 이르기까지 이끌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을 선포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도록 했던 것처럼, 윌리엄 밀러 역시 그와 함께 연합했던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아들의 재림을 선포하였다.

나는 제자들 당시로 돌아가 사랑받던 제자 요한이 성취해야 할 특별한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보게 되었다. 사단은 이 일을 방해하기로 결심하고 요한을 없애버리기 위해 그의 종들을 이끌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기이하게 그를 보호하셨다. 요한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본 사람들은 크게 놀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을 확신했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 증거 하는 것이 참이라는 것을 알았다.

요한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은 다시 그의 생명을 노리기를 두려워했고, 그는 예수님

을 위해 고난을 당하도록 허락되었다. 그는 그의 원수에 의해 거짓으로 고발당했고, 곧 외로운 섬으로 유배되었는데, 바로 그곳에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에 이루어질 것들과 세상 끝까지의 교회의 형편을 보여주셨으며, 교회가 타락할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리고 결국에 가서 교회가 승리하려면 저들이 어떤 형편에 처해 있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보여주셨다. 하늘에서 요한에게 온 천사는 위엄이 있었다. 그의 용모는 하늘의 탁월한 영광으로 빛났다. 그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깊고 의미심장한 장면들을 보여주셨으며, 저들이 견뎌야 할 위험한 투쟁들을 그 앞에 보여주셨다.

요한은 저들이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희게 되고 단련되어, 결국 승리의 정복자가 되어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고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천사의 얼굴은 그가 요한에게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할 것을 보여주면서 기쁨과 영광으로 빛났다. 요한은 그가 교회가 마지막으로 구원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장면을 보면서, 깊은 감사와 경외심으로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자 하였다. 천사는 즉시 그를 일으키면서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네 형제들과 같은 동료 중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임이니라”(계 19:10 NKJV)고 부드럽게 말하였다. 천사는 요한에게 하늘 도성의 모든 화려함과 번쩍이는 영광을 보여주었다. 요한은 도성의 영광으로 인해 도취되어 압도되었다. 그는 천사가 조금 전에 했던 견책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자 하였으나, 다시 천사는 부드러운 견책을 말할 하면서 “보라, 그리하지 말라. 나는 이 책이 말하는 것을 지켜 온 네 형제들, 선지자들과 같은 동료 중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다.

설교자들과 사람들은 요한 계시록을 신비의 책이라 생각하고 거룩한 성경의 다른 부분보다 중요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 그러나 나는 이 책이 말세에 살게 될 사람들의 특별한 유익을 위해 주어진 계시로, 저들이 처해 있는 참된 위치와 저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계시임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의 마음을 예언을 연구하도록 인도하셨고, 그에게 계시록에 관한 큰 빛을 주셨다.

사람들이 다니엘의 계시를 이해했다라면 요한의 계시를 더 잘 이해했을 것이다. 그러나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언에 대해 그의 마음을 열어 확실히 깨닫게 하여 다니엘의 계시와 요한의 계시와 성경의 다른 부분이 서로 조화됨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거룩하고 두려운 경고의 말씀이 자리 잡게 하시고, 인자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셨다. 그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고 엄숙한 확신이 있었으며, 목사들과 백성들과 죄인들과 무신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심판의 날에 설수 있는 준비를 하였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윌리엄 밀러가 그의 일을 할 때 함께 동행했다. 그는 확고하고 불굴의 사람이었다. 그는 그에게 위탁된 진리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전파했다. 죄악으로 점철된 세상과 세속에 속한 냉담한 교회는 이러한 그의 열정과 맞서 싸우기에 충분했으며, 그로

하여금 고생과 가난과 고통을 즐겨 견디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였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과 세상과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공격을 계속했으나, 그가 초청받아 어디를 가든 지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가 전한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였다.

(왕상 19:16-21, 단 7장-12장, 계 1장, 14:7, 19:8-10, 22:6-10 참고)

제23장

첫째 천사의 기별

나는 하나님께서 1843년에 시간의 선포에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 저들이 결정해야 할 시험하는 시점에 서도록 하기 위한 그분의 계획임을 보았다. 목사들이 예언적인 기간의 정확성을 깨닫고 확신을 가지게 되었으며, 저들의 자만심을 버리고, 봉급 받는 것도 쳐놓고, 저들의 교회를 떠나 도처로 다니면서 이 기별을 전파하였다. 그러나 하늘에서 온 기별이 그리스도의 종들(목사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를 거의 찾을 수 없게 되자, 그 사업은 설교자들이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위탁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농장을 떠났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저들의 공장과 상점을 떠났다. 전문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도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인기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저들이 하는 일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목사들도 저들이 가지고 있던 분파적인 견해와 감정을 버리고 예수님 재림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 연합했다. 기별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람들이 감명을 받았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해 울며 기도했고, 저들의 생애 가운데 정직하지 못했던 것들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자 애썼다.

부모들은 저들의 자녀들에 대해 깊이 염려하였다. 기별을 받은 자들은 회심하지 않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위해 일했으며, 저들의 영혼이 엄숙한 기별로 무거운 부담을 느끼면서 인자의 오심을 위해 준비하도록 경고하고 탄원했다. 가장 어려운 경우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경고로 마음에 강력한 증거를 제시함에도 굴복하지 않는 경우였다. 이러한 영혼을 정결케 하는 일은 세상 사물을 사랑하는데서 저들의 마음을 멀리하게 하고, 전에는 한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헌신의 경험을 하도록 이끌었다. 수천의 사람들이 윌리엄 밀러가 전한 기별을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 엘리야의 정신과 능력으로 일어났다.

엄숙한 이 기별을 전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선두주자였던 침례요한처럼 나무뿌리에 도끼를 올려놓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라고 하는 기별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강압 감(부담)을 느꼈다. 저들의 증언은 교회를 일깨우고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 같았고, 그로 인해 저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것 같았다. 다가오는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하는 엄숙한 경고의 목소리를 높이자 교회들과 연합했던 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기별을 받아들였고, 저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으며, 심한 번민으로 저들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성령)이 저들 위에 임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는 기별을 전하는데 도왔다.

정해진 시간을 전파하자 모든 부류의 사람들,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들로부터 시작하여,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무모한 죄인들에서까지 강한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하는 말이 위선적인 목사들과 대담하게 조소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었다. 그 어떤 사람도 저들이 믿고 있는 예언적 시간이 마쳐져가고 있으며 그 해가 정해졌다는 점과, 그리스도의 오심이 심히 가깝고, 곧 문 앞에 이르렀다는 징조들을 지적해 주는 성경절로 가르침 받거나 들으려 하지 않았다.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가깝다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반대를 하지는 않지만, 정해진 시간을 전파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했다. 모든 것을 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읽으셨다. 저들은 예수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좋아(사랑)하지 않았다. 저들은 저들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이 그 시험을 견딜 수 없을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는 저들이 그분이 놓은 겸손의 길을 걷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거짓 목자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고 서있었다. 확신케 하는 능력으로 전파된 진리는 사람들을 불러 일깨웠고, 간수처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얻으리이까”하고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자들이 진리와 백성들 사이에서 진리로부터 떠나도록 부드러운 기별을 전하였다. 저들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연하여 평안이 없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전했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헌신하지 않는 목자들의 옷에 영혼들의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았다. 쾌락을 좋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나 만족해하는 자들은 저들의 육신적인 안정감에서 일깨움을 받지 못했다.

많은 목사들이 저들 자신을 구원하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 기별을 받아들여려고 하는 자들을 방해하였다. 영혼들의 피가 저들 위에 있다. 전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방해하기 위해 연합하였다. 저들은 윌리엄 밀러와 그 사업에 동참한 자들을 핍박했다. 그가 끼치는 감화력에 손상을 주는 거짓이 유포되었고, 어떤 때는 그가 듣는 이들의 마음을 쪼개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증거 하면 그를 향한 강한 증오가 일어나 그가 집회 장소를 떠나려할 때 그의 목숨을 제거하기 위해 불량자들이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내졌고, 저들이 그를 성난 폭도들로부터 멀리 안전하게 인도하기도 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마쳐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장 헌신한 사람들은 이 기별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저들은 이 기별이 하나님에게서 온 기별이요 적절한 때에 전파되었다는 것을 믿었다. 천사들은 이 하늘에서 온 기별의 결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으며, 교회가 이 진리에서 돌이켜 거절하자, 슬픔 가운데 예수님과 의논했다. 그분은 교회로부터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면서 증거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은 소중한 자들을 충실하게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저들에게 비쳐져야 할 다른 빛이 아직 비쳐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사랑하고, 저들의 사랑을 그분께 드리고, 그분을 이 세상에서는 비교할 것이 없는 분으로 느꼈더라면, 그분의 오심에 대해 맨 먼저 기쁨으로 전파(환영)하였을 것임을 보았다. 그러나 저들의 주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승리를 거두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 면전에 그분의 공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도 별로 없고, 그분의 재림에 대해 별로 원치 않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 가운데 저들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들을 시험해 보고자 하셨다. 그분의 손으로 예언적인 기간 산정에 대한 실수를 덮어 가리셨다. 주님의 오심을 열망하는 자들이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했고, 시간(시기)에 대해 가장 강력한 반대를 주장하던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학자들도 그러한 실수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이 커다란 실망을 경험하도록 계획하셨다. 시간은 지나갔고, 저들의 구주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던 자들은 슬퍼하며 실망에 빠지게 되었고, 주의 오심을 좋아하지 않았던 자들과 두려움 때문에 기별을 수용했던 자들은 저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에 대해 기뻐하였다. 저들의 공언은 저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저들의 삶이 정결케 되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치면서 저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잘 나타나게 되었다. 저들이 주의 오심을 사랑하고 간절히 기다리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실망에 처해 있을 때 저들을 향해 비소하는 처음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분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시련의 때에 주춤하며 뒤로 돌아갈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시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보았다.

예수님과 모든 하늘의 천군들이 저들이 사랑하는 주님을 보기 위해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을 동정과 사랑으로 바라보셨다. 천사들이 저들 위에서 저들이 당하는 시련의 때를 견딜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하늘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를 소홀히 한 자들은 어둠 가운데 처해 있었고,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는 저들이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신실한 자들, 주께서 왜 오시지 않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어서 실망당한 자들을, 주께서 어둠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 다시 저들은 예언적인 기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도록 인도되었다. 계산적인 착오를 가리고 있었던 주의 손이 거두어졌고, 저들의 실수가 설명되었다. 저들은 예언적인 시간이 1844년에 미치는 것을 보았고, 1843년에 예언적인 기간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었던 동일한 증거들이 예언적인 기간이 1844년에 가서야 끝난다는 것을 증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빛은 저들의 입장에 대한 빛을 비추어주었고, “계시가 지연되면 기다리라”고 하신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라는 사랑이 참으로 기다리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보여주게 할 “지체되는 계시”를 묵과하게 하였다. 다시 저들에게 정해진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저들이 1843년에 저들의 믿음을 보였던 열의와 열성을 가지기 위해 저들이 당한 실망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인해 기뻐 날뛰었고, 저들이 기만이라고 부르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선견지명과 지혜에 대해 저들 스스로

자화자찬하였다. 저들은 저들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권고를 거절한다는 사실과 하늘에서 내려준 기별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더하기 위해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연합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기별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억압(학대)을 당했다. 잠시 두려움이 저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저들은 저들의 마음에 있는 느낌대로 행하지 않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저들의 마음의 느낌이 어떤 것인지 나타내게 되었다. 저들은 믿는 신도들이 전파해야 되겠다고 강력하게 느낀 증거 즉, 예언적인 기간이 1844년까지 연장된다는 증거를 잠잠케 하고자 하였다. 분명하게 저들의 실수를 설명하고, 저들의 주님께서 1844년에 오실 것으로 기대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하는 자들은 저들이 제시한 강력한 논리에 대해 반박할 만한 것을 제시할 수 없었다. 교회들이 가지고 있던 분노는 저들을 향한 불을 붙이게끔 했다. 저들은 그 어떤 증거도 듣지 않고, 저들의 증거를 교회 안에서 증거 하지 못하도록 하여, 다른 사람들도 그 기별을 듣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결심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교회에서 쫓겨남을 당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셨고, 그분의 얼굴에서 발하는 빛으로 인해 기뻐하였다. 저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단 8:14, 함 2*1-4, 말 3장-4장, 마 24:36, 계 14:6 참고)

제24장

둘째 천사의 기별

교회들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려하지 않았고, 저들이 하늘에서 온 기별을 거절하면서 저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떠났다. 저들은 저들의 힘을 의지하였고, 첫째 천사의 기별을 반대하므로, 둘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빛)을 깨달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핍박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자들은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고 하는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무너진 교회들”로부터 떠났다.

둘째 천사의 기별의 전파가 마쳐지는 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커다란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비치는 것을 보았다. 그 빛줄기는 태양빛처럼 밝게 보였다. 나는 천사들이 “보라! 신랑이로다! 너희는 가서 그를 맞이하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다.

둘째 천사의 기별에 힘을 더해 주기 위해 밤중 소리의 기별이 주어졌다. 낙심한 성도들을 일깨우고, 저들 앞에 있는 커다란 사업을 위해 준비하도록 하늘로부터 천사들이 보내어졌다. 학식이 높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맨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은 아니었다. 천사들은 겸손하고 헌신한 자들에게 보내어졌고, “보라, 신랑이로다. 가서 맞이하라”는 기별을 외치도록 강권하였다. 이러한 기별을 위탁받은 자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서둘러 이 기별을 전파하고 낙심한 형제들을 일깨웠다. 이 외침은 사람의 지혜나 학문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기별을 듣는 그분의 성도들은 이 기별을 거절할 수 없었다. 가장 영적인 사람들이 이 기별을 맨 먼저 받아들였고, 전에 이 사업을 이끌었던 사람들이 맨 마지막으로 이 기별을 받아들여 “보라, 신랑이로다. 가서 그를 맞이하라”는 기별을 전파하는데 합세하였다.

세상 방방곡곡에서 둘째 천사의 기별에 빛이 더해졌고, 이 외침은 수천의 사람들의 마음을 녹였다. 도시에서 도시로 촌락에서 촌락으로 전파되어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일깨움을 받을 때까지 전파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고, 살아있는 증거를 가진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타락한 교회들로부터 떠났다. 밤중 소리의 기별로 인해 위대한 사업이 성취되었다. 그 기별은 마음을 살피게 하였고, 믿는 신도들로 하여금 저들 스스로 살아있는 경험을 하도록 이끌었다. 저들은 서로를 의존할 수 없음을 알았다.

성도들은 금식과 각성과 거의 쉬지 않고 기도들 드림으로 저들의 주님을 간절히 기다렸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에 반기를 들며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동안 어떤 죄인들은 두려움으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도 있었다. 저들은 조롱하고 비웃었으며 도처에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악한 천사들이 저들 주위에서 기뻐하며, 저들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였고, 하늘로부터 온 모든 빛을 거절하도록 하여, 저들을 저들의 멧에 몰아매려고 하였다.

저들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을 전하거나 이 기별과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았다. 저들은 기다리는 자들의 겸손과 깊은 헌신과 그 증거에 힘을 가해주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면서 그 진리를 받아들인다고 공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저들은 회심하지 않았다. 저들은 준비되지 않았다. 엄숙함과 기도의 정신이 성도들 사이에서 편만이 느껴졌다. 거룩한 엄숙함이 저들 위에 있었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천사들이 그 결과를 주시하고 있었고, 하늘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을 도와주었고, 이 세상 사물로부터 돌이켜 구원의 샘물에서 많은 것을 얻도록 이끌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때 받으신바 되었다. 예수님께서 저들을 기쁨으로 바라보셨다. 그분의 형상이 그들 안에서 재현되었다. 저들은 온전한 희생과 완전한 헌신을 이루었으며,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저들은 슬프게도 실망을 다시 맛보게 되어 있었다. 저들이 바라던 시간, 구원의 시간은 지나갔다. 저들은 아직도 이 땅에 있었고, 저주의 흔적은 이토록 현저할 때는 없었던 것 같았다. 저들은 저들의 애정을 하늘에 두었고, 불멸의 구원을 맛보고자 하는 달콤한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저들의 소망은 실현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 위에 임했었던 두려움은 단번에 사라지지 않았다. 저들은 실망당한 자들에 대하여 즉시 의기양양해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지 않게 되자, 저들이 느꼈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조소와 조롱과 비웃기를 시작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시련과 시험을 당했다. 세상은 저들을 향해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산 자를 변화시켜 왕국으로 데리고 가서서 영원토록 살 것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자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할 때처럼 느꼈다.

(마 24:36, 25:6, 요 20:13, 계 14:8 참고)

제25장

재림 운동이 예증됨

나는 줄로 함께 묶여진 듯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았다. 이 부류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암흑 가운데 있었다. 저들의 눈은 땅 아래를 향해 보고 있었고, 저들과 예수님과 아무런 연결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이 사람들과는 달리 개인적으로 흠어져 있는 무리들을 보았는데 저들의 얼굴에 빛이 있었고, 저들의 눈은 하늘로 향해 있었다. 태양에서 오는 빛줄기 같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빛줄기가 저들 위에 임했다. 한 천사가 유심히 보라고 나에게 명했다. 그리고 악한 천사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반면, 천사들이 빛을 가진 사람 하나하나를 돌보는 것을 보았다. 천사가 발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 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하였다.

이 부류들에게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게 하는 영광스러운 빛이 임했다. 암흑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기뻐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하늘에서 온 빛을 거절하고, 저들을 타락하게 하는 속임수라고 말하였다. 빛은 저들을 지나쳤고, 저들은 암흑 가운데 있었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저들에게 비쳐진 소중한 빛이 더욱 증가되기를 기쁨으로 열망하였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는 동안 거룩한 기쁨의 빛줄기로 저들의 얼굴이 빛을 내었고, 저들의 음성이 천사들의 음성과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들이 이러한 외침을 전하자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깨와 옆구리로 밀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 때 거룩한 빛을 사모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묶고 있는 줄을 끊고 그 가운데서 분리되어 따로 나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저들을 묶고 있는 끈을 끊고 나오자 저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다른 부류 가운데 속한 사람들이 저들 사이를 지나 다녔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은 아첨하는 말로 또는 성난 모습으로 위협하는 몸짓을 하며 풀린 끈을 다시 묶으며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빛 가운데서 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진리를 거절하고 다른 사람들도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는 목사들이요 지도자들이라고 했다.

나는 깊은 관심과 열렬한 소망으로 위를 바라보며 빛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저들을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기를 확고고대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곧 구름이 일어나 빛 가운데 기뻐하는 자들을 덮었고, 저들의 얼굴은 슬픈 기색이 되었다. 나는 왜 이런 구름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이것이 저들이 당하게 되는 실망임을 보여 주었다. 저들의 구주가 나타나시기를 고대했던 때가 지나갔고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실망은 저들 위에 임했고, 내가 전에 보았던 목사들과 지도자들은 기뻐하였다. 빛을 거절했던 자들

은 크게 기뻐하였고, 또한 사단과 그의 천사들 역시 저들 주위에서 매우 기뻐하였다.

그 때 또 다른 천사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실망한 무리들에게 한 줄기의 빛이 비쳤고, 그분의 나타나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저들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시켰다. 그때 수많은 천사들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외친 둘째 천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 천사들이 둘째 천사와 함께 “보라, 신랑이로다. 가서 맞이하라!”라고 하는 기별을 함께 전하는 것을 보았다. 음악소리와 같은 천사들의 목소리는 도처에 전파되는 것 같았다. 저들에게 나누어준 빛을 소중히 간직한 자들 위에 탁월하게 밝고 영광스러운 빛이 비치었다. 저들의 얼굴은 탁월한 영광으로 빛났고, 천사들과 함께 “보라,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기별을 전했다. 그리고 저들이 연합하여 이 다른 부류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자, 빛을 거절한 자들은 저들을 밀쳐내면서 성난 얼굴을 하며 경멸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퍽박을 받는 자들 위에서 날개를 치고 있었고, 또한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저들 주위에 암흑이 임하게 하여 하늘로부터 온 빛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때 밀쳐냄을 당하고 비소를 당한 자들에게 “그들에게서 나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저들을 묶고 있는 끈을 끊고 나와 그 음성에 순종하고, 암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떠나 전에 끈을 끊고 나온 자들과 합세하여 저들과 함께 기쁨으로 저들의 목소리를 연합하였다. 나는 아직도 암흑 가운데 있으면서 진지하게 고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의 음성을 들었다. 목사들과 지도자들이 이 다른 부류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끈을 더욱 단단하게 묶고 있었으나 그래도 나는 이 진지한 자들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때 나는 기도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자들을 향해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뻗치는 것을 보았다. 저들이 진지하게 하늘을 쳐다보는 자들에게 주어진 대답은 “그들 가운데서 나와 따로 있으라”는 것이었다. 나는 개인들이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것을 보았고, 결국 저들을 묶고 있는 끈을 끊는 것을 보았다. 저들을 더욱 단단히 묶으려고 하는 노력을 저항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라고 반복하는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개인들이 계속해서 암흑을 떠나 나왔고, 자유롭게 된 무리들과 연합하였는데, 저들은 이 땅의 높은 광활한 곳에 있는 것 같았다. 저들은 위를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저들 위에 임했고,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저들은 연합되었고, 하늘로부터 온 빛으로 감싸여 있는 것 같았다. 이 사람들 주위에 빛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부류와 특별히 연합된 사람들은 아니었다. 저들에게 임한 빛을 소중히 여기는 자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를 바라보았다. 예수님은 저들을 유쾌히 인정하시는 표정으로 바라보셨다. 저들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대했다. 저들은 그분의 나타나심을 갈망하였다. 저들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 한 순간도 지체하지 않았다. 다시 나는 구름이 기다리고 있는 무리 위를 덮는 것을 보았다. 나는 저들의 피곤한 눈으로 밑을 향해 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났는지 물어보았다. 나와 동행하는 천사가 “저들은 다시 저들이 기대했던 것에 대해 실

망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아직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저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통을 당해야 하고, 더 큰 시련을 참고 견뎌야 한다. 저들은 사람들에게서 받은 오류들과 관습들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온전히 돌아와야 한다. 저들은 정화되어 정결케 되고 희게 되어 단련을 받아야 한다. 심한 시련을 견뎌낸 자들은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예수님은 기뻐하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바라는 것처럼 불로써 이 땅을 정결케 하시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 나는 예언적인 기간에 대한 저들의 계산은 옳았음을 보았다. 1844년에 예언적인 기간은 끝이 났다. 저들의 실수는 성소가 무엇을 의미하며, 정결케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데 있었다. 예수께서 이 날들의 끝에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나는 다시 기다리다가 실망한 무리들을 보았다. 저들은 슬퍼 보였다. 저들은 저들의 믿음의 증거들을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예언적인 기간의 계산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어떤 오류도 찾을 수 없었다. 때는 성취되었는데 저들의 구주는 어디에 계신단 말인가? 저들은 그분을 잃어버렸다.

나는 제자들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해서 실망하는 제자들을 보게 되었다. 마리아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고 말했다.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저들의 주님을 살아나셨고, 저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예수께서 실망한 자들을 깊은 연민으로 바라보시며 천사를 보내셔서 저들의 마음을 그분을 찾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그분이 계신 곳을 따라가도록 하심을 보았다. 그리하여 성소는 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였고, 성소 정결을 위해 하늘에 있는 성소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구속을 이루셔야 하며, 그분의 아버지로부터 왕국을 받고난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저들을 그분이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영원히 그곳에 그분과 함께 살게 하셔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셨다. 제자들의 실망은 1844년 당시 주님을 기다렸던 자들이 당한 실망을 잘 설명해 준다. 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기쁨에 찬 제자들은 예수께서 왕국을 물려받아 현세의 황태자로 치리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저들은 커다란 희망으로 저들의 왕을 따라갔다. 저들은 아름다운 종려가지를 꺾었고, 저들의 겼옷을 벗어 열성을 다해 길 위에 펼쳐 놓았다. 어떤 자들은 그분 앞서 가며, 또는 어떤 자들은 그분의 뒤를 따르면서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리로다”라고 외쳤다. 이러한 흥분은 바리새인들을 거슬리게 하였다. 그래서 저들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나무래 주기를 바랐다. 그러나 저들에게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고 하셨다.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어야 했다. 하지만 제자들이 쓰디쓴 실망을 맛보아야 할 것을 보았다. 며칠 후에 저들은 예수님을 따라 갈바리로 갔고, 그곳에서 잔인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상하신 모습을 보았다. 저들은 그분의 고통스러운 죽음과 무덤 속에 장사되는 것을

목격하였다. 저들의 마음을 슬픔에 잠기게 되었다. 저들의 기대는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저들의 소망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자 저들의 소망이 소생되었다. 저들은 저들의 구주를 잃어버렸으나 이제 다시 그분을 찾았다.

1844년에 주님의 오심을 믿었던 사람들이 당한 실망은 제자들이 당한 실망과 동일한 것이 아님을 보았다.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의 예언은 성취되었다. 그것들은 정확한 시간에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대로 그 일이 성취되었다.

(단 8:14, 마 21:4-16, 막 16:6-7, 눅 19:35-40, 요 14:1-3, 20:13, 고후 6:17, 계 10:8-11 참고)

제26장

또 다른 예증

나는 온 하늘이 이 땅에서 시작된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예수께서 강하고 힘 센 천사를 명하여 지상에 있는 거민들에게 그분의 두 번째 나타나심을 위해 준비하도록 경고하라고 보내셨다. 나는 힘 센 천사가 하늘에 있는 예수님 앞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탁월하게 환한 영광의 빛이 그를 앞서 갔다. 그의 사명은 그분의 영광으로 세상을 환하게 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 경고하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수많은 무리들이 빛을 받아들였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엄숙한 것처럼 보였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황홀해 하는 것 같았다. 빛은 모든 사람들에게 비쳤으나 어떤 사람들은 단지 그 빛의 영향 아래만 있었지 마음으로 그 빛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하늘로 향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많은 사람들은 커다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목사들과 사람들이 악과 더불어 연합하고, 힘 센 천사가 비치는 빛을 단호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빛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서 빠져나와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였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빛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멀리하고자 분주하게 돌아다녔다. 빛을 거절한 무리들은 암흑 가운데 있었다. 천사가 하늘에서 기원된 기별이 저들에게 소개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품성이 어떻게 계발되는지에 대해 기록하기 위해 천사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경멸과 조소와 증오심을 가지고 하늘에서 온 기별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천사는 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에 수치스러운 기록을 하였다. 온 하늘은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는데 이는 예수님이 그분을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의해 무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믿는 자들의 실망을 보았다. 저들은 기대하던 시간에 저들의 주님을 보지 못했다. 미래에 대해 감추고 그분의 백성들로 결정하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시점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사단은 아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미래에 있어서 훨씬 앞서 가도록 이끌고 있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기(시)간에 대해 전과하므로 마음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현세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사의 기별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하늘 기별을 멀리한 자들과 연합하여 실망 당한 자들을 조롱하였다. 나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의논하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형편을 기록하였다. 정해진 시간이 지남으로 저들을 시험하고 입증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저울에 달려 부족 됨이 발견되었다. 저들은 큰 소리로 주님을 믿는다고 공언은 하였으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실패하였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공

언하는 자들의 형편에 대해 매우 기뻐하였다. 그는 그들을 그의 울무로 가두어 놓고 있었다. 그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바른 길에서 떠나도록 인도했으며, 저들은 다른 방법으로 하늘에 올라가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무리들이 시온에 있는 죄인들과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위선자들과 함께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았는데, 부정한 자들이 거룩한 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을 보고자 간절히 열망함으로 마음이 불타는 자들은 저들의 공언하는 형제들로부터 그분의 오심에 대해 말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를 받았다. 천사들은 이 모든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는 남은 무리를 동정하였다. 다른 힘센 천사가 땅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에 글씨를 쓴 것을 쥐어 주셨는데 그가 땅에 내려오면서 소리치기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라고 했다. 그 때 나는 실망당한 자들이 다시 용기를 내며 저들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저들의 주님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것처럼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저들의 표정에 깊은 슬픔의 흔적이 있음을 보았다. 실망당한 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저들은 지체되는 시간에 처해있다는 것을 알았고, 저들은 계시가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참아 기다려야 함을 알았다. 저들이 주님이 1843년에 오실 것으로 바라게 했던 동일한 증거들이 1844년에 저들의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이끌었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843년에 저들의 믿음을 나타내게 했던 힘을 가지지 못함을 보았다. 저들의 실망은 저들의 믿음을 약화시켰다. 그러나 실망당한 자들이 둘째 천사의 외침에 가담하자, 하늘의 천군들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으며, 기별이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였다.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실망당한 자들을 조소하고 경멸하는 것을 보았다. 조롱하는 자들의 입술에서 “아직 올라가지 못했구만!”이라고 말할 때 천사들은 그 말을 기록했다. 천사들은 “저들이 하나님을 조롱했다”라고 했다.

나는 엘리아가 승천할 때를 보게 되었다. 그의 걸음이 엘리사에게 떨어졌고, 악한 아이들(젊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조롱하면서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했다. 저들은 하나님을 조롱한 것이며, 현장에서 형벌을 받았다. 저들은 저들의 부모들로부터 이런 것을 배웠다. 성도들의 승천에 대해 비웃고 조롱한 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다른 천사들을 신속하게 보내어 시들어가는 그분의 백성들의 믿음을 부흥시키고 강화시키고, 둘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도록 준비시키고, 하늘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이해시키도록 하셨다. 나는 이 천사들이 주님으로부터 커다란 능력과 빛을 받고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그분의 사업을 이루도록 둘째 천사를 도우라는 명령을 이루기 위해 신속히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천사가 “보라 신랑이로다. 가서 그를 맞으라!”고 외치자 커다란 빛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비치었다. 그 때 실망당한 자들이 일어나 둘

째 천사와 연합하여 “보라 신랑이로다. 가서 그를 맞으라!”라는 기별을 전하는 것을 보았다. 그 천사들로부터 발하는 빛이 도처에 있는 어둠을 뚫고 들어갔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이 빛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그 기별이 의도된 원래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였다. 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싸우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속였고, 그 빛과 능력으로도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서 오신다고 믿게 할 수 없다고 했다. 사단이 길에 장애물을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그 빛에서부터 돌이키는 일을 계속 했지만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들이 해야 할 일을 계속했다. 그 빛을 받아들인 자들은 매우 행복해 보였다. 저들은 저들의 눈을 하늘에 고정시켰고,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갈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커다란 고민 가운데 울며 기도하고 있었다. 저들의 눈을 저들 자신을 보는 것 같았고, 감히 하늘을 보려고 하지 않았다.

하늘에서 온 소중한 빛은 저들에게서 어둠을 몰아냈고, 좌절에 빠진 저들을 바라보고 있던 눈을 위로 향하게 했고, 감사와 거룩한 기쁨이 저들의 모든 모습에서 나타났다. 예수님과 천사의 무리들은 신실하게 기다리는 자들을 인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첫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하고 반대한 자들은 둘째 천사의 기별을 잃어버렸고, “보라. 신랑이로다. 가서 맞이하라”는 기별과 함께하는 능력과 영광으로 유익을 얻을 수 없었다. 예수님은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저들을 떠나셨다. 저들은 그분을 경시하고 그분을 거절했다. 그 기별을 받아들인 자들은 영광의 구름에 싸여 있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다렸고, 깨어 있었고, 기도했다. 저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 할까봐 크게 두려워했다. 나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이 거룩한 빛을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차단하고자 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기다리는 자들이 빛을 소중히 여기는 한, 그리고 저들의 눈을 이 땅에서 돌려 예수님께 향하고 있는 한, 사단에게는 이 소중한 빛을 저들에게서 차단할 힘이 없었다. 하늘에서 온 기별은 사단과 그의 천사들을 분노하게 하였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을 하나 그분의 오심을 경시한 자들은 신실하고 신뢰하는 자들을 경멸하고 비웃었다. 그러나 한 천사가 저들의 공언하는 형제들로부터 받은 모든 모욕과 모든 무시와 모든 학대를 일일이 다 기록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보라. 신랑이로다!”는 기별을 외쳤고, 예수님의 오심을 사랑하지 않는 형제들, 그리고 그분이 재림하실 때 살기 위해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떠났다. 나는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의 오심을 멸시하는 자들에게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돌리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들을 부정한 자들에게서 불러내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셨다. 기별들에 순종하는 자들은 자유로웠고 서로 연합하였다. 거룩하고 탁월한 빛이 저들에게 비쳤다. 저들은 세상을 포기하고, 세상을 향한 저들의 애정을 버렸고, 세상에 속한 모든 관심들을 희생했다. 저들은 세상의 모든 재물을 버렸고, 저들의 간절한 열망은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요, 저들의 사랑스런 구원자를 보는 것이었다. 신성하고 거룩한 기쁨이 저들의 용모에 나타났고, 저들 안에 내재하는 평안과 기쁨을 말했다. 예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명하여 가서 저들을 강화시키라고 하셨는데 이는 시련의 시간이 가까워 오기 때문이라고 하셨다. 나는 이 기다리는 무리들이 아직 저들이 시련을 받아야 할 만큼 받지 않았음

을 보았다. 저들은 오류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경고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선하심을 보았고, 또 기별을 반복해서 보내심으로 저들로 정해진 시간에 이르게 하셨고, 저들 스스로 자신을 열심히 살피며, 이교주의와 천주교회로부터 내려오는 오류들을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음을 보았다. 이 기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로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하고, 저들이 그분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고자 하셨다.

(왕하 2:11-25, 단 8:14, 합 2:1-4, 마 25:6, 마 25:6, 계 14:8, 18: 1-5 참고)

제27장

성소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라린 실망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기대하던 시간에 저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저들은 저들의 구주께서 왜 오시지 않았는지 몰랐다. 저들은 예언적인 기간에 왜 끝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증거를 볼 수 없었다. 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의 성취를 실패했는가? 아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성취하셨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문을 닫으시고, 지성소의 문을 여셨고,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셨다.” 천사가 말하기를 “기다리는 모든 자들이 이 신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간이 실수를 한 것이지 하나님 편에 아무런 결함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성취되었으나 인간이 예언적인 기간이 끝날 때 성소가 정결케 될 것으로 믿고 지상을 바라본 것이 문제였다. 인간의 기대가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했다. 예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실망당한 자들에게 보내어 예수님께서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들어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특별한 속죄사업을 하시는 지성소로 저들의 마음을 향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천사들에게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그분이 이루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게 될 것을 보았고, 지성소에서 그분이 하셔야 할 일을 마치신 후에 왕의 권세를 받아 이 땅에 내려 오사 그분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소중한 영혼들을 그분이 계신 곳으로 데려 가실 것을 보았다.

그때 나는 1844년에 예언적인 기간이 끝나면서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보게 되었다. 나는 성소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마치시고 그 방문(성소)을 닫으시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기별을 듣고 거절한 자들 위에 커다란 암흑이 임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더 이상 그분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예수께서 소중한 옷을 입으셨다. 그분이 입은 옷 가장자리에는 종과 석류 모양이, 종과 석류 모양이 달려 있었다. 그의 어깨로부터 진기한 일을 하는 흥배가 내리워져 있었다. 그분이 움직이시자 흥배에 기록된 것 같기도 하고, 새겨진 것 같은 이름들이 확대되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을 내었다. 그분이 모든 옷을 차려 입으시고 그 머리에 면류관 같은 것을 쓰시자 천사들이 그분 주위를 감쌌고, 불 병거를 타시고 둘째 휘장으로 들어가셨다. 그 때 나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두 칸을 보라는 명령을 받았다. 휘장 혹은 문이 열려있었고, 나는 그 안에 들어가도록 허락되었다. 나는 첫 번째 칸에서 일곱 등이 있는 촛대를 보았는데 풍성하고 영광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또한 떡 상에 떡이 있는 것을 보았고, 또한 향단과 향로를 보았다. 이 칸에 들어있는 모든 기구들은 순금으로 된 것 같았고, 그 안에 들어간 분의 형상을 반사하였다. 두 칸을 나누는 휘장은 휘황찬란하게 보였다. 그 휘장은 각기 다른 색상과 재료가 되었고, 아름다운 가장자리가 있었고 금실로 된 천사를 상징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 휘장이 걷혀졌고, 나는 둘째 칸을 들여다보았다. 나는 그 안에서 순금으로 된 것 같은 법궤를 보았다. 법궤 맨 윗부분의 끝에 면류관들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있었다. 순금으로 되어 있었다. 법궤 안에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있었다. 법궤 양편에 사랑스러운 스랍이 저들의 날개로 그 위를 덮고 있었다. 저들의 날개는 높이 쳐들어져 있었고, 그분께서 법궤 앞에 서시자 예수님의 머리에서 그 날개가 서로 맞닿았다. 저들의 얼굴을 서로를 마주하며 법궤를 내려다보았는데 이는 모든 천군천사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스랍 천사 사이에 금 향단이 있었다. 그리고 성도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께 상달되면 그분은 향단에서 피어나는 감미로운 향기와 함께 그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린다.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색상을 지닌 연기와 같았다. 법궤 앞, 예수님이 서 계신 위에 탁월하게 밝은 영광이 있었는데 나는 그것을 볼 수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와도 같았다. 향이 아버지 앞에 올라가자, 그 탁월한 영광이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것은 다시 예수님으로부터 감미로운 향과 같은 기도를 올려졌던 자들 위에 비쳤다. 빛과 영광이 풍성하게 예수님께 부어졌고, 시은 좌 앞에 내려졌고, 영광이 성소 안에 가득 채워졌다. 나는 그 영광을 오래 바라볼 수 없었다. 그 어떤 말로 표현도 할 수 없었다. 나는 압도당하였고, 위엄과 영광스러운 광경에서 돌아섰다.

나는 두 칸으로 되어 있는 지상 성소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닮은 것이었다. 나는 그것은 지상에 있는 것으로 하늘의 모형이라고 들었다. 첫 번째 칸에 있는 기구들은 하늘에 있는 첫 번째 칸에 있는 것과 같았다. 휘장이 걷혀지고 지성소를 보게 되었는데 지성소에 있는 기구 역시 하늘에 있는 지성소의 것과 같았다. 지상에 있는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두 칸 모두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첫 번째 칸에서는 일년 내내 매일 봉사를 했고, 지성소에는 일년에 한번만 들어갔는데 그곳에 쌓여있는 죄악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예수님께서서 하늘 성소의 두 칸 모두에서 봉사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 자신의 피를 드리시므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죽음으로 인하여 더 이상 봉사할 수 없게 되지만, 나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 되심을 보았다. 희생과 제물들을 성소에 가져오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구주의 공로를 힘입을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의해 이러한 특별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로 인해 뒤를 돌아보고,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께서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도록 하셨다.

못 박히심으로 예수께서 갈바리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소리치셨을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것은 지상에서의 성소 사업이 영원이 마쳐지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성소에서 저들을 만나며 저들의 희생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 때 흘려진 예수님의 피를 그분 자신이 하늘 성소에서 드리게 되어 있다. 지상에 있는 제사장이 성소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일년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 다니엘 8장 14절에 언급된 2,300주야의 예언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중보와 성소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속죄를 이루기 위해 하늘에 있는 지성소

에 들어가셨다.

(출 25-28장, 레 16장, 왕하 2:11, 단 8:14, 마 27:50-51, 히 9장 계 21장 참고)

제28장

셋째 천사의 기별

성소에서의 예수님의 봉사를 마치시고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 서시면서, 그분께서 또 다른 힘 센 천사를 지상에 보내면서 셋째 기별을 주셨다. 그분께서 그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를 쥐어 주시고, 그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위엄과 능력으로 두려운 경고의 기별을 선포했는데 인간에게 주어진 것 가운데 가장 두려운 경고(위협적인 것)이었다. 이 기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장케 하고, 시험과 고뇌의 시간이 저들 앞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천사가 말하기를 “저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과 밀접한 싸움을 하게 될 것이다. 영생을 위한 저들의 유일한 희망은 굳게 서는 길이다. 저들의 목숨이 경각간에 있다 해도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한다”고 했다. 셋째 천사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면서 그의 말을 마쳤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을 반복하면서 그는 하늘 성소를 가리켰다.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의 마음은 자비가 아직 남아 있는 동안 무지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을 위해 마지막 중보를 하기 위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앞에 서 계신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이 속죄는 죽은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을 위한 중보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빛을 받지 못하고 무지 가운데 죄를 짓고 죽은 자들을 위해 중보 하신다.

예수께서 지성소의 문을 여시자 안식일에 대한 빛이 나타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던 것처럼, 저들이 그분의 율법을 지킬 것인지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입증을 해야 했다. 나는 셋째 천사가 위를 가리키면서 실망 당한 자들에게 하늘에 있는 지성소를 보여주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믿음으로 지성소로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다. 저들은 다시 예수님을 발견했고, 기쁨과 희망이 새롭게 솟아올랐다. 나는 저들이 과거를 돌이켜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전파하던 때로부터 1844년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걸 어온 여정을 살펴보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저들의 실망에 대해 설명된 것을 보았고, 기쁨과 확신이 저들 안에 다시 불붙게 되었다. 셋째 천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밝혀 주었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한 섭리 가운데 저들을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남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 법궤와 영광 가운데 쌓여있는 시은 좌를 보는 것이 묘사되었다. 예수님께서 법궤의 뚜껑을 여시니, 보라!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가 보였다. 저들은 살아있는 듯한 계명을 쳐다보았다. 그러나 저들이 십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이 살아있는 듯 하고, 다른 아홉 계명보다 더 밝은 빛이 그 계명에 비치고, 그 위에 영광의 광채가 돌리어 있는 것을 보며 놀라 뒤로 물러섰다.

저들은 그곳에서 안식일 계명이 폐지되었거나 주일 중 첫째 날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 그것은 엄숙하고 두려운 장엄함 가운데 번개치고 천둥치는 가운데 산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분의 거룩한 손가락으로 돌비에 기록한 그대로 있었다. “옛세 동안은 힘

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 칠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안식일”라고 했다. 저들은 십계명이 잘 보관된 것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들은 십계명이 여호와 가까이 모셔 있고, 그분의 성결(거룩)하신 그림자로 가리고 보호하신 것을 보았다. 저들은 저들이 십계명을 짓밟았으며, 여호와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 대신에 이교주의와 천주교회에 의해서 전해내려 온 날을 지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하며 저들이 범한 과거의 죄악을 인해 슬퍼하였다.

나는 예수님께서 저들의 고백과 기도를 아버지 앞에 올리실 때에 향단에서 향연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향연이 올라가자 밝은 빛줄기가 예수님과 시은 좌에 머물렀고, 저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다는 것을 알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자들이 축복을 받았고, 저들의 얼굴은 희망과 기쁨으로 빛났다. 저들은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을 하기 위해 저들의 목소리를 합해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외쳤다. 그러나 처음에는 소수의 사람들만 기별을 받아들였으나, 저들은 온 힘을 다해 경고의 기별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했다. 그때 나는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처음에 경고의 기별을 전한 자들과 저들의 목소리를 연합하고, 그분께서 거룩하게 하신 쉬는 날을 지키므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보았다.

셋째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에 주어진 두 기별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 사단은 이 점을 이해하고, 그의 사악한 눈은 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저들을 주시하였다. 그러나 셋째 천사는 저들에게 지성소를 향하게 하였고, 또한 과거의 기별을 경험했던 자들도 저들에게 하늘 성소로 가는 길을 가리켰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이 전한 기별이 완전한 진리의 사슬로 연결된 것을 보고 기꺼이 받아들였다. 저들은 진리의 순서대로 받아들였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하늘 성소로 들어갔다. 이 기별들은 나에게 몸(교회)을 지탱케 하는 닻으로 묘사되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므로, 저들은 사단의 많은 속임수를 대항하기 위해 무장하였다.

1844년에 있었던 대 실망 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저들(교회-무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닻을 놓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는 이러한 경험들을 한 개인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저들은 겸손한 자들처럼 보였다. 저들은 첫째와 둘째 기별을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면 그 기별을 바꾸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성취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람들은 경험이 미숙한 자들의 마음을 이끌어 저들의 믿음을 흔들었다. 어떤 자들은 저들(교회-무리)과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저들의 믿음을 쌓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였다. 사단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기뻐하였는데 이는 닻으로부터 풀려난 자들은 다른 오류를 주입시키고, 교리의 바람으로 저들을 몰고 갈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첫째와 둘째 기별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들을 부인하고, 무리(단체-교회)가 나뉘고 분산되었다. 그 때 나는 윌리엄 밀러를 보았다. 그는 그의 백성들(추종자들)로 인해 슬퍼하며 고민하는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당혹해 하는 것 같이 보였다. 그는 1844년에 연합되어 사랑하던 무리들이 서로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서로 반대하는 것을 보았다. 저들이 냉정하고 타락하고 뒤로 물러가는 형

편을 보았다. 이러한 슬픔은 그의 기력을 쇠하게 하였다. 인도하는 사람들(지도자들)이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하나님의 계명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그를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가 하늘에서 온 기별에 관심을 기울이려하자, 이 사람들은 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자 하였다. 나는 인간의 감화가 그의 마음을 어둡게 하였고 저들에게 미치는 그의 영향력을 막고자 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한 동안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대항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의 실망을 온전히 설명해줄 기별, 과거에 전해진 기별에 빛과 영광을 더해줄 기별, 그의 고갈된 힘을 소생시켜줄 기별, 그의 소망을 밝게 해줄 기별,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그는 거룩한 지혜를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을 의지했고, 그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 열성을 다하다가 쇠하여 낙담했고, 또 나이도 늙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진리로부터 멀리하도록 부추긴 그 사람들처럼 책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저들에게 책임이 있고, 죄악이 저들 위에 있다.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기만 했더라면 어둡고 이상하게 보였던 많은 것들이 설명되었을 것이었다. 그의 형제들이 그에 대한 깊은 사랑과 관심을 표명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떠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의 마음은 다시 진리로 향하고자 했으나, 다시 그는 그의 형제들을 바라보았다. 저들이 그 빛을 반대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는데 그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저들을 멀리하고 어찌 떠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저들이 그를 결길로 인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사단의 권세 아래 처하도록 용납하셨고, 죽음이 그를 지배하도록 하셨다. 그분께서 그를 무덤 속에 감추심으로 끊임없이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으려고 하는 자들로부터 멀리하셨다. 모세는 그가 약속의 땅에 막 들어가려고 했던 지점에서 실수했다. 나는 또한 윌리엄 밀러 역시 잠시 후에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었는데 진리를 대항하는 영향력을 미침으로 실수하였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이런 길로 인도했다. 다른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천사들은 이 귀한 하나님의 종의 유해를 지켜보고 있으며, 그는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일어날 것이다.

(출 20:1-17, 31:18, 살전 4:16, 계 14:9-12 참고)

제29장

견고한 강단(플랫폼)

나는 완전무장하고 확고하게 서 있는 무리를 보았는데, 무리(교회)가 세워놓은 믿음을 와해시키려는 무리들에게 어떠한 지지도 보내지 않을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정하는 눈으로 바라보셨다. 내가 세 단계를 보게 되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즉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보게 되었다. 천사가 말하기를 “이 기별들 가운데서 일점일획이라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이 기별들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모든 영혼들의 운명은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달려있다”라고 했다. 나는 다시 이 기별들이 전파되는 과정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값을 치르고 이러한 경험을 사게 되는가에 대해 보았다. 많은 고통과 심한 투쟁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한 계단씩 한 계단씩 인도하사 저들을 견고하고 움직일 수 없는 강단에 이르도록 하셨다. 그 때 저들이 강단에 접근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계단을 오르기 전에 기초를 확인하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즉시 강단을 밟았다. 다른 사람들은 강단이 놓여있는 기초의 결함들을 찾기 시작했다. 저들은 어떤 점들을 개선해야만 강단이 더욱 완전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훨씬 더 행복해 할 것이라고 했다. 어떤 사람들은 강단에서 내려와 살펴보고 결함들을 발견하고 기초 돌이 잘못 놓여졌다고 했다. 나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강단에 확고하게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저들은 강단에서 내려와서 불평하는 자들에게 불평을 멈출 것을 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수석 건축가이신데 저들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이라며 타일렀다. 저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저들을 확고한 강단에까지 인도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연합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일은 불평하며 강단을 떠났던 자들에게 영향을 미쳤고, 저들이 겸손하게 그 강단에 다시 올라왔다.

나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선포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다.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길)을 준비하기 위해 엘리야의 영(정신)과 능력으로 보냄을 받았다. 요한의 증언을 거절한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유익을 얻지 못했다. 요한이 그분의 선포한 초림에 대한 증거를 반대하므로 그 분께서 메시아라는 강력한 증거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하였다. 요한의 기별을 거절하도록 유도한 사단은 더 나아가 예수를 거절하고 못 박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므로, 저들은 오순절 날의 축복, 즉 저들로 하늘 성소로 들어가도록 가르쳐 줄 축복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성전 안에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드리는 희생과 의식들이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위대한 희생물이 드러졌고, 받으신바 되었고, 오순절에 내린 성령은 제자들의 마음을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예수님이 그분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분이 이룬 구속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나누어주고 계신 하늘에 있는 성소로 향하게 하셨다. 유대인들은 완전한 속임과 암흑 속에 남아 있었다. 저들이 받을 수

도 있었던 구원에 관한 모든 빛을 잃어버렸고, 아직도 무모한 희생과 제물을 믿고 있었다. 저들은 성소에서 중보 하시므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었다. 하늘에 있는 성소가 지상에 있는 성소를 대신하고 있었음에도, 저들은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못 박는 과정을 두려움으로 바라본다. 그리고 저들이 수치스러운 학대에 대한 역사를 읽으면서, 저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을 것이요, 유대인들처럼 그분을 못 박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게 보여준 저들의 공언하는 동정을 목격하셨고 입증하셨으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저들의 사랑을 시험하셨다.

온 하늘이 그 기별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많은 사람들이 기별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희소식을 조소하고 속임수라고 선언하였다. 저들은 그분의 오심을 사랑하는 자들과 교체하지 않고, 저들을 미워하고 교회에서 몰아냈다. 첫째 기별을 거절한 자들은 둘째 기별이 주는 유익을 받지 못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도록 준비케 하는 밤중 소리의 기별이 주는 축복을 받지 못했다. 앞에 주어진 두 기별을 거절하므로 지성소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주는 빛을 볼 수 없었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처럼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못 박았음을 보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움직임이나 지성소로 이끄는 길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곳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의 유익을 얻을 수 없음을 보았다. 무모한 희생제물을 드린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이미 떠나버린 방을 향해 무모한 기도를 드리고 있으며, 사단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공언에 대해 기뻐하면서 저들을 그의 울무로 단단히 묶어 놓고, 종교적인 특성들을 가진 것처럼 가장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의 마음을 그 자신에게로 이끌어 저들을 통해서 그의 능력과 그의 징조와 거짓 이적을 행하게 한다. 그는 어떤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방법으로 속인다. 각기 다른 마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기 다른 속임수들을 마련해 놓았다. 어떤 사람은 어떤 속임수에 대해 끔찍하게 보는가 하면, 다른 속임수에 대해서는 기꺼이 받아들인다. 사단은 어떤 사람은 강신술로 속인다. 그는 빛의 천사로 나타나 그의 영향력을 그 땅 전체에 미친다. 나는 거짓 부흥이 도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교회들이 세워지고, 다른 영이 작용하고 있는데도 저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분위기가 사라질 것이요, 세상과 교회는 전보다 훨씬 더 나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교인들과 타락한 교회들 안에 진실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심을 보았는데,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불려냄을 당하게 될 목사들과 백성들이 있으며, 저들은 진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것을 보았다. 사단은 이점

을 알고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전파되기 전에 이러한 종교 단체 안에 흥분을 일으켜서 진리를 거절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계신다고 생각하게 할 것이다. 그는 정직한 자들을 속여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교회들을 위해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도록 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은 비칠 것이요, 모든 정직한 자들이 타락한 교회들을 떠나 남은 무리들과 함께 설 것이다.

(마 3장, 행 2장. 고후 11:14, 살후 2:9-12, 계 14:6-12. 참고)

제30장

강신술

나는 두드리는 기만을 보았다. 사단은 예수 안에서 잠자고 있는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저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저들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나타날 것이요, 저들이 하는 말은 살아 있었을 때 했던 말, 우리 귀에 익숙한 음성으로 말할 것이며, 저들이 살아 있었을 때 했던 동일한 억양으로 하는 말이 귀에 들릴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세상을 속이고 저들을 이러한 기만을 믿게 하여 올가미로 묶어 놓으려는 술책이다.

나는 성도들이 현대 진리를 철저히 이해하고, 성경으로 뒷받침해야 될 것을 보았다. 저들은 죽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꼭 이해해야 하는데 이는 악한 영들이 나타나 사랑하던 친구들과 친척들이라고 하면서 비성서적인 것들을 말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들을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저들이 가진 모든 능력을 행사하고 저들 앞에 기적을 행하므로 저들이 말한 것들을 증명하려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영들을 대응하기 위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저들은 악마의 영들이라고 하는 성경의 진리로 무장(준비)되어야 한다.

나는 우리가 믿는 소망의 기초를 점검해야 할 것을 보았는데, 이는 성경으로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기만이 퍼질 것이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싸워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으면 유혹에 휘말려 정복당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투쟁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셔야 할 부분을 하실 것이요, 전능하신 그분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있는 모든 천사들을 이내 보내어 신실할 영혼들을 돌려 진치게 하여 사단의 거짓 이적으로 인해 속임 당하여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나는 이러한 속임수가 신속하게 퍼지는 것을 보았다. 나는 여러 대의 차들(기차)이 줄을 이어 번개(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천사가 유의하여 보라고 나에게 명했다. 나는 나의 눈을 기차에 고정시켰다. 온 세상(사람들)이 그 차에 타고 있는 것같이 보였다. 그때 그는 나에게 위엄 있게 잘 생긴 사람으로 보이는 차장을 보게 하였는데 모든 승객들이 존경하고 높이는 사람 같았다. 나는 혼란 속에 빠져 나와 동행하는 천사에게 그가 누구냐고 물어봤다. 그는 사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빛의 천사를 가장한 차장이었다. 그는 세상을 포로로 잡고 있었다. 저들은 저주받게 될지도 모르는 거짓말을 믿게 하는 강력한 속임수에 빠진 자들이다. 그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가 기관사이고, 그의 다른 대리자들이 필요에 의해 여러 분야에서 일하도록 고용되었는데, 저들 모두는 파멸을 향해 번개(빛)의 속도로 달려가고 있었다. 나는 천사에게 남은 자가 있느냐고 물어봤다. 그는 반대편을 보라고 명

했고, 나는 그곳에서 좁을 길을 여행하는 적은 무리를 보았다. 모든 사람들은 확고히 연합되었고, 진리로 한데 묶인 것처럼 보였다.

적은 무리는 심한 시련과 투쟁을 경험한 자들처럼 지쳐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구름 뒤에 있던 태양이 막 빛을 내어 저들의 얼굴을 비치는 것 같았고, 아직 승리 하지 못했지만 승리를 거둔 자들처럼 보였다.

나는 주께서 세상에 이 율무를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을 보았다. 또 다른 증거가 없다고 해도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분한 증거가 되었다. 가치가 있는 것 하고 가치가 없는 것 하고 차이가 없다.

토마스 페인은 그 몸이 썩어 흙이 된 사람으로 1,000년 후에 둘째 부활에서 그의 상급을 받고 둘째 사망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도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높임을 받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사단은 그를 이 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이용했고, 이제 그는 하늘에서 토마스 페인이 아주 높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여, 그가 이 땅에서 가르쳤던 것처럼 하늘에서도 가르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가 살아있을 때 가르쳤던 것들에 대해 끔찍한 것으로 여겼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인간 가운데 가장 사악하고 부패했던 사람,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멸시했던 그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자 복종한다.

거짓말의 아버지인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도들을 대변하여 말하므로 세상을 눈멀게 하고 속이는 일을 하며, 저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성령의 지시에 따라 받아 쓴 것들과 상반되는 것 같은 말을 한다. 거짓을 말하는 천사들은 사도들로 하여금 저들이 가르치고 선포했던 것들을 잘못 된 것으로 인정하게 하고, 고쳐져야 한다고 선언하게 한다. 이렇게 하므로 그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 즉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과,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을 암시하는데, 이는 그분의 진로를 직접 자르는 일이며, 그의 계획을 좌절시키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그들로 하여금 성경의 거룩한 기원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토마스 페인이 죽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를 높이며, 거룩한 사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를 미워했으나, 이제 연합하여 세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사단은 그의 모든 천사들에게 해야 할 일을 분담해 준다. 그는 그들에게 약삭빠르고 교활하고 은밀하게 해야 한다고 명령한다. 그는 저들 가운데 어떤 자에게는 사도들처럼 행동하라고 하고, 반면에 다른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저주하며 죽은 무신론자와 악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이제 매우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 된 것처럼 행동하라고 명했다. 가장 거룩한 사도들과 가장 사악한 무신론주의자들과 차이가 없다. 저들 모두 똑 같은 것을 가르치도록 했다.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말하게 하든 동일한 목적만 달성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는 이 땅에서 페인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도와주었고, 그가 사용하던 말을 사용하는 것, 그를 신실하게 따르던 자들의 필적을 이용하여 그의 목적을 이루는 일을 아주 쉬운 일이었다. 사단은 그의 글을 받아쓰게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의 천사들로 하여금

그의 감정을 그대로 나타나게 해서 토마스 패인이 살았을 때 그의 진실한 종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에게서 온 것으로 믿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사단의 결작품 사기극이다. 사도들과 성도들, 그리고 죽었던 악인들에게서 온 것처럼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은 사단에게서 직접 온 것이다.

이정도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 휘장을 걷어내고,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 사단이 하는 신비한 일들을 파헤치는데 충분할 것이다. 그는 사실 그를 그토록 사랑하고 하나님을 심히 미워하였으나 이제 거룩한 사도들과 영광 가운데 있는 천사들과 함께 있다고 하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무신론주의자들에게 너희가 아무리 악하고, 하나님과 성경을 믿던지 안 믿던지 상관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즐겁게 살아도 돌아갈 본향 집은 하늘이라고 가르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 토마스 패인같은 사람이 하늘에 있고, 아주 높임을 받고 있다면 저들 또한 분명히 하늘에 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너무나 변쩍거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일이다. 사단은 이제 그가 타락한 이후 해오던 일을 토마스 패인과 같은 개인들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는 그의 능력과 거짓 이적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의 기초를 헐어버리려고 하고 있으며, 하늘로 향하는 좁은 길을 비치는 태양을 없애버리려고 한다. 그는 세상으로 하여금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책보다 더 나은 것이 없으며 영감으로 된 것이 아니요, 다른 어떤 것을 그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즉 **영적 출현(강신술)** 같은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

여기 그가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강신술)이 있는데 그의 통제 아래 두어 그가 원하는 대로 세상으로 하여금 믿도록 할 수 있다. 그와 그의 추종자들을 판단할 책을 그가 두기를 원하는 곳, 그림자 속에 감추어 두고 있다. 그는 세상의 구주를 평범한 사람 그 이상의 사람이 아닌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켜보던 로마 군인들이 제사장들의 수뇌들과 장로들이 저들의 입에 담아준 거짓말을 유포했던 것처럼, 강신술의 추종자들이 되어 속임을 받고 있는 가련한 자들이 반복해서 그런 일이 나타나게 하려고 하고, 우리 구주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에 있어서 어떤 기적적인 것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리고 저들은 성경과 함께 예수님을 저들이 원하는 곳, 그림자 속에 감추고, 세상으로 하여금 저들이 하는 거짓 이적과 기사들을 바라보고 저들이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보다 훨씬 탁월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리하여 세상은 그의 울무에 빠지게 되고, 안전한 것처럼 느끼게 하고, 일곱 재앙이 부어지기까지 저들이 두려운 속임수에 빠졌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 사단은 그의 계획이 그토록 성공을 거두고 온 세상이 그의 울무에 빠진 것을 보면서 통쾌하게 웃는다.

(전 9:5, 용 11:11-14, 살후 2:9-12, 계 13:3-14 참고)

제31장

탐욕

나는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의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올무를 놓으라고 명했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교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의 능력과 거짓 이적들을 강화시켜 저들을 붙잡아 두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증오한다. 저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증오하는 하나님의 계명(율법)을 지키고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빼앗아가므로 우리를 대적한다.

가서 땅과 돈을 가진 자들로 근심에 빠지게 하라. 너희가 저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에 저들의 애정을 쏟게만 한다면 조만간에 우리의 것들이 될 것이다. 저들이 좋아하는 것들에 공언을 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왕국이 성공하는 것이나 또는 우리가 증오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도록 하라. 가장 매혹적인 빛으로 세상을 저들 앞에 제시하여 저들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숭배하게 만들라.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모든 재물들을 우리 수중에 넣어야 한다. 저들이 재물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백성들을 빼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많은 손상을 입힐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여러 곳에 집회를 계획하면 할수록 우리가 위태롭다. 그러므로 깨어서 살펴봐야 한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저들을 혼란시켜라. 서로를 위한 사랑을 파괴하라. 저들의 목사들을 좌절시키고 낙담시켜라. 이는 우리가 저들을 증오하기 때문이다. 재물을 가진 자들로 적당한 구실을 들어 돈을 내놓지 못하게 하라. 할 수 있는 대로 돈에 관한 것은 너희가 주관하도록 하라. 그리고 저들의 목사들로 궁핍하게 하고 곤궁에 처하게 하라. 이렇게 하면 저들의 용기와 열성이 약화될 것이다. 단 한치도 물러서지 말고 싸워라. 탐식과 세상 재물에 대한 사랑이 저들의 품성을 주관하는 요소가 되게 하라. 이러한 특성들이 저들을 지배한다면, 구원과 은혜는 뒷전으로 밀리게 된다. 저들을 유혹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그들 주위를 감싸라. 그렇게 하면 저들은 분명히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저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증오하는 다른 사람들을 하늘로 이끄는 저들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가 재물을 바치려고 하면 저들의 마음속에 아까워하는 마음을 넣고 인색하게 하도록 하라.

나는 사단이 그의 계획을 잘 이행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이 집회를 열기로 정할 때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저들이 해야 할 일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제안들을 하였다. 그는 어떤 사람은 이런 방향으로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여, 형제와 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좋지 않은 성향들을 이용하여 타고난 본성들을 자극하는 일을 하였다. 만약 저들이 이기적이고 탐심을 나타내면

사단은 저들 곁에 서는 것을 매우 기뻐하고, 그가 있는 힘을 다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죄악을 표출하도록 저들의 마음을 이끌고자 한다. 만약 하나님이 은혜와 진리의 빛이 이러한 탐심과 이기적인 감정들을 한동안 녹여버리면, 저들은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지 못하게 된다. 저들이 구원의 감화 아래 있지 않을 때, 사단은 다시 들어와서 고상하고 너그러운 원칙들을 시들게 하고,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한다. 저들은 선을 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진저리나게 되고, 저들을 사단의 세력과 소망 없는 처절함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가에 대해 잊어버리게 된다.

사단은 유다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이기심을 이용해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린 향유에 대해 불평을 토로하도록 했다. 유다는 그것은 커다란 낭비라고 보았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님께 드리는 관대한 헌물은 지나친 것이라고 여겼다. 유다는 그의 주님을 은전 몇 냥에 팔아넘겨도 무방한 존재로 평가했다. 그리고 나는 저들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노라고 공언하는 자들 가운데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았다. 사단이 저들을 주관하고 있으나 저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 털끝 만큼의 탐심이나 이기심도 하나님께서는 용인하실 수 없으시다. 그분은 그것(탐심과 이기심)을 싫어하시며, 탐심이나 이기심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기도나 간청을 무시하신다. 사단은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짧은 것을 보면서 그는 저들을 더욱 이기적이고 더욱 탐심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저들이 자신들만 알고 인식하고 이기적이 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기뻐한다. 저들의 눈을 열어 볼 수만 있다면, 저들은 사단이 저들 위에서 기뻐 날뛰며 몹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요, 그의 유혹(제안)에 빠져 그의 뜻에 걸린 어리석음을 보면서 비웃는 사단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난 후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인식하고 탐심이 가득한 자들을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 앞에 제시하면서, “이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이란다! 저들이 바로 변화될 준비를 한 자들이란다”라고 비난조로 말하였다. 사단은 이러한 변질적인 행동들을 들먹이며, 성경에서 이러한 행동들을 명백하게 질책하는 말씀을 들어 비교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불쾌하게 하는 모욕하는 말을 한다. “이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다! 이들이 그리스도가 희생하고 구속을 이룬 열매들 이란다!” 천사들은 그 광경을 보며 혐오감을 느끼면서 그 자리를 떠난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저들이 해야 할 일을 계속하기를 요구하신다. 저들이 선을 행하고 관대하기를 좋아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저들을 좋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공언하는 백성들이 나타내는 털끝만한 이기심을 나타내어도 기뻐하지 않으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그분의 소중한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모든 이기심과 탐심을 가진 자들은 도중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다. 그의 주님을 팔아먹은 유다처럼, 저들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하찮은 유익을 위해 좋은 원칙, 고상하고 관대한 마음을 팔 것이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체질을 당해 떨어져나갈 것이다. 하늘을 원하는 자들은 저들이 가진 모든 힘을 다해 하늘의 원칙들을 촉진시켜야 한다. 저들의 영혼이 이기심으로 마르

도록 할 것이 아니라, 선을 더 많이 행해야 하고, 모든 기회를 서로를 위해 선을 행하기 위해 계발해야 하고, 하늘의 원칙 안에서 점점 더 자라나야 한다. 예수님이 나에게 완전한 모본으로 제시되었다. 그분의 삶은 사심 없는 삶이었고, 사욕이 없는 사랑의 삶이었다.

(막 14:3-11, 눅 12:15-40, 골 3:5-16, 요일 2:15-17 참고)

제32장

흔들림

나는 강한 믿음과 고민 가운데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았다. 저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내적 투쟁을 나타내는 근심의 빛이 역력히 보였다. 저들의 얼굴에 확고함과 진지함이 나타나고 있었고, 저들의 이마에서는 굵은 땀방울이 떨어졌다. 때때로 저들의 얼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표적이 나타날 때에는 밝아지는 것 같았다가, 다시 저들의 얼굴에 엄숙하고 진지하고 근심스러운 모습이 나타났다.

악한 천사들이 저들 주위를 배회하면서 암흑을 뒤덮어 저들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하고, 저들의 눈을 뒤덮고 있는 캄캄함으로 돌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고자 하였다. 저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안전의 길은 저들의 눈을 위로 향하는 길 밖에 없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악한 천사들이 근심에 쌓인 영혼들 주위에 치명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때, 저들을 돌보는 천사들이 저들 주위에 있는 짙은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 쉬지 않고 날개를 펼럭였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고뇌와 탄원에 가담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무관심하고 주의성이 없는 것 같았다. 저들은 저들 주위에 있는 흑암을 저항하지도 않고, 그 캄캄함은 저들을 그 안에 가두어 버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들을 떠나 진지하게 기도하는 무리를 돕기 위해 저들에게 갔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들이 있는 힘을 다해 악한 천사들을 대항하고, 인내로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저들 스스로를 돕고자 애쓰는 자들을 돕기 위해 분주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저들 자신들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천사들은 떠나갔고, 나는 더 이상 저들을 볼 수 없었다.

기도하는 무리가 저들의 진지한 부르짖음을 계속할 때 때때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빛이 저들에게 임하여, 저들의 마음에 용기를 주었고, 저들의 얼굴은 밝아졌다.

나는 내가 본 흔들림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봤다. 나는 참된 증인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바른 기별 때문이라는 것을 보았다. 그것은 그 증언을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어, 표준을 높이게 하고, 바른 기별을 흘려넘치도록 할 것이다. 이 바른 기별을 어떤 사람은 견디지 못할 것이다. 저들은 그것을 대항해 일어날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흔들림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참된 증인의 증거가 절반도 주의를 끌지 못함을 보았다. 교회의 운명이 달려있는 엄숙한 증거가 완전히 무시되거나 아니면 경시되고 있었다. 이 증거가 깊은 회개를 불러일으켜야하고, 이 기별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별에 순종할 것이요, 저들은 정결케 될 것이다.

천사가 “들어보라!”고 말했다. 나는 곧 많은 악기들의 소리와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완전한 곡조를 전하는 달콤하고 조화된 소리였다. 내가 들은 그 어떤 음악도 능가하는 소리

였다. 그것은 자비와 동정이 가득하고 거룩한 기쁨을 높여주는 것 같았다. 그 노래는 내 몸 전체를 전율하게 만들었다. 천사가 말하기를 “보라!”고 했다. 그 때 나는 전에 보았던 무리를 주시하게 되었는데, 저들이 크게 흔들림을 당하고 있었다. 나는 전에 보았던 고뇌에 빠져 울며 기도하던 무리를 보았다. 나는 저들을 돌보는 천사의 수가 두 배로 늘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저들은 머리에서 발에 이르는 갑옷을 입고 있었다. 저들은 정확한 질서를 유지하면서 움직였는데 마치 군인들과도 같았다. 저들의 얼굴은 저들이 참고 막 통과한 고뇌의 투쟁이 심한 것이었음을 나타내었다. 저들의 모습에서 심한 내적 고통이 있었음을 나타내기는 하였으나, 이제는 하늘의 빛과 영광이 비치고 있었다. 저들은 승리를 얻었으며, 그로 인해 깊은 감사와 거룩하고 신성한 기쁨이 솟아오르게 하였다.

이 무리의 숫자가 줄어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흔들려 나갔고, 어떤 자들은 도중에 처졌다. 부주의하고 무관심하여 승리와 구원에 대해 고난을 받고 인내하며 탄원해야 할 것으로 평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 연합하지 않은 자들은 승리를 얻지 못해서 어둠 가운데 남아 있었고, 저들의 자리는 진리를 붙잡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 즉시 채워져 저들과 함께 했다. 아직도 악한 천사들이 저들 주위를 배회하였으나 저들에게 어찌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

나는 갑옷을 입은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들었다. 영향력이 있었다. 나는 구속되어 있는 자들을 보았다. 어떤 부인들은 저들의 남편들 때문에 구속되어 있었고, 어떤 자녀들은 부모들에 의해 구속되어 있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억압 당해온 정직한 자들이 이제 전과되는 진리를 진지하게 붙잡았다. 저들의 친척들에 대한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저들에게 있어서 진리만이 가장 높임을 받는 것이 되었다. 저들에게 있어서 목숨보다 진리가 더욱 사랑스럽고 소중한 것이었다. 저들은 진리에 대해 배고팠고 목말랐었다. 나는 무엇이 이러한 큰 변화를 이루게 하였는가 하고 물어봤다. 천사는 대답하기를 “그것은 늦은 비 성령,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오는 새롭게 함이요, 셋째 천사가 전하는 큰 외침” 때문이라고 했다.

커다란 능력이 선택받은 이 무리들과 함께 했다. 천사가 “보라!”고 했다. 나는 악한 자들 또는 믿지 않는 자들을 주시했다. 저들은 소란스러웠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열성과 능력이 저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혼돈, 혼돈이 도처에 편만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빛을 가진 무리들을 대항하는 것을 보았다. 흑암이 저들을 뒤덮었으나 그래도 저들은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고 그분을 신뢰하였다. 나는 저들이 곤경에 처한 것을 보았다. 다음으로 나는 저들이 하나님께 진지하게 부르짖는 것을 들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저들의 울부짖음은 멈추지 않았다.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들었다. “오- 하나님이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될 수만 있다면, 당신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소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교도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저들은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였으나, 당신의 손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했다. 이 말들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전부이다. 저들은 저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깊이 느끼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할 것을 나타냈다. 하지만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마치 야곱이 구출함 받기 위해 씨름했던 것처럼 진지하게 하나님께 탄원을 올렸다.

저들이 진지한 부르짖음을 토한 직후, 천사들이 동정심을 가지고 저들을 구출하고자 했다. 그러나 키가 큰 지휘하는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저들이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 한다. 저들은 그 침례를 통해 정결케 되어야 한다” 라고 했다.

나는 이내 하늘과 땅을 흔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 때 커다란 지진이 있었다. 건물들이 흔들려 여기저기 넘어졌다. 나는 그 때 승리의 합성을 들었는데 음악과 같이 분명하고 큰 소리였다. 나는 얼마 전에만 해도 좌절과 속박 속에 있었던 무리를 보았다. 저들의 속박이 풀렸다. 영광스러운 빛이 저들 위에 비쳤다. 그 때 저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던가! 모든 피곤과 근심의 흔적은 사라졌다. 모든 사람들의 용모에 건강과 아름다움이 보였다. 저들의 원수, 저들 주위에 있었던 이교도들은 죽은 사람들처럼 쓰러졌다. 저들은 구원받은 거룩한 자들에게 비치는 빛을 감당할 수 없었다. 이 빛과 영광이 저들 위에 머물러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실 때까지 저들 위에 머물러 있었고, 그리고 순식간에 신실한 자들, 시련을 받은 무리들은 변화되었고, 눈깜짝할만한 순간에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었다. 그리고 무덤들이 열리고 성도들이 그 안에서 나와 불멸의 몸을 입었고, 저들의 무덤과 죽음을 향해 승리를 부르짖었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끌어올림을 당하였다. 영광과 승리를 노래하는 풍성한 음악소리와 같은 합성이 모든 불멸을 입은 혀와 모든 성결케 된 거룩한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시 86편, 호 6:3, 학 2:21, 마 10:35-39, 20:23, 엠 6:10-18, 살전 4:14-18, 계 3:14-22 참고)

제33장

바벨론의 죄악들

나는 둘째 천사가 저들의 타락을 선포한 후 각기 다른 교회들의 상태를 보았다. 저들은 점점 더 부패하게 되었으나 그래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저들과 세상을 분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들의 목사들은 말씀에서 성경절을 취하기는 하지만 부드러운 것들만 설교한다. 타고난 마음(변화되지 않은 마음)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다. 육에 속한 마음이 꼭 싫어하는 것은 진리의 영과 능력,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이다. 대중적인(인기 있는) 목회사업 가운데 사단의 분노를 일으키거나, 죄인들로 떨게 하는 기별도 없고, 임박한 심판의 두려운 실체에 대해 마음과 양심을 쏙 빼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악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참된 경건이 결여된 형식에 대해 기뻐하며, 그러한 종교를 돕고 지지할 것이다. 천사는 말하기를 “의의 전신 갑주가 아니고서는 정복할 수 없고, 흑암의 능력을 대항해서 승리를 쟁취할 수 없다”고 했다. 사단은 그러한 교회 전체를 소유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쪼개는 분명한 진리의 말씀 대신에 사람의 말과 행위가 강조되고 있다. 천사는 “세상을 친구 삼는 것과 세상에 속한 정신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이다”고 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그리고 힘 있게 전파된다면 세속에 속한 자들의 반대를 불러일으키고, 즉시 핍박의 정신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매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타고난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고, 육에 속한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 된 그대로 남아 있다. 저들이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추정할지는 모르나 저들은 사단의 신실한 종들이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성소를 떠나셔서 둘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을 때, 유대인들을 버리셨던 것처럼 교회들도 버려진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저들이 모든 부정한 것과 가증한 새들로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나는 교회들 안에 커다란 죄악들과 혐오스러운 것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도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한다. 저들의 공언과 저들의 기도와 저들의 권면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혐오스러운) 것들이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모임에서 나는 냄새를 맡지 않으실 것이다”고 말했다. 이기심, 사기, 속임수 등이 양심이 가책 없이 저들에 의해 만행되고 있다. 그리고 저들은 이 모든 악한 행습들을 종교의 외투에 감추고 행한다. 나는 명목상의 교회 안에 있는 자만심을 보았다. 저들의 사상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저들의 육에 속한 마음은 자신들만을 생각한다. 저들은 썩을 가련한 몸을 치장하고, 저들 자신을 만족하게 보며 기뻐한다. 예수님과 천사들은 저들을 분노 가운데 바라보신다. 천사는 “저들의 죄악들과 자만심이 하늘까지 치솟았다. 저들이 받을 상급이 준비되었다. 공의와 심판이 오랫동안 즐기고 있었으나 이제 곧 깨어날 것이다”고 했다. “복수는 내 것이요, 내가 분명히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다. 셋째 천사가 전한 두려운 경고를 깨닫게 될 것이요,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악한 천사들이 세계 도처에 퍼져 있다. 교회들과 종교단체들이 저들과 규합하고 있다. 그리고 저들이 종교 단체를 보며 기뻐하는데 이는 저들이 종교라고 하는 외투로 커다란 범죄와 불법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다.

온 하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작품인 인간들이 가장 낮은 수준에까지 타락하고, 저들의 동료 인간들에 의해 금수와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인간의 슬픔을 보시면서 동정을 베풀었던 사랑하는 구주를 따르노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이토록 극악무도하고 통탄할만한 죄악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을 노예로 대하고 있다. 천사들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 그것들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 속박당한 경건한 남녀들, 아버지들, 어머니들, 자녀들, 형제들과 자매들의 눈물이 하늘에 있는 병에 담겨져 있다. 고뇌, 인간의 고뇌(노예제도)가 여기저기 옮겨졌고, 사고 팔림을 당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분노를 조금만 더 제한하실 것이다. 그분의 분노는 이 나라(미국), 특히 이러한 제도를 인정 한 종교 단체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리고 저들이 이 두려운 상거래에 관여되어 있다. 그러한 불공평, 그러한 억압, 그러한 고통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공언하는 자들이 무정하고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 있다니! 그리고 저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증오심을 가득 채우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가하면서도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다니! 그것은 두려운 조롱이요, 사단은 그러한 모순적인 사실에 대해 매우 기뻐하면서, 예수님과 그분의 천사들에게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란 말인가!”하고 말한다.

이렇게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자들이 당한 고통에 대해 읽고, 저들의 불에 눈물을 흘린다. 저들은 인간들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강박하여 동료 인간들에게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잔인할 수 있는가 하고 의아해 하나, 저들은 동료 인간들을 노예로 붙잡아두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저들은 혈연의 끈을 끊어버리고 날마다 동료 인간들을 잔인하게 억압한다. 저들은 천주교도들이나 이교주의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대했던 것으로 비교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잔인함으로 비인간적인 고통을 더할 수 있다.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날 이교주의자들이나 천주교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저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억압받는 자들의 울부짖음과 고통이 하늘에까지 미쳤으며, 천사들은 그를 만드신 조물주의 형상을 띤 사람들이 동료 인간들에게 대하는 강박한 마음, 말로 형용될 수 없는 고뇌와 고통을 보면서 놀라며 서 있다. 천사는 “저들(압제자들)의 이름이 저들이 흘린 피로, 저들이 맞은 채찍으로, 고뇌의 홍수로, 고통으로 흘린 애타는 눈물로 기록되었다. 하나님의 진노가 빛을 받았던 땅(미국)이 그분의 격심한 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실 때까지, 바벨론에게 그가 받을 상급을 두 배로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게 네게 준 대로 갚아주라. 그가 행한 것에 대해 배로 갚아주라. 그가 채운 잔에 두 배로 채워 마시게 하라”고 했다.

나는 노예의 주인이 무지 가운데 가두어 놓고 노예로 삼은 영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노예들의 모든 죄가 주인에게 전가될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무지 가운데

서 타락하고 하나님이나 성경도 모르고 주인의 채찍 외에는 두려운 것을 모르던 노예, 그 주인에게 속한 야수와 같은 짐승 그 이상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던 노예들을 하늘에 데려가실 수가 없다. 그러나 동정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신다. 그분께서 그를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실 것이요, 그 주인은 일곱 재앙을 견뎌야 하고, 둘째 부활에 참여하고, 가장 두려운 둘째 사망을 당해야 할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될 것이다.

(암 5:21, 롬 12:19, 계 14:9-10, 18:6 참고)

제34장

큰 외침

나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이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어떤 중요한 사건의 성취를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또 다른 힘 센 천사가 땅으로 내려가서 셋째 천사와 목소리를 합하여 그의 기별에 능력과 힘을 주라는 사명을 받는 것을 보았다. 커다란 능력과 영광이 그 천사에게 부여되었는데 그 천사가 땅으로 내려오자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되었다. 빛이 그 천사의 앞서 갔고, 또한 그 뒤를 따르면서 세계 곳곳을 비치었다. 그가 큰 소리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계18:2NKJV)라고 외쳤다. “바벨론이 무너졌도다”라는 기별은 둘째 천사가 전한 기별로, 1844년 이래 교회들 안에 추가적으로 들어 온 부패에 대해 여기에서 다시 전해진 기별이다. 이 천사가 해야 할 일이 적절한 시간에 임하게 되었는데, 셋째 천사의 기별과 합세하여 큰 외침으로 진전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도처에서 저들이 곧 직면해야 할 시련의 시간을 위해 준비되었다. 나는 커다란 빛이 저들 위에 임하고, 저들이 이 기별과 연합해서 두려움 없이 큰 능력으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하늘로 온 천사를 돕기 위해 보내졌고, 나는 도처에서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니라”(계 18:4 NKJV)고 전파하는 음성들을 들었다. 이 기별은, 밤중 소리의 기별이 1844년에 둘째 천사와 합세한 것과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적으로 더해지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임했고, 저들은 두려움 없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고 선포했다.

기다리던 자들에게 비쳤던 그 빛은 세계 도처를 비쳤고, 교회 안에 있는 부분적인 빛을 받은 자들, 세 기별들을 듣지도 못했고 거절하지도 않았던 자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타락한 교회들을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이 전파된 이래 여러 해 동안 책임을 맡고 있었다. 빛이 저들 위에 비쳐졌고, 저들은 생명과 사망 사이에서 선택할 특권을 받았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택하고 저들의 주님이 오시기를 바라며 그분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무리와 합세하였다. 셋째 기별은 그가 이루어야 할 일을 해야 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 기별로 시험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소중한 영혼들이 종교 단체로부터 나오도록 불려냄을 받아야만 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정직한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친척들과 친구들의 두려움이나 억압을 개의치 않았고, 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느끼는 자들을 감히 방해할 수도 없었고 방해할 힘도 없었다. 마지막 호소는 노예들에게까지 전파되었

는데, 저들 가운데 있는 경건한 자들이 겸손하게 저들의 행복한 구원을 기대하면서 겸손을 나타내며 기쁨이 넘치는 노래를 불렀다. 저들의 상전들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는 두려움과 놀라움이 저들을 함구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믿는 자들에게 기사와 징조가 뒤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함께 하셨고, 모든 성도들이 결과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양심의 확신을 따라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과 연합하였으며, 저들은 능력으로 셋째 기별을 널리 전하였다. 나는 셋째 기별이 밤중 소리의 기별보다 훨씬 큰 능력과 힘으로 전파될 것임을 보았다.

하나님의 종들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받았고, 저들의 얼굴은 빛을 받아 거룩한 헌신의 빛을 발하였고, 저들이 해야 할 일을 성취하기 위해 나아가 하늘로부터 온 기별을 선포했다. 종교 단체 안에 흩어져 있던 영혼들이 이 부름에 응하여 마치 룻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신속하게 빠져 나온 것처럼 소중한 영혼들이 운명지어진 교회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들 위에 풍성하게 임한 탁월한 영광으로 인해 준비되었고, 힘을 얻었으며, 시련의 때에 견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도처로부터 수많은 음성들을 들었는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는 말이었다.

(창 19장, 계 14:12, 18:2-5 참고)

제35장

셋째 기별이 마쳐짐

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쳐지는 때를 보게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분의 백성들 위에 임했다. 저들은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마쳤고, 저들 앞에 있는 시련의 때를 위해 준비되었다. 저들은 늦은 비, 또는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새롭게 함을 입었으며, 살아있는 증거들이 소생되었다. 마지막 커다란 경고가 도처에 전파되었고, 땅에 사는 자들 가운데 그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소요를 불러일으켜 분노하게 하였다.

나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그 옆에 기록하는 자들이 쓰는 잉크 뿔을 끼고 돌아가 예수님에게 그의 일을 마쳤고, 성도들의 수가 찾고, 인을 쳤노라고 보고하였다. 그 때 나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님께서 향로를 내려놓는 것을 보았다. 그분은 그분의 손을 위로 향하시고, 큰 소리로 “다 되었다!”라고 하셨다. 그리고 모든 천군천사들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함에 있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움에 있게 하라. 반면에 의로운 자도 그대로 의로움에 있게 하고 거룩한 자도 그대로 거룩함에 있게 하라”(계 22: 11 NKJV)고 하시자 저들의 면류관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았다.

나는 그 때 모든 사람의 경우가 생사 간에 결정된 것을 보았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셨다. 그분은 그분의 왕국을 받았고, 그분의 왕국의 백성들을 위한 구속이 이루어졌다.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신 동안, 죽은 의인들로부터 살아있는 의인들에 이르기까지 심판이 이루어졌다. 왕국의 백성들의 수가 찼다. 어린 양의 혼인이 끝났다. 온 하늘 아래 있는 왕국 가운데 가장 큰 왕국이 예수님과 구원의 후사들에게 주어졌고,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통치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나오시자 그분의 옷 가장자리에 달린 종소리를 들었고, 흑암이 지상에 사는 거민들을 덮었다. 그 때부터 죄지은 죄인과 진노하시는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죄지은 사람 사이에서 계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재가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사람과 아버지 사이에서 빠져 나오신 후부터 이러한 제한이 제거되었고, 사단은 인류를 주관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성소에서 직무를 행하고 계시는 동안 재앙은 내려질 수 없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업이 마쳐지고 중보가 마쳐짐에 따라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분의 진노가 피할 곳 없는 죄인들,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 견책을 싫어한 죄인들의 머리에 쏟아진다. 예수님의 중보가 마쳐진 후, 이 두려운 시간에, 성도들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살게 된다. 모든 사건이 결정되었고, 모든 보석의 수가 세어졌다. 예수님께서 잠시 동안 하늘 성소 바깥에 있는 방에 머무르시더니, 그분께서 지성소 안에 계신 동안 고백한 죄들을 죄의 창시자 마귀에게 전가시키셨다. 그는 이 모든 죄의 형벌을 당해야만 한다.

그 때 나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사장 옷을 벗으시고 그분의 최고의 왕권을 나타내는 왕복을 입으시고, 머리에 면류관에 면류관이 들어있는 많은 면류관들을 쓰시고, 천군천사들의 호위를 받으며 하늘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재앙들은 땅에 사는 거민들에게 내렸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난하고 저주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달려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지 가르쳐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성도들이 저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죄인들을 위해 흘리는 마지막 눈물이 흘러졌고, 마지막 고뇌의 기도가 올려졌고, 마지막 짐을 졌다. 자비의 달콤한 음성은 더 이상 저들을 초청하지 않았다.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전해졌다. 성도들과 온 하늘이 저들의 구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때, 저들은 그것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생명과 사망이 저들 앞에 놓여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을 얻기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저들은 생명을 선택하지 않았고, 이제 죄인들을 씻어줄 구속케 하는 보혈이 없다. 동정 많으신 구주께서 “죄인들에 대해 조금만 더 참아주소서!”라고 하던 음성이 이제 없다. “다 되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말이 들릴 때 온 하늘과 예수님은 연합하였다. 구속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만 그 계획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자비의 달콤한 음성은 사라졌고, 두려운 공포가 저들을 감쌌다. 저들은 가공할 만한 분명한 소리로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라는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던 자들은 분주히 여기 저기 돌아다녔다. 저들은 바다에서 바다로, 북에서 동으로 주의 말씀을 찾으려 다녔다. 천사는 “저들이 그것(말씀)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기근이 있으리니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갈함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단 한 마디의 말도 저들이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러나, 아니다. 저들은 배고프고 목마름을 계속 당해야 한다. 날마다 저들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세상 쾌락과 세상 재물을 하늘이 주는 보상과 재물보다 높이 평가했었다. 저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성도들을 멸시했었다. 불의한 자는 영원토록 불의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

악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재앙으로 인해 고통을 받자 크게 분노하였다. 그것은 두려운 고뇌의 광경이었다. 부모들은 저들의 자녀들을 몹시 비난하였고, 자녀들은 저들의 부모들을 비난했고, 형제와 자매들은 저들의 형제와 자매들을 비난했다. 도처에서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렸는데, 이러한 두려운 시간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했을 진리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은 바로 “너”라고 하며 비난 했다. 사람들은 강한 증오심으로 목사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왜 경고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온 세상이 뒤 바뀔 것이고, 치솟아 오르는 두려움에 대해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말했고, 당신들은 이 두려운 시간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으며, 이런 사실에 대해 경고하는 자들을 향하여 극단이요, 악한 자요, 우리를 파멸케 하려는 자들이라고 말했다”고 하면서 저들을 비난했다. 그러나 나는 목사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저들이 당하는 고통은 저들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보다 열배나 더 컸다.

(겔 9:2-11, 단 7:27, 암 8:11-13, 계 16장, 17:14 참고)

제 36장

야곱의 환난의 때

나는 성도들이 도시들과 촌락들을 떠나 무리들이 함께 가장 궁벽한 곳에서 사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이 저들에게 음식과 물을 제공했으나, 악한 자들은 배고픔과 갈증으로 고통을 당했다. 그 때 나는 땅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논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그들 주위에서 분주한 것을 보았다. 나는 글을 쓴 문서를 보았는데, 그 문서를 복사하여 땅의 여러 곳에 뿌리며 명하기를, 성도들이 저들이 믿는 독특한 신앙을 양보하고, 안식일을 포기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정한 시간 후에 저들을 죽여도 된다는 자유를 주었다. 그러나 이 때 성도들은 침착하고 안정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며,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었다. 어떤 곳에서는 문서에 기록된 집행의 시간이 오기도 전에 악한 자들이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드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군인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저들을 위해 싸웠다. 사단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죽이는 특권을 가지고자 바랐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분의 천사들을 명하여 저들을 돌보라고 하셨는데, 이는 저들 주위에 있는 이교도들 앞에서 그분의 율법을 지킨 자들과 하신 약속을 이행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며, 신실한 자, 기다리는 자, 죽음을 보지 않고 그분을 보기를 간절히 열망한 자들을 변화시킴으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내 나는 성도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뇌를 당하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이 땅에 있는 악한 사람들에 의해 휩싸여 있는 것 같았다. 모든 상황이 저들을 대적하는 것 같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들을 떠나셔서 결국 악한 자들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저들의 눈을 열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들 주위에 있음을 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다음에 성난 악인들이 몰려오고 그 뒤에 악한 천사들이 따라와 성도들을 급히 죽이려 했다. 그러나 저들이 저들(성도들)에게 접근하려 하지만, 저들이 먼저 힘이 세고 거룩한 천사의 무리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들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저들을 몰아세우는 악한 천사들도 뒤로 물러서도록 하였다. 그 때는 성도들에게 두려운 시간, 고뇌의 시간이었다. 저들은 밤낮으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외형적으로 볼 때 저들이 도망할 가능성이 없었다. 악한 자들은 이미 승리의 함성을 울리며, “왜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우리 손에서 구원하지 않느냐? 왜 하늘로 올라가 너희 자신을 구원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저들의 말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저들은 야곱처럼 하나님과 시름하고 있었다. 천사들은 저들을 구원해 주고자 원했다. 그러나 저들은 조금 더 참아야 하고, 마셔야 할 잔을 마셔야 하고, 침례를 통해 정결케 되어야만 한다. 말은 바 임무에 충실한 천사들은 저들을 지키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시고, 영광스럽게 저들을 구원할 시간이 거의 임박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

름이 이교도들 사이에 비난 받는 일을 용납하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오래 참고 그분을 기다린 자들, 저들의 이름이 책에 기록된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나는 신실한 노아를 보게 되었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임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안에 있게 하셨다. 노아는 신실하게 옛 세상에 사는 거민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었으나 저들에게 경고했다. 그리고 물들이 땅으로 내려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뒤를 이어 물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저들은 저들이 그토록 조롱하던 배가 신실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태워 보호하면서 물 위에 안전하게 떠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다가오는 진노에 대해 세상에 경고의 기별을 전한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보았다. 저들은 신실하게 세상에 사는 거민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자들, 짐승의 영에 경배하거나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악인들이 멸하도록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만약 악인들에게 성도들을 죽이도록 용납되었다면, 사단과 그의 모든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을 증오하던 모든 자들이 만족해 할 것임을 보았다. 아- 그렇게 되면 사단에게 있어서 마지막 투쟁이 마쳐지려는 순간, 저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나타나심을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무리를 이기게 되는 얼마나 큰 승리의 날이 되겠는가! 성도들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에 대해 조롱하던 자들이 그분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저들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도시들과 촌락들을 떠날 때 악한 자들의 추격을 받았다. 저들은 성도들을 죽이기 위해 창검을 높이 쳐들었으나 힘없는 지푸라기처럼 땅에 떨어졌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방어하였다. 저들이 밤낮으로 저들의 구원을 위해 부르짖었을 때 저들의 부르짖음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창 6장 7장, 32:24-328, 시 91편, 마 20:23, 계 13:11-17 참고)

제37장

성도들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선택하신 시간은 밤중이었다. 악한 자들이 저들 주위에서 조롱하고 있을 때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 그의 모든 밝은 빛을 내고, 달은 움직이지 않았다. 악한 자들은 그 장면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다.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하게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만물이 제 궤도를 벗어난 것 같았다. 성도들은 저들을 구원하는 상징을 엄숙한 기쁨 가운데 바라보았다.

강물은 흐르기를 멈추었다. 검고 무거운 구름들이 일어나 서로 맞부딪쳤다. 그러나 영광으로 둘러진 한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마치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흘러나와 하늘과 땅을 흔들었다. 커다란 지진이 일어났다. 무덤들이 열리고, 세 천사의 기별을 듣고, 안식일을 지키다가 죽었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명을 지킨 무리들과 하실 평화의 언약을 듣기 위해 먼지를 털고 영광의 몸으로 일어났다.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며 소동하였다. 산들은 마치 바람에 날리는 갈대처럼 흔들렸고, 거친 바윗돌들을 여기 저기 내던졌다. 바다는 마치 가마솥처럼 들끓었고, 육지를 향해 돌들을 내던졌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날과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백성들과의 영원한 언약을 선포하셨는데, 한 문장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굴러갈 때 까지 잠시 쉬셨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저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들의 눈을 위로 향하면서 서 있었고, 그분의 말씀은 마치 가장 큰 우뢰와 같이 땅 끝까지 울려 퍼졌다. 그것은 참으로 엄숙하였다. 매 문장이 끝날 때 마다 성도들은 “영광 할렐루야!”라고 외쳤으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 올 때와 같이 저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환하게 빛났다. 악인들은 그 영광을 인해 그들을 바라볼 수 없었다.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던 무리들에게 끝없는 축복이 선언되자 짐승과 그 우상을 이긴 것에 대한 엄청난 승리의 함성이 들렸다.

그리고 땅이 쉬어야 할 희년이 시작되었다. 나는 경건한 노예들이 승리에 승리를 거듭하며 저들을 결박했던 사슬을 풀고 일어나는 것을 보았는데, 악한 주인들은 혼돈 가운데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이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즉시 크고 흰 구름이 나타났다. 그 구름 위에 인자가 앉아 있었다.

이 구름이 처음에 멀리 나타났을 때에는 매우 작은 것처럼 보였다. 천사는 그것이 인자가 오시는 징조라고 말했다. 그리고 구름이 지상으로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 정복자로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탁월한 영광과 위엄을 볼 수 있었다. 수행하는 거룩한 천사들이 저들의 이마에 밝고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그분을 호위하고 있었다. 이 영광스러운 광경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다. 비할 데 없는 영광과 위엄으로 가득 찬 살아있는 구름이 점점 더 가까이 오자 우리는 분명하게 사랑스러운 예수님 자신을 볼 수 있었다. 그분은 가시관을 쓰

지 않으셨고, 그분의 거룩한 이마에는 영광의 면류관으로 장식되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 중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그분의 발은 섬세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마치 많은 악기들의 소리 같았다. 그분의 용모는 정오의 태양처럼 밝았다. 땅은 그분 앞에서 떨었고, 하늘은 마치 종이축이 말리는 것처럼 말려 그분 앞에서 사라졌고, 모든 산들과 섬들은 제 자리에서 옮겨졌다. 그리고 땅의 임금들과 위대한 사람들, 부자들, 장군들, 권력이 있던 자들, 모든 속박된 자들, 모든 자유자들이 산에 있는 굴들과 골짜기와 바위 틈에 저들 자신을 숨겼다. 그리고 “산과 바위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이는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임하였으니 누가 감히 설 수 있으리요?’”(계 6:16, 17 NKJV)고 했다.

조금 전만 해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했던 자들이 저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해야만 했다. 저들은 그들의 영광스럽게 된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모든 두려운 광경 속에서 성도들이 기쁨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들었는데 “보라, 이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지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 분이 주 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의 구원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사 25:9 NKJV)고 소리쳤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실 때 땅이 크게 흔들렸다. 저들은 이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몸으로 일어나서 “승리로다! 승리로다! 사망을 이겼도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고전 15:55 NKJV)고 하였다. 그 때 살아있는 성도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저들의 긴 음조로 승리를 외쳤다. 병든 몸으로 무덤 속에 들어갔던 자들이 이제 불멸의 건강을 가지고 생기 있는 몸으로 일어났다. 살아있는 성도들도 순식간에, 눈 깜짝할만한 사이에, 변화를 입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였다. 아- 얼마나 영광스러운 만남인가! 죽음으로 이별했던 친구들이 연합되고 결코 더 이상 이별이 없으리라.

구름수레 양 옆에 날개가 있고, 그 아래 살아서 움직이는 바퀴가 있었는데, 구름수레가 위로 올라갈 때 바퀴가 “거룩하다!”라고 소리쳤고, 저들이 움직이자 날개도 “거룩하다!”라고 했으며, 호위하는 천사들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지여!”라고 했다. 그리고 구름 속에 있는 성도들도 “영광, 할렐루야!”라고 했다. 그리고 수레는 거룩한 도성을 향해 올라갔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전에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가운데 모시고 완전한 정방형으로 정렬되었다. 그분은 성도들보다 어깨에서 머리 위만큼 더 높았고, 천사들보다도 어깨에서 머리 위만큼 더 높았다. 그분의 위엄 있는 자세와 사랑스러운 용모를 정방형으로 정렬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었다.

(왕하 2:11, 사 25:9, 고전 15:51-55, 살전 4:13-17, 계 1:13-16, 6: 14-17, 19:16 참고)

제38장

성도들의 보상

그 때 나는 많은 수의 천사들이 도성에서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모든 성도들을 위한 면류관으로 그 위에 그의 이름이 새겨진 것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면류관을 달라고 하자 천사들이 면류관을 그분에게 건네주었고, 사랑스러운 예수님께서 오른 손으로 성도들의 머리에 면류관을 씌어 주셨다. 동일한 방법으로 천사들은 거문고를 가져왔는데,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셨다. 지휘하는 천사가 첫 음을 연주하자 모든 목소리는 감사와 행복에 찬 찬양을 불렀고, 모든 손들이 능숙하게 거문고의 줄을 튕기면서 풍성하고 완벽한 조화를 이룬 음조를 울려 보냈다. 그 때 나는 예수님께서 구속 받은 무리들을 도성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분께서 빛나는 돌쩌귀에 달려 있는 큰 문을 뒤러 열어젖히면서 진리를 고수한 나라들을 들어오라고 명하셨다. 도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었다. 저들이 어디를 보나 풍성한 영광이 있었다. 그 때 예수님께서 구속받은 그분의 성도들을 바라보셨는데 저들의 얼굴은 영광으로 빛났고, 그분의 사랑스러운 눈을 저들을 향하여 보시면서 그분의 풍성하고 음악과 같은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노라. 너희들은 이 풍성한 영광을 영원토록 누릴지어다. 너희의 슬픔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사망이나 슬픔이나 눈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고통도 다시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구원받은 자들이 엎드려 저들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던지는 것을 보았다. 그 때 그분의 사랑스러운 팔로 저들을 일으키시자 저들은 금 거문고를 쫓고, 온 하늘은 저들의 음악과 어린양의 노래로 가득 찼다.

그때 나는 예수님께서 구속받은 무리들을 생명나무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다. 다시 인간의 귀에 들려진 그 어떤 음악보다도 더욱 사랑스럽고 풍성한 음성을 들었는데, “이 나무의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느니라. 너희들은 이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시는 것을 들었다. 생명나무에는 가장 아름다운 과일이 달려 있었는데, 성도들이 자유스럽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었다. 도성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보좌가 있었다. 그 보좌 아래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 강이 흘러나왔다. 이 생명 강 양편에 생명나무가 있었다. 생명 강 강변에 먹기에 좋은 과일을 맺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있었다. 하늘에 대해 묘사하기에는 언어가 너무나 빈약하다. 이러한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나자 나는 너무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뛰어난 아름다움과 탁월한 영광에 도취되어 나는 펜을 놓고, “아 - 이 어떠한 사랑인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고 소리쳤다. 가장 뛰어난 그 어떤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으리라.

(사 53: 11, 계 21:4, 22:1-4 참고)

제39장

땅이 황폐 됨

나는 그 때 땅을 보았다. 악인들은 죽었고 저들의 시체들은 땅의 표면 여기저기 늘어져 있었다. 이 땅에 사는 거민들은 마지막 일곱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였다. 저들은 고통을 인해 혀를 깨물었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거짓 목자들이 여호와와 하나님의 표적이었다. 저들의 발로 지탱하여 서 있는 동안 저들의 눈과 저들의 입에 있는 혀가 소멸되어 갔다.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 성도들이 구출된 후에, 악한 무리들의 분노를 저들 상호간에 나타내었다. 땅은 피로 물들었고, 죽은 시체들은 땅 끝 이쪽에서 저쪽에 이르렀다.

땅은 가장 황폐된 상태에 있었다. 도시들과 촌락들은 지진에 의해 흔들려 잔해로 산더미를 이루었다. 산들은 제 자리를 떠나 커다란 동굴들을 남겼다. 바다는 거친 돌들을 땅으로 내던졌다. 바위들은 땅의 표면에 깨어져 땅 사면을 덮었다. 땅은 마치 황폐된 사막과도 같았다. 큰 나무들이 뿌리 채 뽑혀 덜렁 누워 있었다. 여기가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1,000년 동안 살게 될 집이었다. 저들은 여기에 갇혀 있으면서 깨어진 지상의 표면을 배회하며, 하나님의 율법에 대항한 반역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초래한 저주의 결과들을 그는 1,000년 동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땅에만 있도록 국한 될 것이기에 다른 세계를 돌아다니며 타락하지 아니한 자들을 유혹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사단이 이번에는 몹시 고통을 당한다. 그가 타락한 이래 그의 악한 기질들을 끊임없이 행사해 왔다. 그때 그는 그의 능력이 박탈되고, 그의 타락 이래 그가 한 일들을 반성하게 될 것인바, 그가 행한 모든 악에 대해 고통을 받아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한 모든 것에 대해 형벌을 받아야 하는 두려운 공포로 인해 떨면서 미래를 기다리며 남아있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때 천사들과 구속받은 자들이 외치는 승리의 합성을 들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천 천의 악기 소리와 같았는데, 이는 저들은 더 이상 마귀에 의해 성가심을 당하거나 유혹을 받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며, 다른 세계에 사는 거민들도 그의 임재와 그의 유혹에서 구출함을 받았기 때문에 외치는 소리였다.

그 때 나는 보좌를 보았는데, 예수님과 구속받은 자들이 그 위에 함께 앉아있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 왕과 제사장으로 통치하였다. 죽은 악인들이 심판을 받고, 저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되었고, 저들이 육체로 있을 때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았다. 성도들과 연합한 예수님께서 저들이 당해야 할 고통에 대해 저들의 행위에 따라. 사망의 책에 기록된 대로, 저들의 이름에 적혀 있는 대로 정하였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 역시 예수님과 성도들에 의해 심판을 받았다. 사단이 당하는 형벌은 그의 속임을 당한 자들보다 훨씬 큰 것이었다. 저들이 당하는 형벌보다 훨씬 큰 것이어서 저들이 당하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가 속인 모든 자들은 소멸되었으나, 사단은 아직도 살아서 더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해

야 했다.

죽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끝난 후, 천년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도성을 떠나 나오실 때 천사의 무리들이 그 뒤를 따랐다. 성도들 역시 그분 뒤를 따랐다. 예수님께서 크고 거대한 산에 내려 오셨는데, 그분의 발이 그곳에 닿자 마다 산이 갈라져 평지가 되었다. 그 때 우리는 바라보니 열 두 기초가 있고 사방에 세 문씩 열두 문이 있고, 문 하나에 천사가 하나씩 있는 크고 아름다운 도성을 보았다. 우리는 “도성, 큰 도성!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 온다!”고 소리쳤다. 그 성은 모든 찬란함과 눈부신 영광으로 내려와 예수님께서 성을 위해 마련하신 평지에 안착되었다.

(속 14:4-12, 계 20:2-6, 20: 12, 21:10-27 참고)

제40장

둘째 부활

그때 예수님과 모든 호위하는 천사들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도성을 떠났다. 거룩한 천사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그분이 가시는 길을 호위하였고, 구속받은 성도들의 행렬이 그 뒤를 이어 따라 갔다. 그 때 예수님께서 몹시 두렵고 위엄에 찬 음성으로 죽은 악인들을 불러내셨다. 저들이 무덤 속에 들어갔을 당시와 같이 연약하고 병든 몸으로 나왔는데, 아- 어떠한 장면이었을까? 첫째 부활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멸의 몸으로 (새롭게) 피어났는데, 둘째 부활의 때에는 저주의 흔적들이 역력하였다. 이 땅에 있었던 왕들과 고관들, 인색(비열)한 자들과 비천한 자들, 유식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이 다 함께 일어났다. 모든 사람들이 인자를 바라본다.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던 자들, 갈대로 그분을 찢던 자들, 그분의 거룩한 이마에 가시 면류관을 씌웠던 자들이 왕의 위엄을 가지신 분을 바라본다. 그분이 심문을 받으실 때 침을 뱉었던 자들이 이제 그분의 꿰뚫어보는 눈빛과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을 피하려고 한다.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자들이 이제 그분이 못 박히셨던 상처를 바라본다.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자들이 저들이 만든 잔인한 상처를 그분의 몸에서 본다. 그리고 저들은 저들이 못 박았던 바로 그분, 마지막 고뇌의 숨을 쉬실 때 조롱했던 그분이라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때 저들이 왕 중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분의 임재로부터 피하여 도망하고자 할 때 길고 긴 고뇌의 울부짖음이 일어난다.

모든 자들이 바위 밑에 숨기를 구하고, 한 때 멸시했던 분의 두려운 영광으로부터 피하려고 한다.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위엄과 탁월한 영광에 압도되어 괴로워하면서도 분명하고 두려운 목소리로 하나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도다!”라고 소리쳤다.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은 다시 도성으로 갔고, 운명지어진 악한 사람들이 비참한 통곡소리와 신음소리가 온 하늘을 가득 채웠다. 그 때 나는 사단이 다시 그의 일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다. 그의 백성들 사이를 왕래하면서 연약하고 허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면서 그와 그의 천사들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부활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켰다. 그 가운데는 힘 센 전사들과 전쟁에 능한 자들, 왕국을 정복한 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힘 센 장사들도 있었고, 용감무쌍하고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자들도 있었다. 그가 나타나면 왕국들이 별별 떨었던 자만심이 많고 야심 많은 나폴레옹도 있었다. 그 가운데 싸움에 패배하여 죽어간 키가 크고, 위엄이 있는 자들도 있었다. 정복자가 되려 목말라 했으나 패배 당한 자들이었다. 저들이 무덤에서 일어났을 때 죽음으로 인해 끝났던 생각들을 다시 하게 되었다. 저들이 패배 당했을 때 그들을 정복하려고 했던 동일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사단과 그의 천사들이 함께 모여 의논했고, 다음에 왕들과 정복자들, 힘 센 장군들과 함께 의논했다. 그 때 그는 셀 수 없는 군사들을 보면서 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가 적고 연약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면서 저들이 가서 성을 빼앗고 그 안에 있는

거민들은 내어 쫓고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것들과 영광을 취하자고 말했다.

사단은 저들을 속이는데 성공한다. 그리고 모두 즉시 전쟁에 합당한 준비를 한다. 저들은 전쟁 무기들을 만드는데 그 군대 안에 기술이 있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단을 저들의 수뇌로 삼고 수많은 무리들이 움직인다. 왕들과 장군들이 사단 가까이 따른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때를 이루어 따라간다. 모든 무리에 지도자가 있고, 저들이 황폐된 지구 표면을 걸어 거룩한 도성을 향해 걸어가며 질서를 유지한다. 예수님은 도성의 문을 닫는다. 그리고 수많은 군대들은 성을 포위하고 싸우기 위해 정렬한다. 저들은 격전을 예상하면서 전쟁을 위해 모든 준비를 했다. 저들 스스로 도성 주위를 감쌌다. 예수님과 천군천사들이 저들의 이마에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모든 성도들도 저들의 이마에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도성의 성벽 위로 올라간다. 예수님께서 위풍당당하게 말씀하시기를 “죄인들아, 의인들의 보상을 보라! 그리고 나의 백성들아, 악인들이 받을 보응을 보라!”고 하셨다. 수많은 무리들은 도성 성벽 위에 있는 영광스러운 무리들을 본다. 그리고 저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을 보면서, 그리고 저들의 얼굴이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 안에 반사되는 예수님의 형상을 보았으며, 그리고 그 때 왕 중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분의 탁월한 영광을 바라보자 용기를 잃고 만다. 저들이 잃어버린 보화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정신을 잃고 저들 스스로 싸움질을 하며, 죄의 값은 사망임을 깨닫는다. 저들은 도성 밖에서 모든 비열한 것들과 혐오스러운 형편에 처해 있는 반면, 저들이 떨시었던 자들이 거룩하고 행복하며, 영광으로 옷 입고 존경을 받으며, 불멸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됨을 본다.

(마 23:29, 계 6:15,16, 20:7-9, 22:12-15 참고)

제41장

둘째 사망

사단은 무리 가운데도 돌진하여 무리들에게 행동을 개시할 것을 선동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불이 저들 위에 비처럼 내렸고, 위대했던 사람, 고상한 사람, 가난한 사람, 불행했던 사람 모두가 함께 불에 탔다. 나는 어떤 사람은 신속하게 불타고, 다른 사람들은 더 오랜 시간 타는 것을 보았다. 저들이 육체로 살아있는 동안 행한 대로 형벌을 받았다. 어떤 자들은 여러 날 동안 불에 탔는데 탈 것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 탔으며,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이 수반되었다. 천사는 “생명의 기생충은 죽지 않는다. 그 기생충이 먹을 찌꺼기가 남아 있는 한 그들의 불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당했다. 사단은 그가 범한 죄의 무게와 형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구속받은 자들의 모든 죄와, 그가 죄 짓도록 유혹하여 멸망 받게 한 영혼들의 죄까지도 책임을 져야 했다. 그 때 나는 사단과 그의 모든 천사들이 불타는 것을 보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했고, 모든 천군천사들과 구속받은 성도들이 큰 소리로 “아멘!”하고 소리쳤다.

천사가 말하기를 “사단은 그 뿌리요, 그 자녀들은 가지들이라. 이제 저들(뿌리와 가지들)이 모두 탔다. 저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하였다. 저들은 결코 다시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한 우주를 소유하실 것이다”라고 했다. 그때 나는 악인들을 태우는 불을 보았는데, 쓰레기를 태우고 땅을 정결케 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다시 살피며 정결케 된 땅을 보았다. 그곳에는 단 하나의 저주의 흔적도 없었다. 황폐되고 평평하지 못했던 지구 표면은 이제 평지처럼 수평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온 우주가 이제 깨끗하게 되었고, 대투쟁은 영원히 끝났다. 어디를 보나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곳은 모두 아름답고 거룩했다. 그리고 모든 구속받은 무리들이 나이 많은 자들이나 젊은 자들, 위대한 자들이나 작은 자들 모두가 저들의 빛나는 면류관을 저들의 구속 주 발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그분 앞에 경배를 드렸다. 그리고 영원무궁토록 사실 그분을 경배했다. 아름답고 새롭게 된 지구가 그의 모든 영광과 함께 성도들의 영원한 유업이 되었다. 왕국과 통치권과 온 하늘 아래 있는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주어져 영원무궁토록 저들의 소유가 되게 하실 것이다.

(사 66:24, 단 7:26, 27, 계 20:9-15, 22:3 참고)